

공군

1963年 4月 25日 印刷
1963年 4月 30日 發行

4

코메트·미사일
通券73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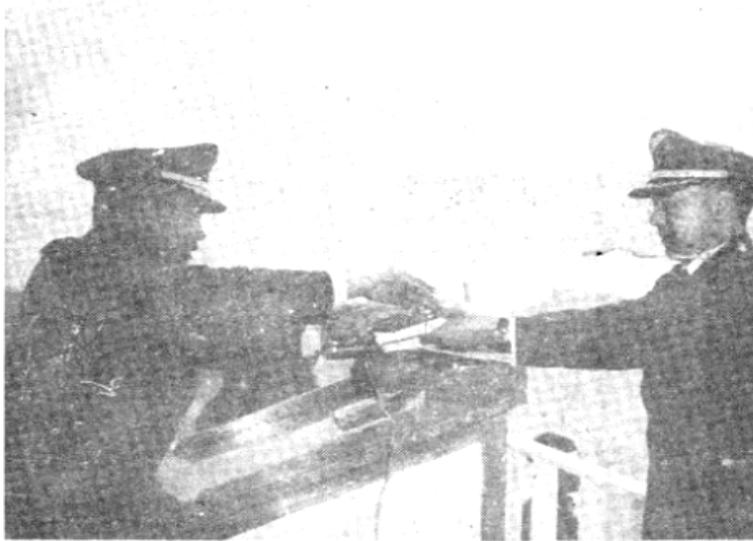
特
輯

오늘의軍隊와政訓

自由와規律과團結
李烟錫



1963



김성은(金聖恩) 국방장관 공본을 초도순시(상)
김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28일 공군본부를 초도순시하였다.
<장 참모총장과 환담하는 김 국방부 장관>

11전비 111대대서 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수립
11전비 111대대에서는 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하여 지난 3월 15일, 영예의 참모총장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 받았다. <오점석(吳占石) 참모부장으로부터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



공군(코메트 미사일 통합) 73호 차례

〈화보〉…… 표지2·면 및 목차 뒤
 〈권두언〉 일신양역 정훈감 김영호

자유와 규율과 단결 이정석

단결과 통솔 김동홀
 인화단결 임동선
 군생활과 단결 백용삼
 개인 행동과 집단 생활 임희섭

◇소 · 중공은 왜 싸우고 있나? 조세형

◇소련 농업의 본질과 그 결함 김성철

구라과의 최근 동향 김준환

특집 오늘의 군대와 정훈

현대전과 정훈 이용상

국군정훈의 당면 문제 문중섭

적의 심리전 공세와 그 분쇄책 여석진

▽세계 경이 순례 김영주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2차 연도 계획 개황 문린석

핵잠수함의 성능과 전략적 가치 조규연

항공기상이란 무엇인가? 최우석

반공수기 북한 동포는 나를 살렸다③ 이준수

▲장병 페이지 지
 수필 · 산으로 가는 마음 소위 남정현
 시 · 조개 하사 박연
 시 · 바닷가 언덕에 서면 상병 노수
 시 · 조국에 부치는 노래 일병 김동원

현대 철학 강좌④이성에서 자유에의 과정 김형석

한국의 음악 연재심포지움 한국의 자랑④ 성경린

시 비행 김종원

비소설 같은 봄(글 · 그림) 김영태

직업 의식 이창건

무시 당한 교수 이상옥

화차 지붕의 추억 박용민

무제 정강석

뉘시예의 유혹 고정기

천렵 이야기 김동준

연재 신판 토끼전(완) 계문수

공군과의통신교육 소개 공군대학학술연구부

◇후기

표지화.....민철홍
 목차.....김기창
 컷.....우경희

군인의 길

군진수칙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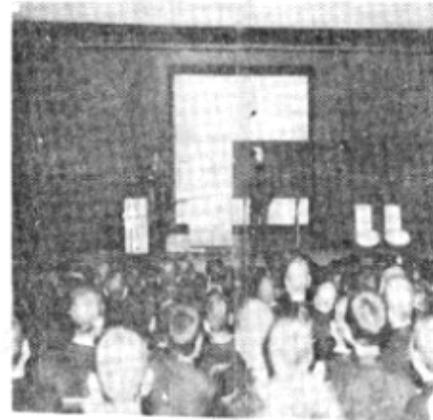
셋. 우리는 슬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 시설을 애호하고 군수 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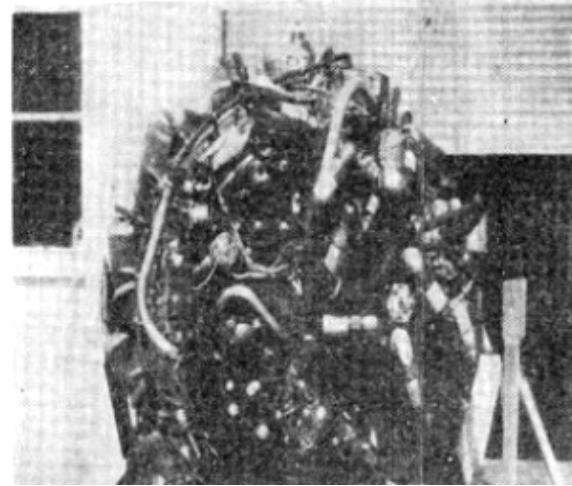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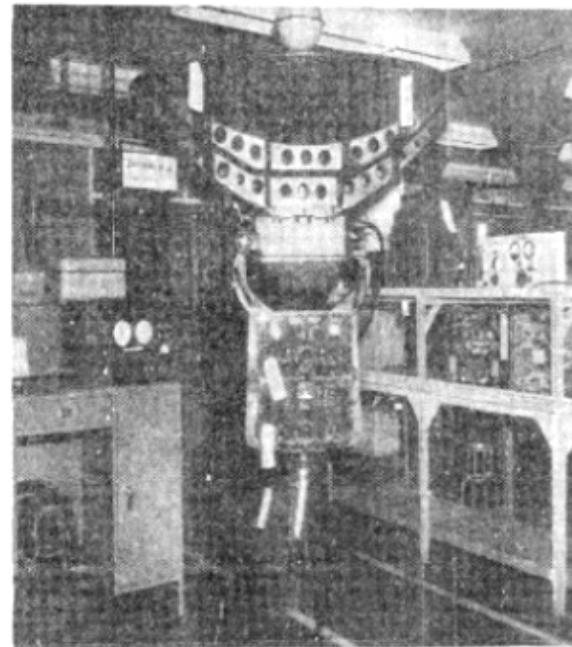


<사진> 상, 개막 테이프를 끊는 오점석 참모부장. 중, 우리 공군이 베푼 「제트비행과 인체」에 관한 강연을 듣는 학생들. 하, 「거, 참 신기하군」 전시장에서 설명

항공과학 전시회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말 사이에 국립과학관에서 동관 주최 국민후원이로 항공과학 전시회가 개최되어 일반의 항공관심을 끌고 있다.

고층 기상 관측 레이더, T-33 엔진 창정비에 성공 약진하는 우리 정비진은 내외의 절찬을 받고 있거니와 이번 항공 본창 81 수리창에서는 고층기상관측 레이더와 T-33 엔진의 창정비에 성공하여 또 하나의 개가를 올렸다.

<사진> 상, 창정비에 성공한 기상관측 레이더. 하, 창정비에 성공한 T-33 엔진.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여 추호도 적을 돕지 않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기타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혁명공약

- 1. 반공을 국사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 비 강화한다.
-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 5.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를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다.

1963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백춘득

<권두언>

일신양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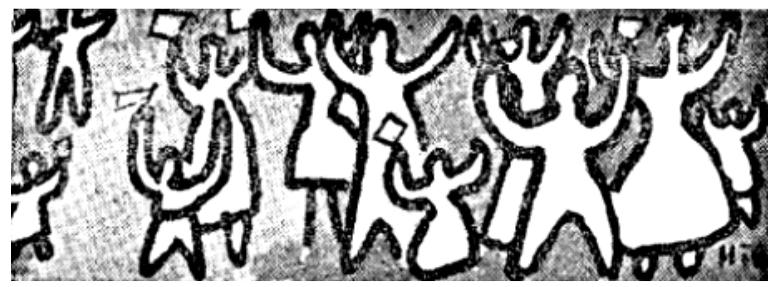
두 개의 정훈지를 통합하면서.

정훈감공군대령 김영호

그동안 코메트와 미사일로 분리 발간해 오던 정훈지를 공군으로 통합하여 발행하게 되었다.

회고하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1961년 4월, 종래 교양지로 발간하여 오던 코메트를 정훈교육지로 지양하여 이를 이념교육을 중심으로 한 반공 민주국가교육부 면을 담당케 하고, 새로 미사일지를 창간하여 생활실천교육지로 육성해 온 바 있다.

그간 미사일은 23회가 발간되어 어느 정도 소임을 수행하여 왔으나, 불행히도 코메트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작년 이래 휴간되어



그가 수행하여야 할 이념교육부 면의 관계 기사를 미사일에 의지하여 올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두 개의 정훈지를 발간하려던 우리의 꿈은 실질적으로 실현과 동시에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본지는 정훈교육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이념교육과 생활실천교육을 하나의 지면 위에 통일 조정함으로써 군정훈교육을 위한 교재적 소임과 군인의 교양 향상을 위한 교양지로서의 소임을 다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지는 국방 임무의 완수와 혁명 과업의 촉진을 위하여 일신양역하고 있는 장병들의 선두에 서서, 지난날 코메트가 쌓아 올린 빛나는 전통과 미사일이 개척해 놓은 새로운 경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장병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한다.



자유와 규율과 단결

이경석
〈전 국방부 정훈국장〉

무릇 자유와 규율과 단결의 세 가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어느 부대에도 필요한 것이나 공군이 무변대공을 전쟁터로 하는 것은 자유의 상징이라 하겠으며 일분일초의 시간을 다투어서 일침 일사의 어김없는 정비된 항공무기를 이용하여 적을 향하여 돌진하는 공중작전의 양상은 규율의 상징이라 하겠으며 공지 일체의 묘미를 발휘하여 전군, 전단, 전대 장병이 일 순간의 결전을 위하여 모든 몸과 마음을 총집결하는 것은 단결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단결의 구성요소에는 자유와 규율이라는 외향성과 내향성이 서로 잘



조화되어서 경도를 이룩하고 있다고 하면 경상과 혜하라는 상하간의 윤리관이 서로 잘 어울려서 위도를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니 그렇지 못하다면 동물사회에 대하여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만 같다. 우러러보면 질서 정연하게 행렬을 지어 대공의 나그네 길을 가는 기러기 떼를 볼 수 있고 굽어 살펴보면 군서 생활을 자유스럽게 즐기는 개미집을 볼 수도 있다. 하물며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목표 아래서 모여진 우리 군인들이 운명을 걸고 일어난 혁명 도정에서 전우애를 저버리고 우리 전우들의 가슴에 우리의 총을 겨누려는 대역을 감행하려 하여서야 동물사회에 대하여서도 무안한 일이 아니겠는가.

참된 자유는 그 결실에 있어서 크고 많은 책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책무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하여서는 각자의 적은 이익 다시 말하면 사리와 소아를 억제하는 규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 범인이라든 원래 오관을 갖춘 본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의에 앞서서 자기 욕구에 타락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타락의 저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대도의 길이요, 의로운 정상을 향하여 의인 열사들이 가는 길은 대의의 길이이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몸무게는 크게 다른 바 없거늘 인생의 막을 닫고 관속으로 들어갈 때의 각자의 가치에는 천문학적인 천차만별이 있는 것이니 우리가 진정 대장부일진대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택하여야 할 것인가. 성현은 말하기를 ‘불의이부차귀는 어아에 여부운’이라 하였다. 의롭지 못하고서 돈이 많고 벼슬이 높아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뜬구름과 같다는 것이니 그 얼마나 시원스러운 말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기미년 독립운동의 우렁찬 만세 소리가 채 사라지기 전인 1920년 미국의 국회의원 몇 사람이 독립운동을 실지 조사하러 나왔을 무렵 월남 이상재(李商在) 선생께서는 어떤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귀가 들어 있는 연설을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 나라가 부국인 까닭도 아니요 강병한 까닭도 아니다. 이는 오로지 미국 백성들이 정의와 인도와 자유를 사랑하는 민주주의자인 까닭이다.’ 이것은 그 당시의 우리 선인들이 무척이나 자유를 갈망하였음을 대변하는 말귀인 것이니 그러기에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세계만방에 외쳤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 자유의 두 글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목숨과도 바꾸기에 주저하지 않던 그리운 그 님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선인들이 그리워하던 자유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지 않은 채 왜제는 자유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앞에 무릎 꿇고 말았으며 우리에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닦쳐왔던 것이었다. 「이위공 문대(李衛公問對)」라는 명저를 남긴 청 태종은 말하였으되 ‘군주는 국가로 근본을 삼고 국가는 국민으로 근본을 삼는데 만일 군주된 자가 국민의 고혈을 빨아서 배를 불린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의 살을 베어서 배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는 불렸으되 몸은 죽어버릴 것이라. 군주는 부하게 되었으되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 아닐까?’ 하였다. 민본사상 민주정치의 싹은 이미 이러한 말에 터 있는 것이니 군주라도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백성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자유가 있는 것이다. 여하한 지휘관이라도 부당한 명령을 내릴 권리는 없는 것이고 여하한 병이라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국민의 이름으로 서 내리는 명령이야만 진정한 명령인 것이니 이번 쿠데타 음모자들이 만일에 국민의 이름을 악용하였다면 그것은 큰 도적 행위요 큰 협잡질에 틀림없으며 마땅히 국민의 이름 밑에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요 민주주의와 자유의 공적이라 할 것이요 자기의 살을 자기가 깎아 먹으려는 대우를 범하는 소이가 되는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함이 아니고 극소수의 사리와 사욕을 채우려는 것이니 결코 대의가 될 수 없고 정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가령 여기에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식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막을 힘은 아무에게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되 밤이 되었다 하여 자기 집이 아닌데 들어가서 편안히 쉬려는 자유를 요구한다면 이는 방종에 틀림없을 것이고 남의 자유를 박탈하는 범죄가 되는 것이니 왜제의 침략이 바로 이러한 자유에의 적이었던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자유는 의무와 책임을 다한 연후에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게 마련이니 봄에 씨를 뿌려 여름 동안 땀 흘려 가꾸어야 가을에 가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안정된 생활의 자유와 농산물 소유의 권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는 우리의 파종 다음에 오는 노력과 적정에 뒤따라 오는 것이어서 정의가 숨기기 전에는 필연적 사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군인들은 국방이 위태로울 때에는 목숨을 내던지고 적과 싸워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르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명령에 절대

복종할 책임이 있는 것이요,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 연후에야 비로소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의 간성(干城)이라는 명예를 차지할 수 있다. 눈앞의 사리를 탐내어 더욱 큰 공리를 저버린 사회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5척 단신의 조그마한 목숨을 아끼다가 나라와 겨레의 큰 운명을 그릇되게 한 후에 패군 망국의 유랑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디 있으며 부와 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이와 같이 참된 자유라는 것은 고진감래로 의무와 책임을 다한 후에 따라오는 것인바 자유만으로는 어떠한 집단체의 참된 단결을 이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음식의 조미는 단 것만으로서서는 안되는 법이니 쓴 것, 신 것, 짠 것, 매운 것들 이른바 오미의 변화가 필요하니 그것이 곧 규율이라 하겠으며 자유의 여신은 규율의 맹사와 짝지어서 알뜰한 가정의 단락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마리의 썩뚜기 때문에 물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군대에서는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 모양인바 까마귀 떼처럼 질서 없는 군대를 말함이라. 한 사람의 레이다 수가 깜빡 졸고 있다가 적기를 포착하지 못하였거나 요격기 조종사가 1초 동안 늦게 출동함으로써 편대를 이루지 못하였거나, 지상 정비사가 나사못 하나를 빼놓은 탓으로 비행 성능을 떨어뜨렸다면 그 한 사람의 규율위반이 전군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니 진실로 규율(군기)이라는 것은 단결의 심장부라 할 것이다. 군의 생명이 군기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 아니겠는가.

일만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작용이 규율이요 군기인 것이다.

자유와 규율은 방패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서로 떨어져서 존립할 수는 없다. 교통규칙에 있어서 횡단보도의 예를 들어 보자. 저만치 있는 횡단보도를 돌아가기가 귀찮다 하여 엉뚱한 곳에서 횡단하려는 피부리가 있는가 하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마구 건너가려는 양체도 있을 것이니 이러한 위반자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대의 차량이 골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로행정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교통규율이 있고 보행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교통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것이거늘 만일에 자기 안일과 자기편의만을 위하여 방종한 행동을 자행한다면 공도 질서는 무너질 것이요, 질서 없는 사회에 진실한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교통안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는 교통규칙의 준수

는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일반사회의 한낱 교통 규율에 있어서도 이러한것들을 하물며 성충보국(誠忠報國)하는 군인들의 국가운명을 짊어지는 집단에 있어서라 자고로 군기가 확립되지 못한 군대가 전쟁에 이겼다는 예가 없으며 군율이 태산 같은 군대가 어쩌다 패배하였다는 예도 또한 듣지 못하였다. 어떠한 학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배한 것은 무력이 약하였던 탓이 아니고 보급이 불충분하였던 탓이라고 한다. 사실상 독일은 1918년의 최후까지 연합군 측 점령지역을 보유하다가 총퇴각을 하게 되었으니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으나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는 바이다. 독일은 이미 이 때에 군기가 해이해져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있었던 것이니 물질적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벌써 패군지졸, 망군지병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전사학적으로 고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 이상 논하지 아니한다.) 또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군도 역시 무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 물력으로 진 것이라고 하는 말도 많으나 이것 또한 그렇게 보지는 아니한다. 그네들은 군기 면에 있어서 이미 뒤흔어져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개전초기의 일본군은 싱가포르 요새 안에 흙투성이의 얼굴로 뛰어들어 이겼으며 이 때 영국군은 파시발 장군 이하 산뜻한 군복차림으로 백기를 들고 항복하였으며 말기의 일본군은 이와 반대로 호화스러운 군복차림으로 누더기 군대인 영국군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으니 진기한 전쟁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화려한 군대는 장난감 군대요 흙냄새 땀냄새 나는 군대는 강군 맹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군기의 강약 여하는 승패 여부를 결정짓는 바로미이터라 아니할 수 없다. 자기 한 사람만의 호사와 세도에 한눈을 팔고 자기 한 집안의 부귀와 영화에만 또한 눈을 어둡게 하여 사사로운 불만과 불평에 빙자하고 사당과 분파의 그릇된 생각으로 군기의 존엄성을 어기어 엉뚱한 반혁명 살육을 감행하려던 폭거를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지 아니하였던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숨 가쁘게 줄달음질 치는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잠재적 이나마 위협을 주게 하였다고 생각할 때 군기가 오로지 군대 내의 질서유지와 전투목적 달성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과 국민 사기에 직접 커다란 영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보았던 것이다.

규율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준법정신이요 군에 있어서는 복종이라고 믿는다. 우리 동양에서 고래로

지켜 내려오는 율법에 오류가 있음은 이미 다 아는 바이지만 군신은 유의하고 부자는 유친하고 부부는 유별하고 장유는 유서하고 봉우는 유신하다 라는 이 교훈의 근본적인 이념이 북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한다. 사랑과 존경이 그 밑바탕이라는 것이다. 장유는 군대 내의 상관과 부하 관계이니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상관은 상관답게 부하는 부하답게 하라는 것이요 봉우는 군대 내의 전우관계이니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옛 어른들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씹어 보면 씹을 수록 진진한 맛이 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소장 시절에 만주에 류동과 부대라는 길림지방 토비 출신의 부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정에 의하여 그 부대의 작전을 지휘한 일이 있었다. 부대원들의 반수 이상은 팔 병신, 다리 병신, 눈, 코, 이마 등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고 인상도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싸움에서 용전한 친구들이어서 병신 아닌 사람은 쑥스러울 지경이었는데 그 부대의 북종관념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부대장 류동과와 술좌석을 베푸는 동안에도 별래 같은 친구가 쌍권총을 차고 끝까지 부동자세로 서서 호위하는 것이었다. 오십 평생을 같이 자라온 노병으로부터 십오륙세의 애기 병정까지가 모두 엄한 군율 밑에, 그러나 다정한 경애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었다. 류동과라는 사람은 일자무식이었으나 엄(嚴)과 관(寬)을 겸비한 용장이어서 그가 한번 명령하면 그 부하들은 수화라도 가리지 않고 싸우니 가는 곳마다 훌륭한 전과를 올렸다. 이 사람은 그 때에 군기의 뒷받침이 북중에 있고 북중의 터전은 경상 해하의 애정에 있다는 사실을 몸소 배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것이 오늘까지 틀림없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의 긴 세월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군대를 양성하여 놓는 것은 하루 동안의 승패를 위함이니 군대라는 집단은 딴 단체와는 달라서 독특한 군율을 가지게 된다. 하루의 가치가 국가운명을 결하는 전쟁의 날만치 중대한 것은 없으려니 10년 양병의 모든 정열과 해지와 물자를 이 하루에 총집중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항공전에 있어서는 하루가 아니고 분초를 다투게 되는 것이어서 시간관념이 썩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군에 있어서는 일반사회의 도의문제가 곧 국가운명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군만이 가져야 할 율법이 있는 것이다. 일반사회에 있어서는 명령위반이 기껏해야 시말서나 견책감이겠으나 군율에서는 항명죄가 되고 중형감이 되는 법이니 이것은 군이 지니고 있는 특수사명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지난번에 45명의 장교들이 최고 회의 앞에서 시위한

사건은 조사 결과에 의하여 판가름이 날 것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정신은 아름답으나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 군율에 저촉되는 점이 있을 듯 하니 직속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거부하였다는 점과 군인이 정치문제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제일 문제가 될 듯하다. 정치문제라 하여도 나라가 기울어지고 국운이 위태롭다 하면 나가 싸울 군인이기 때문에 그네들은 필시 전쟁터에 나선 전사 같은 기분으로 죽기로 맹세한 처사일 터이니 정당운동을 하거나 정치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과는 판이한 적이 있으며 이 사람으로서는 깊은 양해가 가는 바이다. 그러나 직속 상관의 명령마저 어기었다는 점은 연소미거(年少未巨)한 탓이라 할지라도 군율 있는 국군으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군율은 추상과 같고 군령은 태산과 같으니 앞으로 군의 젊은이들에게 특히 이것을 명심시킬 필요가 많다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명을 던져서라도 수호하여야 할 자유이며 그리하여 아손만대까지 이어받게 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치뤄야 할 대가도 적지 않고 군인의 사명도 따라서 큰 바가 있다. 이토록 고귀한 자유를 수호키 위하여서는 준엄한 군율 준수가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인바 규율의 확립은 결국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아끼고 귀여워하는 인화단결의 뒷받침 밑에서 북중하는 데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을 평하기를 돌이 모이면 두 파가 되고 셋이 모이면 여섯 파가 된다고 하였으니 여섯파라는 것은 A파, B파, C파, AB파, AC파, BC파의 여섯이라는 것이다. ABC파의 표준형은 썩지 아니한 것이다. 나는 이 말이 모두 옳은 말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긍정하여야 할 논리도 있을 법하기는 하다. 이조 선조 이후의 당파 분열표를 보면 동인, 서인의 두 파가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다시 북인은 대북, 소북으로, 대북은 육북, 골북, 중북으로 세 파가 되고 소북은 청소북, 탁소북의 두 파로 분열되었으며 인조조 때에는 서인이 청서, 훈서, 소서, 노서의 네 파로 나뉘었고, 숙종조에 들어가서는 노론, 소론과 청남, 탁남의 소위 사색 당파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와 같이 계보를 따진다는 것은 일종의 악취미에 속하는 것이고 본인들에게는 매우 달갑지 못한 노릇이라고 믿고 싶다. 동인의 두목이라고 꼽는

김효원(金孝元)은 영흥(永興) 부사로 쫓겨가서 아까운 인재가 그냥 초야에 묻히고 말았으며 서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심의겸(沈義謙)은 역시 개성 유수로 나가게 되어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는데 김효원이 개성을 지날 때에는 심의겸이 매우 후대하여 주배로 환담도 하는 사이였다고 하니 호사가들의 죄과도 없지는 아니한 듯하다. 이러한 예는 지금 이 시점에서든 엿볼 수 있으니 지별, 문별, 학별 등을 장본인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보태어 떠들어 대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파벌의식은 개 개인의 사적 생활의 적은 일면에 속하는 것임에 틀림 없는 것인데 이것을 공적 면에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저 공과 살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은 대적(大敵)이라 할 것이고 국민적 도량(度量)이 좁고 개인적 기품이 저열한 것을 뜻하는 것이니

백만인이 일심이 되어야 할 군 내부에 있어서는 유해무익일 뿐만 아니라 그 해독이 더욱 크다는 것을 역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모래알은 그 하나하나의 타격력은 매우 적으나 이것이 한데 모여 더구나 같은 이념으로 교착이 된다면 돌과 같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니 단결의 힘은 수학 원칙 이상으로 크게 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 두 사람의 힘은 수학적 으로는 두 배의 힘에 지나지 못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는 백 배도 될 수 있고 천 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반대로 20분의 일도 될 수 있고 200분의 일도 될 수 있으니 여기에서 부부의 힘은 깨어지고 서로 이혼하여야만 서로 1이라는 힘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부는 이혼으로 해결할 수 있되 군대는 그럴 수는 없다. 군대는 참으로 특이한 곳이라 하겠으니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출생하고 성장한 때와 장소와 환경이 다르고 가정 교육,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이 백인 백색이지만 한번, 군대라는 도장에 들어 오게 되면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 모두 같은 조건하에 한 덩어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마치 용광로에 철광석을 집어넣고 만강철, 주석, 규소, 철, 석회석, 흑연, 형석, 알미늄, 염화안뎀 같은 부원료를 넣어서 선철, 강괴 같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그 단결은 일반 가정의 육친관계 이상으로 강대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적진에 돌입하는 순간에 그 단결의 극치에 다다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사를 연구하여 보면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에 이긴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은 항상 적은 것을 제압한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긴 군대 편이 반드시 이긴 군대 편이 그보다도 적거나 진 군대 편이 이긴 군대 편이 그보다도 반드시 많은 것도 아니다.

그 군대의 총지휘관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편이 이긴 것이고 진 것을 승인한 편이 진 것이다. 엄파이어가 있어서

스코어를 카운터 하여 승패를 판결하는 운동경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패전을 부인하고 더욱 단결을 굳게 하여 사기가 드높은 편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단결의 도수를 재는 계량기가 사기라 할 것이니 강하면 강할수록 사기는 올라간다고 볼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잘 먹고 잘 재우고 잘 놀게만 하여 주면 덮어 놓고 좋아하고 행복한 것은 못 된다. 자유가 있고 규율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 단결이 굳어지고 그 결과 사기가 올라가는 법이니 자유가 없는 대부호 집 노예들에게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규율이 없는 야생마 가운데서 어찌 명마를 구할 수 있겠는가. 자유가 없고 규율만 강한 간방생활이나 규율이 없고 자유만 강한 걸인 생활에서 어찌 단결을 바랄 수 있으며 사기 양양을 원할 수 있겠는가.

단결에는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조건이 있으니 도박국의 단결, 김일성 도당의 단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대의명분이 서지 아니하는 단결이어서 진정한 뜻의 단결이나 사기 양양이 나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알약은 알약이로되 가짜 알약이라는 것이다. 그 약의 원료가 가짜 자유, 가짜 규율이니 그 제품이 진짜가 될 때가 없다는 것이다.

그야 노예에게도 먹고 자고 하는 자유야 있을 것이고 야생마에게도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제압하는 규율이야 있을 것이지만 또한 간방 생활에도 어떤 자유는 있을 것이고 걸인 생활에도 어떤 규율은 있을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커다란 목표와 높은 대도가 없으니 우리 군대의 진정한 단결과는 같이 논할바 못 되는 것이다.

단결은 이와 같이 값있고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단결을 해치는 이질적 요소에 대한 문제이다.

물과 기름은 서로 혼화되지 못하며 사자 같은 백수의 왕도 위장 내의 해충에는 견디지 못하는 법이며 모든 물질의 부패균을 그냥 두면 만 부분까지 급속하게 부패될 것인즉 - 이러한 세균적인 존재와 위장 내의 해충은 빨리 제거할수록 단결을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 존재의 해독은 앞서 말한 일어탁수의 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군대는 신성한 수양 도장이어서 이러한 이질자는 따로 교정하는 기관 또는 사회 사업 하는 장소에 넘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군인 되는 요건에 전과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으로서 이 사람은 군의 지상 목표인 승리를 위하여서 일기당천의 용사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렇게 하려면 몸과 마음에 준비가 있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전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기는 강철 같은 단결의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뒷바침 없는 사기라는 것은 자기 역량을 모르고 적을 경시하고 우리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어서 도리어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니 진정한 단결이란 자유와 규율이 서로 잘 조화되는 곳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여러분 공군 용사들이여, 여러분은 자유를 사랑하고 규율이 억센 하늘의 용사들이니 더욱 단결을 굳게 하여 우리의 지상목표인 국토 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하는데 분발하시라. 진실로 민족의 자유 여하가 여러분의 두 어깨에 놓여 있으며 공군의 규율 확립 여하가 여러분의 한마음에 매겨져 있으며 10년 양병 후의 일일 결전에서 승리의 근원인 단결 여부가 여러분의 일만 동심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제 정신 제 힘으로 살 길을 찾자!』

내가 고생하고 우리 국민이 못 사는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

그렇다고 남들이 나를 대신해서 고생하고 우리를 영구히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공언히 비굴하게 남에게 사정하고 애걸해 보았자 내 마음이 흠족하도록 될 이치도 없고 사람의 값어치만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들은 궁여지책으로 일거나 친지를 찾아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하고 국가 전체로서는 외국의 원조를 얻으려 구구하게 매달리고 이것을 많이 얻어오는 사람이나 정당이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는 편이 많다. 이것은 그 정신부터가 되어 먹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신을 가진 개인이나 국민이 내 힘으로 죽든지 살든지 결단을 지어 보겠다는 용기를 잃고 있으니, 어떻게 그 앞길이 열릴 수 있겠는가? 첫째, 우리는 자주독립의 정신부터 똑바로 가셔야겠다. 거지의 근성으로 어디 누구에게서 구호의 손길이 미치는가 하는 것만을 결심으로 흘끔흘끔하는 이러한 비굴한 개성이나 국민성이라면 어떻게 독립이 유지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겠는가?

혁명이니 개조이니 하는 말보다 우선 우리 정신에서부터 비굴성을 긁어내버려야 나라도 되고 개인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주정신으로 자조활동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에서

× × ×



인화단결(人和團結)

임동선(林東善)

〈공군대령·공본 군종감〉

서론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치룬 독일이 오늘의 재건을 이룩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비결은 그 민족성의 독특한 단결력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독일에서는 아침에 공장에 나가는 여직공이 두 사람만 길을 같이 걸어도 발을 맞추어 걸어간다고 한다. 사람들은 독일의 새들은 모이를 쪼아 먹어도 일렬로 늘어서서 먹는다고까지 그 민족성의 단결력을 평하고 있다. 예로부터 단결은 약소 민족의 유일한 무기라고 말한다.

1. 단결의 필요성

옛날 영국의 한 농촌에 사는 존과 조지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하루는 두 사람이 빈곤을 탄식하며 남들보다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모색하게 되었다. 거기서 발견한 사실은 남과 같이 부업이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부업으로 양을 사서 치기로 결심하였다. 원래가 가난해서 양을 살려고 하여도 돈이 모자라 두 사람의 주머니를 텅 것이 겨우 양 한 마리를 사게 되었다.

이들은 열심히 양을 가꾼 결과로 수 년이 못 되어 백 한 마리로 늘었다. 그 때에 하루는 존이 조지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양을 서로 반반씩 나누어 먹이자.”고 제의했다. 조지도 좋게 생각하고 둘이 나누어 가지니 50마리씩 하고 하나가 남았다. 이를 어떻게 나눌까? 하든 끝에 이 한 마리는 다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얼마 지난 후에 존이 와서 말하기를 “이 양털을 깎아서 나누어 갖자.”고 했다. 그러나 조지는 아직 깎을 때가 못됐다고 거부했다. 의견 충돌이 되어 옥신각신하다가 존이 “나는 내 몫 반쪽만 깎겠다.”고 말하고 양의

한편 쪽만 털을 깎아 가고 말았다. 며칠 후에 그 양이 강의 외나무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때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 원망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존은 “네가 깎지 않아서 그쪽이 무거워 양이 기울어져서 빠져 죽었다.” 조지는 “아니다 아직도 날도 풀리지 않았는데 네가 깎았기 때문에 양이 감기가 들어 어지러워 빠져 죽었다.” 서로가 아무리 논쟁을 해야 해결이 나지 않았다. 그들은 동리의 어른을 찾아가서 해결을 원했다. 그러나 동장도 시원한 해결을 지어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또다시 지방 장관에게.....마지막에는 왕에게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상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안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오고 가는 여비와 그 밖에 다른 비용으로 있던 양 50마리는 다 팔게 되었고 또 얼마 되지 않는 가옥까지도 몽땅 팔아 마침내 폐가망신하게 되었다. 온 동리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의 화살은 너무도 가혹하였다. 체면상 이곳에서 더 살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침내 존은 자기 식구를 인솔하고 아무도 모르는 미국 땅으로 가서 살려고 저녁때에 어둠을 기다려서 바닷가로 나갔다. 끝없는 푸른 바다에 파도는 높고 갈매기 소리는 처량하여 적막한 필경 그지없었다. 동행자가 더 있었으면 하든 때에 마침 뒤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존은 아마 저 사람도 나처럼 미국으로 이사구나 보다고 반가워 쫓아가서 만나보니 조지의 식구였다. 조지는 “자네 어디 가나?” “미국 가네” “무엇하러?” “여기서는 부끄러워 더 살지 못하겠어” 존은 “자네는 어딜가나?” “나도 미국 갈려네” 그때에 그들은 강변 모래 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서로 다시 손을 잡고 화목하고 미국 가는 길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옛 정을 찾아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성서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말씀했다.”

2. 한민족의 단점

우리 민요 가운데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는 말이 있다. 이 민요는 우리 생활 태도의 사회상의 일면을 웅변으로 설파한 것이라고 본다. 대개 민화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창작적 산물이 아니고 그 시대 그 사회 민중 전체의 심중에서 일반적으로 공명 공감되는 바를 그 구구상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 민요 속에는 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말이 많다는 것은 마찰이 많다는 뜻이요. 마찰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 협동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례를 든다면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지난날 아세아 각국을 시찰하고 귀국한 다음 각 나라의 민족성을 평하였다. 중국 사람은 키가 크고 얼굴은

마치 아편 중독자들 같이 보이거나 지구력이 강하더라고. 일본 사람은 키가 작고 원숭이 같이 생겼지만 그들을 뭉쳐놓으니 강철같이 강하고, 한국 사람들은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체구는 튼튼하며 얼굴은 태양 빛에 타서 적동색에 눈동자는 총명히 빛나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니 보잘 것이 없더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모 교수는 “많은 외국 학생을 상대하는 가운데 한국 학생들은 개인적으로는 보석과 같으나 뭉쳐놓으면 기왓장 같다.”고 말했다. 왜 우리 민족은 이같이 인화단결이 잘 되지 않을까?

여기서 그 원인을 대체로 분석한다면 첫째는 준결한 산악이 중첩하여 인접 지방끼리 교통이 불편하여 친근하기가 어렵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옛날 삼한 이전은 물론 삼국시대에도 실질적으로 무수히 작은 나라가 군립하여 피차간에 이해관계로 항상 반목과 분쟁이 많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조시대에 들어와서 무를 억압하고 너무 문약에 흐른 탓으로 입진란에 고배를 마신 후에 국민에게 상무의 기풍을 기르기 위하여 편싸움을 장려한 것이 고질화된 점이다.

넷째로는 지리적으로 인접 강대국의 중간에서 거들하는 침략에서 사대사상의 발로와 땅은 좁고 인구는 많아 의식주를 위한 생존경쟁이 결국은 오늘의 민족의 결함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겠다.

3. 단결의 비결

우리 공군의 통솔 방침은 단결이다. 이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개성의 차이점 이해

동일한 부모를 모신 형제 사이에도 개성은 다른 것이다. 하물며 성과 연령과 환경이 다른 가운데 성장한 사람끼리 서로 꼭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사고방식의 차이점 이해

동일한 물건도 개성에 따라 사고와 가치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름달을 보고도 A는 쟁반과 같다. B는 공과 같다. C는 지구와 같다는 등으로 보는 각도와 가치가 판이한 것이다.

셋째, 경험의 차이점의 이해 경험은 관념이 되고 관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성이 되고 습관은 생활이 된다. 이같이 사람과 생활에 저마다 경험의 차질을 보게 된다. 저마다 경험에서 오는 자기주관을 무시할 수는 없다.

넷째, 입장의 차이점의 이해

사람마다 공사 간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다. 교육, 직업, 계급, 물질, 의무 등에 있어서 각기 입장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상호 이해하고 사랑과 양보적 정신을 갖는다면 충돌과 분열이 방지될 것이다. 성서에는 예수의 12제자가 성격이 전부 각각 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스승인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동성과 사고와 경험과 입장이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 인화단결 되었다. 즉, 민족주의 사상에 철저했던 열심당원 시몬과 반역적인 친 로마당의 사대주의자 설리 마태는 침식을 같이 했으며, 정력과 활동적인 급진성을 지닌 베드로와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사람 요한과는 조화가 되었고, 명랑하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안드레와 지성적이고 남을 의심하는 천성을 지닌 도마와 상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군대 사회나 또는 국가 민족이 이런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이 아직도 대영제국의 체면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거나 해군력이 강하거나 헌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 민족은 단결심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영국도 정당들이 있고 상호 이해로 반목 투쟁이 열렬하다가도 일단 국가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 급급하게 될 때에는 초당파적인 연립 내각을 수립하고 거족적으로 마음을 단합해서 각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성으로 다하여 봉사함으로써 지난날 서반아의 무적 함대도 격파하고 17세기의 풍운아 나폴레옹을 굴복시키고 폭군 히틀러의 무차별 폭격에도 도리어 승리를 초래하고 오늘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야를 위하여 소아를 버리는 신사적이며 이타적인 정신인 것이다.

4. 단결과 승리

스파르타의 자랑인 5백 명의 용사도 단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전멸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단결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이쑤쓰 전쟁에서 소수의 군인으로 10배 이상의 파사 대군을 격파하였다는 것은 역사상에 유례가 드문 일이다. 대왕이 군사 8천 명을 인솔하고 별대로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적군의 대부대에게 포위를 당했다. 자기 편이 좌우익은 부하들에게 인솔되어 견제하지만 연락할 길이 끊어졌다. 그런 중에 지리에 익숙한 적군 편에서 수도를 끊어 물을 얻어 마실 수가 없었다. 뜨거운 여름날에 사막 황원에서 전군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대왕 자신도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다고 비명을 부르짖게 되었다. 샘물이 나올까 하여 몇 곳을 파보았는데 아무리 깊이 파보아도 헛수고였다. 적군의 유도 작전에 걸려 포위된 것을 알았으나 때는 이미 늦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대왕의 비명 소리를 들은 부하 중에

한 병사가 물병을 차고 적진 깊숙히 뚫고 들어가 물 한 병을 넣어가지고 돌아와 대왕 앞에 드리면서 “대왕께서 이 물을 마시고 우리를 지휘하여 주옵소서.” 하고는 여러 곳에 중상 받은 까닭에 그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대왕이 그 물병을 받아 들자마자 그 부하의 죽은 시체를 보고 “내가 이 물을 마신다면 내 부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우리 장병들은 다 같이 한 방울씩 나누자.”하면서 수건을 끄 집어 내어 그 물에 적시어 장병에게 뿌렸다. 8천의 장병은 순식간 대왕 만세를 벽력같이 불렀다. 그리고 일심단결 용진 분전하여 마침내 파사 대군을 격파하고 자기편 좌우익의 내원도 얻어 필경 대승리를 얻었던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결코 수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는 무엇보다도 인화단결이 제일 요긴한 것이다.

맺는말

전쟁의 성질을 분석한다면 제1차 대전은 민주주의대 제국주의 싸움이고 제2차 대전은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싸움이고 제3차 대전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싸움이라고 보겠다.

스탈린이 죽은 후 몇 사람을 거쳐 후르시초프가 집권하게 된 후 공산주의 침략의 이정표는 아무런 변동이 없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수정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들의 세계 정복의 절대 야망의 방법으로써 크게 네 가지를 예거할 수 있다.

첫째, 후진 국가의 경제적인 원조

둘째, 죽음을 의미하는 위장된 평화공존

셋째, 민주국가 내의 도덕의 파괴

넷째, 자유 진영의 분열의 조장 등이다.

마르크스의 환상을 간직했다가 1917년 10월에 공산주의를 해산한 레닌은 24시간 그 하루의 생활이 혁명 완수가 전부고 꿈에서까지도 그것으로 가득하였다 한다. 오늘날 비밀의 철의 장막 속에 사는 인민들도 불과 5시간 밖에 수면을 못하고 그것을 제외한 전부가 국제 공산당의 이념만을 목표로 하는 생리학에 있으니 이 같은 정력으로 몽친 힘을 우리는 무엇으로 대결할 것인가? 힘은 힘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 방위와 세계 평화라는 신성한 목표 아래 우리는 굳게 단결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몽치면 승리와 영광과 안식과 행복이고 헤치면 패배와 수치와 노예와 죽음뿐인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끝)

××××

××××



단결과 통솔

통솔을 중심해서.

김동홀(金東屹)

<공군준장·기술교육단장>

우리는 자극적이며 힘차고 도전적이면서 아픔을 주는 지난날의 이대 분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듯한 새로운 전쟁에 의해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분쟁이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민과 비교적으로 노예화된 인민 간의 분쟁을 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세계를 지배할까를 결정 지우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공군으로서 기왕에 드라마에서 연출했던 이상의 굉장한 스케일에서 주연을 담당할 배우들이다. 여러분의 복무가 평시에는 조국의 안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듯이 미래전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어째서 여러분의 복무가 여러분의 행위가 또한 태도가 그토록 중요한가는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하나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핵무기가 전쟁을 하는 데는 없지 못할 절대적인 것으로 등장하여 소위 핵전 시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핵무기는 바로 당신의 손가락 하나의 작동으로써 성능을 발휘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개인의 의사가 오늘날처럼 전략 계획가에게 중요성을 영향을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적으로 공군에도 타당한 이야기다. 또한 개인의 책임이 전략가에게, 또 전 인류 문명에 대하여 갖는 심대한 중요성은 일찍이 유례가 없던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의사가 지니는 중요성처럼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이다. 공군이 스스로가 지니는 업무를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세계의 평화

를 좌우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일류급의 판단력을 가진 미 공군 장교에 의해서 또한 사려 깊은 구주의 정치가들이 주장하여 온 사실이다. 공군의 사명(업무, 임무)이란 다달이 변동하는 사태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궁극으로 이와 같은 임무는, 사명은 바로 제관들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당국은 여러분의 기술 능력보다 개인으로서의 당신들에게 보다 심대한 관심을 갖는다. 바보도 손가락으로 보탄을 눌러 원자 폭탄을 발사시킬 수가 있으며, 명철한 학생에게 발사법을 교육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사다운 인물을 취택하며 긴장된 작전 수행상에 최선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자신과 자신의 복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은 우선 자기 직책을 충실하고, 동료에 성실하고 공군 전체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자기 직책으로부터 동료 간에, 군 전체에 대한 성실한 복무 태도의 견지란 하나의 뜻으로 뭉뚱그려진 단체를 살림이요, 힘을 부어 넣음이요, 활력을 주는 것이다. 단체에는 집단에는 단결이 필요하고 지도자가, 지휘관이 또는 통솔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단결을 이루는 요체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써만 가능하다. 자율적이며 솔선수범적인 책임 완수를 기하는 데에서만 얻을 수 있다. 책임 완이 자기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자기 직책을 다함이 곧 단결이 되는 것이니,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우리 인체를 이루는 손, 눈, 발, 코, 귀...가 회의를 개최했다. 손이 제일성을 던졌는데 자기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입에 넣으면 배만 좋지 하나의 이득도 없다는 불평이었고, 눈이 일어나 하는 말이 자기는 맛있는 음식을 어느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여 조기 경보를 하여 주어도 배만 좋았지 아무런 소득이 생기지 않았다 했고, 제삼석의 발언권을 얻은 귀는 말씀 또한 자기는 어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음식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전파를 잡아 송신하여 눈이 확인케 하고 발이 뛰어가 가져오게 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다 하였으나 결과는 하나도 좋은 것이 없더라는 결론이었고, 이제까지 냄새만 맡던 코도 드디어 일갈했으니, 음식의 맛을 식별하는 능력은 나에게만 있으니 귀가 들었어도 눈이 보았어도 다 소용이 없으니. 내가 있음으로써 맛을 알아내어 음식을 얻게 하였으나, 역시 배만 좋았고 우리는 다 같이 이로움이 없었으니 뱃놈에게 항의하는 뜻에서 스트라이크를 선동하여,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쳐 동맹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뻘한 것, 배만 꼴코 자기들은 잘 견디어 나갈 줄 알았더니 눈은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여 보이지 않지 시작하고 손과 발에는 맥이 다해 기운이 떨어져 움직일 수가 없이

됐고 귀는 통히 들을 수가 없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막다른 골목에 빠져 배와 함께 죽어가든가, 다시 자기가 맡은 직장으로 복귀를 하여 작업을 개시하든가 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자인 자기 직장에서의 복귀를 선언하기에 이르러 잘못을 깨닫고 직분대로 일하기로 되어 죽음을 면하고 다시 생명을 부지하여 듣고, 냄새 맡고, 보고, 달리는.....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잘 음미하여 각자는 눈, 코, 귀, 발, 손.....으로 맡은바 자기 직책을 수행하여 인체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조직을 기관을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뒤늦게 고발을 당하여야만 할 기관이 있으니 바로 두 부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동맹 파업을 미연에 방지치도 못했고, 방지할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느냐는 질책과 이번 일어났던 파업이 준 여파로 회복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때문이다. 즉 최고 수부로서 전체의 생육을 관장하는 브레인으로서 부속 기관을 단속하고 감독하는데 능력과 정력을 보여주지 않아 자칫하다간 인체라는 전체를 사지에 당도케 할 뻔하였다는 이유가 가장 큰 고발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공군 전체를 이 인체와 비교하고 여기의 뇌수부를 지휘 통솔계통으로 여겨서 뇌수부의 지휘 통솔을 받는 각 기관을 하급장교와 사병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단체 의지를 가지고 전체를 살리고, 그 의지를 실현하는 데는 부분으로서의 각 기관이 필요하다. 앞에 든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비는 부분과 전체는 가분리적인 인과 관계가 있어 전체에 대한 부분의 작업은 전체뿐만 아니라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리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체를 지휘통솔하는 지휘관급과 피지휘, 통솔되는 인원 간에는 정당한 협조와 노력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자칫 부분적인 고장이나 태업 아니면 파업이 전체에 치명적으로 영향하지 않는다고 수뇌부에서는 강변을 떨기 쉬우나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일대 각성을 하여 협력과 직장 복귀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같은 동맹파업 같은 사태가 돌발하기 전에 정당한 불평은 해소시켜 주고, 부당한 불만은 이해, 납득시켜 전체를 운영하는 데 성과를 낼까 하고 생각하니 여기에 지휘 통솔자의 자질이랄까 특성이 몇 가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통솔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통솔력이란 생래적일까? 사람을 지휘자나 통솔자로 교육할 수 있을까? 무엇이 통솔력을 형성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가지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크게 이 의견상의 차이를 2개 그룹으로

대별할 수 있다. 통솔력이란 행동의 과정이요 행태이며 유형이라고 하는 그룹과 하나의 특성으로서 지혜라든가 예리한 시력처럼 믿는 그룹이 있다.

일단의 그룹이 여행을 한다. 불행하게도 어느 집단의 공격을 받는다. 어느 누군가가 지휘자나 통솔자로 등장할 것이다. 산화를 만났다. 빠져나가려면 누군가가 리더가 될 것이고 바다에 나서면 또 다른 누군가가 리더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 통솔력이란 것이 개인적 특성이라면 어느 상황에서나 통솔자는 역시 통솔자로 행세할 것이다. 그러나 통솔력이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행태의 형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통솔력이란 구성원을 하나의 팀으로서 상호 협동하여 활동케 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사업)을 성취케 하는 것이다. 통솔자 없는 그룹의 책임 맡은 장으로 등장한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식이란 점이다. 십 명의 여행자 가운데 항해술에 대하여 삼림관리에 관하여 이외의 어느 것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때에 누가 통솔자가 될지 확실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비는 명백하다.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연구하라! 직책에 관한 제반사를 배워라. 당신이 당신의 직책 분야에서 일어난 제반 질문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 당신은 리더가 될 이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정신적인 민첩과 원리와 사실을 건설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은 밀접한 것이다. 이 민첩과 능력은 관계를 인식하고 집단을 목적대로 향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짜낼 것이다. 이 같은 풍부하고 행동적인 유능한 지력을 지닌 사람은 지식의 인지기보다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그룹의 통솔자로 된다. 이것은 종합하고, 다양한인 일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훌륭한 결정권 소지자가 되려고 의욕만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음은 바보로 만들 따름이다. 지식만으로 훌륭한 결정을 할 순 없다. 많은 교육 받은 우상은 사실만 알지 건설적으로 유용하진 못했다. 소관 직책에 대한 실재를 파악하려면 논리적 사고, 창조적 상상력과 문제해결을 주제로 한 서적을 읽고 암시하는바 문제를 실용하라. 또한 직책 분야에서 건설적인 사고에 관한 기술과 원리를 응용하도록 하라. 탁월한 지식과 그의 실질적이거나 상상에 불과한 용도의 연합은 개선된 통솔 행태를 하도록 해 줄 것이다. 통솔자의 제3 요소는 집단의 신임을 얻는 능력이다. 이것 역시 통솔력 전체로 흔히 오식되기 쉬우나 성공적인 신임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품의 문제이다. 집단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활동의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한다. 얕은 지식(지능)과 교육을 받은 아이나 어른 간에는 인품의 애평이 천박한 인기로 될지 모른다. 그것은 자칫 통솔력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저인 그룹은 개인적 호오를



군 생활과 단결

백용삼(白鎔三)

<공군대령·공사사 생도전대장>

불구하고 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통솔력을 기대한다. 이 통솔 상의 인품적 요소는 상당히 단정한 용모, 활력에 따른다. 통솔하고자 하는 의욕, 인원을 즐겁게 하는 사실을 피력하는 요령이 용모와 활용 능력과 연합됨에 따라서 효과적이 된다. 통솔상의 인품 면모는 고도의 단체력에서 발휘된다. 만약 당신의 인성이 인원을 고취시키지 못하면 말로만 개선시킬 것이 아니라 읽어서 변개는 못해도 인원을 다루는 능력을 고양시킬 것이다. 지식, 민첩한 지력, 인품상의 매력까지도 자기를 타인에게 이해시키고 표현시 키는 유창한 표현력과 정확한 화술이 통솔의 요소가 된다. 이 능력은 타인이 인식하게 되고 자신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통솔에서만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흥미롭고 자극적인 활동인 것이다. 통솔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특별상여급인 것이다. 끝으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기꺼운 마음이다. 책임의 일면은 임무 수행의 방향 결정이요, 제2 국면은 임무 수행을 위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훌륭한 몇몇 통솔자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고려 위에 헌신을 쌓았던 것이다. 그들 우리와 같은 사람 들이었다. 그들은 소속한 집단으로부터 직책과 국가라는 훌륭한 견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헌신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필요한 도덕적 열성의 인과 자신들보다는 보다 큰 복지를 기반으로 한 자기 수양의 실천, 객관적인 상황의 평가 및 결단력에 힘입어 된 것이다. 이 같은 헌신이라든가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 통솔자는 신념에 대한 지지의 용기와 불복종이라든가 항명에 대한 용감한 질책상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는 멈추고 어느 누구는 시작할 지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용기는 통솔력의 요소다. 통솔자는 용기를 본부 건물(병사)에서나 회의 석상에서도 전투장에서와 같이 보여 줘야 한다. 사병으로부터 신뢰감을 상하거나 상실하면 지위상의 특권은 있을지라도 이미 통솔자는 아닌 것이다.

이상의 상황에 대한 지식, 정신적 민첩성과 종합력, 인원으로부터 신뢰감을 획득하는 능력, 유창하고 정확한 화술과 책임감은 통솔자가 지녀야 할 5대 요핵 인 것이다. 이 요소는 상황에 따라 영향상의 강약이 있기도 하나 돌발적인 사태에서 통솔을 결정하는데 연합적 작용을 한다.

통솔(력)이란 여러 요소로 복합된 복잡한 것으로 개인의 지력이나 시력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니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통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통솔력을 개발하려면 이러한 구성하는 성분 특성과 능력을 수확하고 개발시켜야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까지는 통솔력이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많은 중대한 상황에서 이 같은 통솔력을 자주 들어내 보임으로서 통솔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통솔력의 수행은 명백하고 평범한 것이니, 여러분은 통솔력을 향상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일을 해야 하고, 자기 수양을 필요로 하나 소비된 노력은 여러분에게 공군 전반에는 물론 국민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불할 것이다.

오랜 세월이 걸쳐 내려온 민족적 분열과 파쟁의 결과로 마침내 나라까지 망쳐 버렸던 우리의 역사적 배경과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불안 우리 주위의 어떠한 단체에서나 볼 수 있는 알력과 불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들 자신이 우리 민족은 단결할 줄 모르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무끄럽게도 외국인에게 마저 그러한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이 단결할 줄 모르는 민족은 결코 아니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했을 때의 화랑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단결, 임진왜란 시에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단결, 3·1 운동 당시의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일어섰던 민족적 국결 등 그 예는 얼마든지 들 수가 있다.

5·16 혁명 이후 인간 개조를 부르짖고 있는 것도 파쟁과 분열을 지양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금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적인 뉘우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공군의 역대 참모 총장이 무엇보다도 단결을 강조하신 것은 공군에 있어서의 임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우리의 전력 발휘에 그만큼 단결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제 민족적 견지에서나 군의 위치에서 볼 때 단결이 절실한 바가 있다. 단결이란 누구나가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룩하기가 곤란한 것인 만큼 단결이라는 것을 군 생활과 연결시켜 여기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1. 단결이란 무엇인가.

단결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는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결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결의 뜻을 국어대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사람이 한마음으로 뭉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결이란 마음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한 이념 한 목표를 향하여 결속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목표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서 있고 된 행동을 기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단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사람들 서로 서로가 화목하고 마찰 없이 지낼 수 있다 해서 단결이 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결에의 선행조건인 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한 목표를 위하여 마음만 합하면 단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단결이란 것을 말할 때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마음의 단결과 비합리적인 목표를 위하여 뭉친 것은 진정한 단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단결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단결은 조그만 장애에도 쉽게 흩어지는 도당의 모임에 불과할 것이요, 나아가 좀 더 커다란 합리적인 목표를 위한 이성적인 마음의 결합에 분열과 파쟁만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조 중엽 이후의 파당 싸움을 볼 때 파당 별로는 어떠한 단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개인의 욕망을 위주로 한 감정적인 결합이고 비합리적인 목표를 위한 결속이었기 때문에 파당은 다시 파당을 낳고 분열은 다시 분열을 낳아 마침내 나라까지 망쳐 버린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단결과 가장된 단결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단결이란 자연적 본능적 만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음을 뭉쳐 불의와 부정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욕망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적 지당에 입각한 마음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군 생활에서의 단결의 특수성

신병이 군에 입대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군기라는 말과 단결이라는 말이다. 내무반에 배속되면 곧 내무반의 단결이라는 것을 귀아프게 듣게 된다. 또 나아가 소속대의 단결, 비행단의 단결, 공군의 단결, 국군의 단결을 듣게 된다. 말로만 들을 뿐 아니라 단결이 안 될 경우에는 소위 기압이라는 군대 독특한 맛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행사나 경기를 통하여 단결의 표시가 잘 됐을

경우에는 상이 따르고 안됐을 때는 벌이 따르게 되며 단결이라는 것을 생활을 통하여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군대에서 단결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집단이건 그 집단의 힘을 나타내기 위하여는 먼저 구성원의 마음의 연결을 이루는 단결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며 군의 성격과 임무를 생각하면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군은 한 이념 아래 한 목표를 향하여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 동사동생의 운명체인 것이며 집단으로서의 가장 커다란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며 각 개인의 힘을 합하여 최대의 힘으로써 적을 무찔러야 하는 임무를 지닌 것이다.

적을 무찌르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는 힘의 집중이 필요하며 힘을 집중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단결이란 순수한 동지적 결합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군의 조직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단결의 특수성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특수성은 무엇보다 엄연한 계급적인 차별일 것이다. 군의 명맥은 군기에 있으며 군기는 엄격한 계급적인 상하 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질서와 군기가 명령에 대하여 작용하는 종적인 계급적 상하 관계를 단결이라는 마음의 연결을 이루는 데 어떻게 연관시키는가 하는 것이 군단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생활에서는 공사의 구별이 특히 명확하여야 한다. 민주 군대에서는 각 개인의 최대한의 인권의 보장과 사생활의 인정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공사의 구분을 못하는 단결은 이를 진정한 단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적인 상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의 구별을 가리지 못하는 각 계급 간의 단결 다시 말해서 사병회 하사관회 같은 전군적 횡적 단결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하물며 지방 출신의 단결 등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군의 단결의 특수성은 좁은 의미의 동지적 결합이 아니라 군기의 표현인 상하 상호간의 예절을 바탕으로 하고 공사의 구분을 토대로 하여 같은 이념 아래 같은 목표를 향하는 넓은 의미의 동지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군 생활에 있어서의 단결의 방법

앞에서 말한 이러한 특수한 군의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단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강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단결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단결을 이룩하는 데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것은 마음의 결합이라는 내재적인 것과 이러한 내재적인

마음의 결속의 계기가 되는 외형적인 어떤 목표 또는 대상이다. 물론 어떠한

그것은 바로 생존의 기초적 원리인 협동 행위인 것이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근거성, 즉 모든 인간은 집단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의는 바로 개인의 생존을 위한 협동의 원리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2)

사람은 누구나 다 개성을 가지고 있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몹시 고집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타협적이고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소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개인은 제 각기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사정도 각양 각색이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 한편에 허약한 사람도 있고 가정이 부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는 빈곤한 사람도 있다.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간 벽촌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다. 이와같이 백인 백색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단을 이루고 공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 차는 집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개인은 집단의 다른 성원들과 어떻게 협동적인 인간 관계를 유지하여 집단의 공동 목적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모든 집단은 어떤 공통한 이해 관계를 가진 개인들이 참여하여 구성된다. 성원들이 집단에 참여하는 목적이 생산과 분배를 위한 것이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건 혹은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건 그것은 성원들의 협동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협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단 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은 성원 전부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어떤 성원도 집단의 사고와 행동으로부터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집단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개인들이 그 집단의 공동 목적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조(Conform)해야 하며 그들은 집단에 대해서 한 소속감(Belonging-ness)을 가지고 다른 성원에 대해서 동료 의식(We-feeling)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각 성원들은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가 담당할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집단의 목적이 능률적으로 달성되는 그러한 집단이어야 한다. 이제 성공적인 집단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을 개인 행동과의 관련에서 하나씩 들어보기로 하겠다.

<집단의 목적에 동조하여야 한다>

첫째로 훌륭한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공동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목적을 받아들여 거기에 동조하려는 적극적인 동기를 가져야 한다.

각 개인은 집단의 공동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개인의 이익도 증진된다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며 그러한 확신이 강할수록 그는 집단 행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의 동기적인 면을 떠나서 집단의 목적에 공헌하는 개인의 기능인 측면에서 생각하더라도 개인은 그의 집단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재형의 집단에서라면 성원들은 단순히 지배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으로 충분할는지 모르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협동적인 인간 관계를 기초로 하는 민주적인 집단에서는 각 개인은 집단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집단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노력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속감과 동일시의 현상-감정적인 유대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훌륭한 집단 활동은 모든 성원이 자기의 집단에 대해서 한 소속을 가지며 성원 간에도 친밀한 동료 의식(We-feeling)을 갖는다. 개인들은 자기가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집단의 발전과 행운을 자기의 일 같이 기뻐하고 집단의 불행은 타의 불행과 같이 생각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의 현상을 나타낸다. 그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가족 집단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은 한 사람의 불행은 전 가족의 불행으로 생각하고 사랑과 위로를 나눈다. 이와 같은 감정적인 유대는 집단의 협동 관계와 단결에의 첩경이다. 군대에서의 전우에 또는 공동 운명체적인 정신은 군 단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개인의 심리적 욕구의 충족>

셋째로 집단 생활을 통해서 개인은 심리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담당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을 때의 성취감 다른 성원을 지도하는 지도력, 또는 다른 성원과의 협동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만족 그리고 자기의 집단이 자기를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안전감 등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욕구인 것으로 효과적인 집단 생활을 통해서 개인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의 욕구가 좌절을 당하였을 때의 개인의 행동은 흔히 집단의 협동 관계를 파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무능하거나 무시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열등감, 지나친 지배욕이 제지를 했을 때의 불만,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고독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거나 자기를 괴롭히려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집단으로부터 자기는 제외될 것이라는 소외감, 혹은

자기가 집단에 대해서 해로운 행동을 하였으므로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죄의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저지시키거나 이탈된 행동, 파괴적인 행동을 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심리학자들은 욕구가 좌절을 당했을 때의 개인의 반응 행동을 보상 행위, 공격적인 행위, 퇴피 행위, 합리화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상 행위는 열등감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반응 양식이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공부에 더욱 열중한다거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쓴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격적인 행위는 자기의 좌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희생물을 찾아 불만을 폭발시키는 반응 형태이다. 퇴피 행위는 적극적인 집단 참여를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추종하거나 집단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반응 양식이다. 합리화 행위는 자기의 과오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변명하여 스스로 좌절감,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반응 양태이다. 이와 같은 집단 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심리적 욕구의 충족은 집단의 협력 관계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욕구의 좌절은 때때로 집단의 단결을 파괴하는 개인 행동을 야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집단 사고에의 참여>

집단 행동은 먼저 집단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 즉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등의 집단의 공동 과제를 결정하는 데 모든 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집단 행동은 좀 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집단의 과제를 토론에 의해서 공동적으로 해결하는 집단 사고의 과정은 개인들의 협동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각 개인들은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설혹 자기의 의견이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더라도 그는 집단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며 집단의 결정은 자기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집단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의사 전달에 의한 집단적 사고의 과정을 통한 의견의 통합이며 둘째로 행동 과정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의 조절이다. 이것이 집단 생활의 성패를 판가름 짓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집단의 환경 및 제도적인 조건>

끝으로 집단생활은 개인의 사회생활의 일면으로서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그 집단의 환경과 제도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단 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환경은 적어도 개인의 자체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제도는 충분한 보수와 승진의 기회 또는 개인의 향상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집단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자질과 성격 또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개인미를 인정하는 허용적인

분위기여야 한다. 이것은 집단생활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집단생활은 영위될 수가 없는 것이다.

(3)

이상에서 본고는 개인이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본질적인 의의와 성공적인 집단생활을 위한 몇 가지의 필수 조건을 개인 성원과의 관련에서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단생활의 의의는 협동 관계에 있으며 협동 관계는 집단의 목적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동조, 확고한 집단의 감정적인 유대 개인의 심리적 충족감, 집단적 사고와 행동에의 참여, 집단의 환경적인 제도적인 조건의 충족 등에 의해서 보장되어지는 것이다.

공군의 전통—“우리 공군은.....서로 도와 단결하여 나아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를 음미해 볼 때 “이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은 “서로 도와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고의 결론은 이미 분명하게 내려져 있는 것이다.

『슬기와 부지런함으로 가난을 몰아내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하는 것이나 그밖에 노동을 하는 것을 상 일이라 한다. 그래서 농사는 상놈의 일에 속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미련해서 글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가난한 까닭에 공부 못 하는 사람이 택하는 직업이라고 해서 상말로 미련한 농사 백성이라고 불려 온 것이다. 요새 우리나라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어디선가 봉급생활이라도 하다가 일자리가 떨어져 버리기는 했는데 다른 직장을 찾다가 맨나중에 자리를 찾지 못 - 할 때는 말하기를 안되면 땅이나 파먹는 다고 한다. 농사짓는 일은 다른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의 마지막 일자리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농촌에는 참으로 농사를 지을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없고 때를 만나면 농촌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하고 있으니 농촌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예전 농사는 미련한 사람 무식한 사람의 일거리로 생각했지마는 요새는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으로는 좋은 농사꾼이 될 수 없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미련해서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못할 것 같다. 지혜는 많은 창의를 낳기 때문에 새롭고 쉬운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범에게 날개를 붙인 것과 마찬가지다. 부지런한 사람에게에는 가난이 불을 새가 없는 것이다.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디를 찾아다니든지 일거리다.

슬기는 일을 쉽게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부지런한 것은 일의 양을 많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겹하면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에서

제2차 연도 사업의 개황

문인석(文麟釋)

<산업경제신문 편집국장>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 연도인 63년 사업 내용을 파악하려면 우선 5개년 계획의 테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전모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의 자립적 성장과 공업화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은

① 전력, 석회 등 공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농업 부문에 중점적인 개발 목표를 두어 생산력의 향상과 소득 증진을 꾀한다.

③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간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커다란 비중을 둔다.

④ 국토를 보전개발하기 위하여 국토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⑤ 국제 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다.

⑥ 저 생산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 증진에 주목한다.

이상 여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내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외화 소요의 조달에 있어서는 외자 도입을 중점을 두며 정부 보유불은 사업 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국내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본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키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 아래 입안된 5개년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1% 계획 기한 중의 국민총생산은 40.8%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민총생산에 있어서는 과거 수년 동안 체감되어왔던 경향이 있었으므로 재정 투융자의 확대와 정부의 유도적인 정책으로 제1차 연도의 5.7%에서 목표 연도인 66년의 8.3%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점증시켜 자립경제의 기반을 이룩하려는 목적 아래 책정된 것이다.

이처럼 의욕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투자의 증가가 필요하므로 매년 국민총생산액이 차지하는 투자 비율을 높이기로 되어 있어서 목표 연도의 투자액은 기준 연도인 60년에 비하여 137%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에서 44% 정부에서 56%를 조달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써 조달되는 재원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노동력을 흡수하여 계획 기한 중 옥누을 28% 증대시켜 대업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어 있다.

또한 해마다 2.9%씩이나 증가되고 있는 인구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목표 년도까지 이를 2.7로 제감시킴으로써 5개년 동안의 人口 증가를 18%에 그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인당 국민총생산을 19%로 상승시키고 고용 면에 있어서도 그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상회토록 하여 실업자를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 구조에 있어서는 자립 경제의 달성을 위하여 공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구조 면의 파행성을 지양할 목적 아래 제2차 산업 부문의 생산을 계획 기한 중 0.19%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제1차 산업은 35.8%, 제3차 산업은 20.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제2차 산업의 비중은 기준년도(1960년도)의 18%로부터 목표년도(1966년도)에는 26%로 상승케 되고, 제1차 산업은 36%에서 35%로 제3차 산업은 46%에서 39%로 변동케 되는데 이는 공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의 목표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제2차 산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제1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은 절대액으로는 생산이 증가되기는 하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 기간 중 총액 3천2백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으며, 산업 부문 별로는 제1차 산업에 5백5십4억 원(17%), 제2차 산업 1천9십2억 원(34%), 제3차 산업 1천 5백 6십7억 원(49%)을 각각 투자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5개년 동안에 투자될 3천2백억 원을 내외 바비율로 보면 내자 72% 외자 28%(약 7억불)이며 총 외자 소요액 중 외국 차관이 62%, 정부보유불 33%, AID원조 기타가 5%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5개년 계획에 따른 각 부문별 내택을 추려보면 우선 전력 부문에 있어서는 구 정권 때의 개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혹심한 전력 부족을 느껴온 경험에 비추어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목표년도까지 획기적인 증산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발전 시설 용량은 37만 키로와트이며, 평균 출력은 20만 키로와트이므로 단 시일 내에 전력의 최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설비가 저렴하고 건설 시일이 빠른 화력 발전소에 주력하여 계획 기간 중 화력 8개소, 수력 7개소를 건설하되 목표 년도인 66년까지에는 화력 8개소, 수력 4개소를 완성토록 되어 있다.

동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투자액은 총 38억 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전체 투자액의 12%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신규 발전소의 건설과 더불어 송배전 시설을 보수하여 전력 손실을 현재의 28%로부터 저하시켜 간접적인 전력 증강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석탄에 있어서는 8개의 신규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기간산업의 확대에 따라

수요 격증이 예상됨으로 목표년도까지 연간 생산량을 1174만 톤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철광석은 태백산 지구의 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선철 생산 능력 25만 톤과 강괴 2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제철소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철광석 생산도 기준년도(60년도)의 40만 톤으로부터 60만 톤으로 증산토록 계획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는 앞으로 기간 산업의 발전과 국토 건설 사업의 확대에 따라 그 수요가 가속도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으로 신규 공장의 신설 및 기존 시설의 확대로 기준 년도의 생산 능력 65만 톤으로 목표 연도에는 137만 톤으로 확장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수요 12만 톤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료에 있어서는 국내 수요량인 질소질 16만 톤 인산질 7만 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3개 공장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 계획이 완성을 보게 되면 충주 및 나주 등 3개 공장의 요소 생산 17만 톤을 포함 하여 목표 년도까지 질소질 10만 톤 인산질 3만 톤을 생산하여 수요량의 51%를 자급하게 되고 60년도까지는 70%, 7차 년도까지에는 90%를 공급하게 된다.

한편 유류 수입을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외식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원유를 직접 도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할 계획으로 일산 3만 마텔의 생산 능력을 가지는 정유공장을 제2차 년도로부터 4차 년도에 걸쳐 건설토록 되어 있다.

동 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930만 마텔의 정유를 생산하게 되며 이로써 연간 1,200만 톤을 절약할 수 있고 부산물로서 유류 화학 공업을 일으키게 된다.

각종 공작 기계와 광산기계 등을 국내에서 생산키 위하여는 종합 기계 공장 건설하며, 조선공업을 위하여는 계획 기간 중 6만 톤의 선박을 수리 건조토록 하였고 이 밖에 기존 시설의 활용 전매 시설의 확장 개량 그리고 PVC 소다제 스톱로우 팜프, 가성소다, 산화치단, 유기화학정밀기계, 디젤 엔진 및 자동차 공장도 각각 건설 계획이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목포영산강류역의 간척사업과 전국적인 개간사업을 통하여 약 10만정보의 농지 확장과 4만 5천 정보의 수리 안전담의 확대를 통하여 쌀 생산을 60년도의 1,595만석보다 29%(850만석)의 증가를 목표로 하였고 면화는 2.5배 홍삼 22배 박하유 6배 잡곡 3배의 증산과 1.4배 돼지는 2배로 증산토록 되어 있다.

수산업은 어획 기술의 향상과 장비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7척의 원양어선을 도입하고 2,900척의 어선을 건조하여 어획고를 60년도의 24만톤으로부터 목표 년도에는 42만 톤으로 증가시킨다.

운수 사업은 국내 공작창 시설을 활용하여 4천양의 화차를 신조 또는 개조하는 한편 천 양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고 이 밖에 디젤 동차 145대를 도입하고 경북선 정선선의 신설, 그리고 황지선, 동해 북부선 등 이미 착공된 선노를 포함하여 총 140km의 산업 철도를 완비케 하는 한편 동 지역 내의 탄전을 연락하는 283km의 산업도로도 아울러 신설한다.

또한 통신 시설은 기간 중 16만 회선의 전화 시설을 신설하여 66년도의 전화 시설은 약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 밖에 주택 사업으로는 60년도의 주택 부족률 24%를 66년도까지 23%로 저하시킬 계획이며, 또한 의무교육을 위하여 교실의 증축 보건 및 사회사업을 위한 상하수도의 확장을 기할 것이며,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관광사업을 추진키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대체로 5개년 계획의 전모를 더듬어 보았지만 올해 63년도 중에 전개될 제2차 년도 계획은 제1차 년도인 지난해 중에 성취한 발전된 여건을 토대로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할 의도 아래 우선 제1차 년도 말기부터 움트기 시작한 안전 교란 요인을 없애는 작업부터 착수되고 있다.

이를테면 천후 조건의 불순에 따른 추곡 감수 투자수요의 급격으로 말미암은 물가 변동 외화면의 꺾박과 수입 제한으로 야기될 소비 물자의 가격 앙등 등이 바로 그것인바 더욱이 62년 중에 증가된 통화량이 올해 군에 현재 구매력화될 것이 크게 경계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안정 기반 하에서 재정 안정 계획을 수립하여 통화량 증가를 33억 원대로 억제하고 물자 수급 면에 있어서는 원자재 및 생필품의 우선 공급과 정부보유불의 긴급 방출 원조 자금에 의한 소맥의 도입 촉진 행위 매점 매석 행위의 단속 등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차 년도 계획은 이러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안정 기초의 견지 세입 내 지출 원칙의 고수 계획 외 신규 사업의 억제 등의 기본 원칙 아래 추진될 것인바 각 산업별로 본 올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것이다.

1. 제1차 산업

지난해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장기간의 조발로 말미암아 농산물 생산이 흉작을 나타내어 제1차 년도의 성장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잠정 계획에 의한 62년도 국민 총 생산의 1차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830억 원으로 61년도 비 9.3%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8.8%가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총세에 비추어 올해는

- ①영농의 다각화와 농가 소득의 증대
- ②식량 자급도의 제고, ③국토 보전과 산림 자원의 증축, ④어업 경영의 합리화, ⑤농림수산물의 수출 증대를 목표로 미곡 17,979천 석(62년비 12.8% 증가) 맥류 7,656천 석(2.7%의 증가)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경제 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홍삼은 초년도의 만 4천 근에서 2차 년도는 3만 7천 근 박하유는 27만6천 근을 생산할 계획이며 축산물에 있어서는 1,189천 두로 60% 증식 잠견은 당초 계획보다 26만 판을 초과한 156만 판 수산물은 원 계획보다 9만 판이 감소된 39만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농지의 개발 및 개량 사업을 위하여 재정 보조 7.8억 원과 용자 5.7억을 지출하여 8,860정보의 농지를 개발하고 수리 사업으로 77개 지구에 공사를 실시하여 정곡으로 17만 7천 석의 증수를 기하고 소규모 수리 사업으로 708지구를 개발키로 되어 있으며, 섬진동진강류역의 관개 간척 사업으로 4,270정보를 매립하고 13km의 방조제를 건설키로 되어 있다.

또한 임업에 있어서는 지난해 중에 10만

정보의 조립을 실시한 데 뒤이어 올해는 투자 재정 13.7억 원 민간 자본 33.5억 원을 투자하여 요 사방지 37만7천 헥타에 대한 사방 공사와 2만 정보의 조성 임용지 천여 정보의 개량 포푸라 식수 및 25억 원의 특수 수종(유실수)의 증식을 계획하고 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5개년 계획 중에 책정되지 않은 불어 어업 차관의 협정 체결로 말미암아 당초 계획인 연안 어업 및 원양 어업 병진이란 새로운 형태로 그 계획이 변모를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는 정부 재정 지원 15.5억 원과 민간 자본 4.2억 원으로 전년도로부터 계속되어 이 목표량인 5,880천 돈을 훨씬 능가한 7,230천 돈(11월 말 실속)에 달하였으므로 지난 해에 회사 설립을 보지 못한 화순 탄광의 호남 탄좌 충남 탄전의 성주 탄좌 등의 회사 설립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군소 민영탄광의 시설 근대화화 기계화 조성 그리고 대단위탄좌의 개발 촉진으로 7,970천 돈의 증산 목표를 달성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기타 광업에 있어서는 철광석 55만 천 돈 증식 5,410천 돈의 증산 목표를 달성케 하여 철광석 48만 천 돈 증식 5,71만 돈 기타 8,636 천불의 수출을 실시시키고 이와 동시에 각종 지하 자원의 부존 상태와 매장량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지하 자원 조사를 확충키로 되어 있다.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①철강재 자급을 목표로 종합 제철 공장의 건설 공사 15% 달성을 완수할 것이고, ②기존 제철 압연 및 기계 제작 공작을 계열 화시켜 전문화 방향으로 육성시키는 동시에 인천 중공업의 현대화 계획을 완수케 될 것이며, ③조선 공사 인천 중공업 조선 기계 조작성 등 국영 기업을 민영화시키며, ④공작 기계 정밀 기계 전기 기계 수송 기계 공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⑤경제적인 선형선급의 결정에 따라 계획 조선을 실시하고 ⑥비철금속의 자급을 위하여 한국 제련 공사의 시설 확장을 추진한다. ⑦교통 공작창의 시설 개량을 추진시키며 화학 공업 중 ①정유공장은 제1차 년도의 정지 공사 가설 공사 급수 공사 배전 공사 등 부대 공사의 완료에 뒤이어 올해 중에는 기계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척시켜 연내에 전 공사량의 90%를 완료한다. ②호비의 전체 시운전을 겸한 생산 개시로 요소 비료 4만천 돈을 생산함과 아울러 울산 비료의 차관 계약 체결로 기계 발주를 하고 정지 공사를 끝내며 기초 공사 건물 공사 및 부대 시설 등에 착수한다. ③제3 시멘트 공장의 건물 공사 기계 설치 및 부대 공사 등을 연내에 완공케 하여 내년도부터는 15만 돈을 생산토록 한다. ④제4 시멘트 공장은 올해 중으로 총 공사량의 39.7%를 달성토록 하며, ⑤제6 시멘트 공장은 각종 부대 시설 및 기계 설치 등 총 공사의 대부분으로 완료케 하며, ⑥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자금 중 450만 불을 14반기 중까지 전액 대출한다.

1. 제3차 산업

2차 년도의 전력 수급 계획의 첨두 수요는 610M W이고, 첨두 출력은 482MW로서 부족 전력은 128MW에 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중에 97MW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제주 디젤을 2월 중으로 준공시키는 한편 부산 화력 제1호기(66MW) 3척 화력 제2호기(30MW) 및 영월 화력 복구 공사(30MW)를 서둘러 연내에 준공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와 동시의 3차 년도에 완성 예정인 신규 영월 화력, 군산 화력 1호기, 춘천 수력 및 섬진강 수력 발전소 건설 공사를 연내에 60% 이상을 완수케 함과 아울러 올해 중에 신규 착공될 5호기를 동시에 착공케 하여 공사 기한을 단축시키고 자금을 절약토록 하였다.

한편 산업 철도의 건설에 있어서는 태백산 지구의 자원 개발을 위하여 공사 중인 경북선과 정선선을 예정대로 추진시키는 한편 황지선과 육의선을 연내에 준공시키며 경인북선전화 황지 지선연장 정지선 등에 대한 기술 조사를 진행시키기로 되어 있다.

통신 사업에 있어서는 2만3천 회선의 자동 전화 교환 시설 공전식 5천 회선 자석식 3천 7백 회선과 전화 신규 시설 2만 대를 증설하기로 되어 있으며, 주택 사업은 정부 자금으로 4,480호 18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1,530호의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시킬 것이며, 민간 자금으로 88,7천호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1,761 초등학교 교실의 신축, 공과 17교, 농과 12교, 수산 5교, 종합 고교 등 11교의 실습 공장 건축 및 내부 기계 구입 등 교육 부분에서도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탄생일 진상

소설가 스티븐슨(1850-1894)은 어린이들을 좋아하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우인의 집에 체류하면서 11세 되는 그 집 딸과 매우 좋아했는데 그 소녀가 “나 말이에요 2월 29일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열한 살 먹는 동안에 단 두 번 밖에 생일을 얻어먹지 못했어요.”

하고 슬퍼하였다. 스티븐슨은 매우 동정하여 다음과 같은 증문을 썼다. “소생 로버트·루이스·스티븐슨은 심신 공히 건전하며 이제는 생일연 따위 필요없는 연령이 되었기에 금년 이후, 소생의 생일 11월 3일을 아테레이드·아이드 양의 생일로서 그가 희망하는 한, 그에게 양보함을 증함(R,L,S)”

◇운전수

윈스톤 처칠(1874)은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을 하기 위해 BBC(영국 방송 협회)에 가야만 했다. 그는 웨스트·엔드에서 택시를 불렀다. 그러나 운전수는 그렇게 먼 데까지 갈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 이유인 즉 한 시간 후이면 처칠씨의 방송이 있는데 그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처칠은 그것이 마음에 들어 1파운드를 주었다고.

왜 싸우고 있는가?

소·중공 분쟁의 근원과 그 장래

조세형(趙世衡)

<한국일보 외신부장>



<후르시초프>



<모택동>

아직도 소련과 중공이 시기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 싸움의 정도와 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면 얼른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이 거의 폭발 지경에 이른 것은 작년 수월 쿠바 위기가 빚어낸 이후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년에 걸쳐 급진 저하로 관계가 악화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대강 짐작하고 있다.

쿠바에서 소련이 유도탄 시설을 철거시키려 했을 때 중공이 이를 공격한 일, 중공이 인도국경을 침범했을 때 소련이 이를 비난한 일, 작년 말에서 금년 초에 걸쳐 잇달아 열린 동독, 체코,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공산당 대회에서 일대 논쟁을 일으킨 사실 소련이 유고와 다시 화해한 반면 중공이 이를 극구 비난한 사실 등등이 이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소련·중공의 싸움은 결코 작년 말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들 사이에는 그보다 훨씬 깊고 먼 원인이 있다.

당초 소련과 중공 사이에 싸움을 벌릴 만한 요인이 된 것은 7년 전인 1956년 2월의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공격을 한 사실이었다.

새로이 소련의 권력을 쥔 후르시초프로서는 과거의 정치적 죄상을 스탈린에게 떠넘기고 새로운 체제와 사고방식에 의해 나라를 다스릴 필요성이 생겼었다.

그러나 모택동에 있어서는 스탈린은 아직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우상적 존재가치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주의의 건설 초기에 있는

중공에게는 스탈린식 통치와 권위가 필요하였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서방 각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고있는 중공은 폭력적 혁명수단과 무력적 전쟁 수단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발언권과 세력을 늘어 나가기 힘들다고 믿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소련은 1917년의 10월 혁명 이래 근 40년을 지내오는 동안 이는 제 초반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옷을 걸쳐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반해 중공은 아직 초보적 기초 과정을 밟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중공의 싸움에 근본적인 원인이 된 스탈린 격하, 다시 말해서 스탈린주의의 부인 여부는 순전히 자기들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형제국들은 자기들의 의견 충돌을 조정할 목적으로 다음 해인 1957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세계공산당대회 (12개국 참가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채택된 것이 저 유명한 모스크바 선언이라는 것이다.

이 모스크바 선언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강령으로서 국제정세의 평가, 자본주의 사회변혁의 방법,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법칙 사회주의 제국 간의 관계 등 전반적인 문제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스크바 선언은 공산 세계 내부의 문제에 있어 당시 국제공산 노선과 차이를 들어내고 있던 유고를 공격하여 수정주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와 대조적인 것으로 스탈린적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도 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소련·중공 간의 현실적 이해관계는 이 선언만으로도 타협이 잘 되지 않아 다시 3년 후인 1960년 11월에 81개국 공산당대회를 소집하여 다시 모스크바 성명이라는 것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성명은 앞서의 모스크바 선언을 더욱 보충한 것 이외에 자본주의 진영이나 기타 사회제도가 틀리는 나라와도 전쟁 없이 평화공존할 수 있다는 후르시초프 노선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그러나 중공은 형식상 이 성명에 도장을 찍기는 하였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전쟁불가피론을 신봉하였고, 따라서 공산 세계 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교조주의적 해석을 내리는 일파를 더욱 굳게 형성해 나간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이념 차이는 1959년의 후르시초프 방미 동서 정상회담의 추진 평화공존정책의 구체화에 의해 점점 더 악화 되어 왔고, 마침내 작년 10월에 와서는 쿠바 위기라는 치명적 사태에 부딪혀 두 공산 강국의 의견 차이는 완전히 정면충돌을 하게 된 것이다.

중공은 소련이 미국의 압력에 눌려 항복주의에 전락하였다고 욕하였고, 소련은 중공의 인도 침략에 대해 겁도 없는 모험주의자들과 욕하였다.

또 핵전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둘 사이에 완전히 상치하였다.

더구나 소련이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단 모스크바 선언에서 파문된 유고를 다시 공산 진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중공의 분통을 터트렸다.

이리하여 결국 서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소련과 중공은 1957년의 모스크바 선언과 1960년의 모스크바 성명에 대해 제각기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내려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소련이 중공을 가리켜 교조주의자라고 공격한 것이나 중공이 소련과 유고를 한데 싸잡아 수정주의자의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절정에 이르렀던 소·중공 싸움에는 별안간 1종의 해빙설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 해빙설의 첫 근거가 된 것은 지난 1월 16일, 동베를린에서 열린 동독 공산당 대회에 참석했던 후르시초프가 중공과의 이론투쟁을 무조건 휴전하자고 말한 데서부터였다.

물론 그보다 앞서 중공은 인민일보의 입을 빌려 소·중공 간의 싸움을 해결키 위해 세계 공산당대회를 다시 소집하자는 주장이 나왔었다.

그리고 또 공산권 내의 1부에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소련·중공 두 나라가 이념 투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단독회담을 열지 모른다는 추측도 있었다.

그 뒤 소련과 중공은 다소 옥신각신이 있었으나 대체로 신문·라디오를 통한 비난 공격의 선전전을 완화하고 막후에서 타협의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지난 2월 말엔 각각 상대국의 주재 대사를 통해 구체적인 의사타진이 있었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소련공산당이 중공에 이 문제에 관한 서한을 보냈다. 중공도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3월 9일, 소련에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 결과가 마침내 3월 13일 양측에 의해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 중공은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앞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길에(시일 미정) 북평을 들려달라고 초청하였다.

중공은 후르시초프가 북평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중공의 고위사절단이 소련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제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공은 소련에 대한 1체의 선전전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반면 소련은 중공의 종래 주장에 양보하여 원칙적으로 세계 공산당대회를 소집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소·중공은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단독 고위회담을 열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예비적인 타협에 성공하면 바로 비공개리에 세계공산당대회를 열어 자기들 진영 내의 출혈적인 싸움에 형식상의 중지부를 찍는 시위를 할지를 모른다.

어쨌든 1956년 이래 점차로 싹터왔고, 작년 말 이래 절정에 이르렀던 이 공산 싸움은 이제 중대한 하나의 고비를 만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곧 소·중공 간의 이념과 노선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타협 해결하기에는 그들이 현재의 세계정세 평가에 있어 주관적 가치 기준이 너무나 틀리며 국내 사정의 차원도 수십 년의 간격을 벌리고 있고, 위성권인 인접 공산당에 대한 지배 관계도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이다.

소련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다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동구라파에 대한 자기들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중공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에 확고하고 교조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도 역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공산세력의 확장에 초보적인 수법을 적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공은 앞으로 소련과의 단독회담이 열리는 경우 그 토의할 의제로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평가 기준,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 차이, 공산 국가끼리의 협조와 상호관계, 피압박 민족과 후진국의 해방 문제 등 광범한 과제를 내걸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스크바 선언이나 모스크바 성명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통일하자는 근본문제에 귀착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견해와 사고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그들의 생각만을 놓고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엔 어디까지나 수십 년의 간격을 벌리고 있는 현실적인 차이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선결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문제의 해결은 거의 꿈에 가까우리만큼 어렵게 되어 있다.

그들의 싸움은 제3차 대전이나 서방측에 의한 압도적 압력이 없는 한 그렇게 쉽게 자체를 결속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감맛

소설가 삭카레(1811-1863)가 미국을 방문한 목적은 마사츄세츠 명물인 감을 상미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을 알게 된 어느 출판자가 삭카레를 만나자마자 근사한 감료 이점으로 데리고 갔다. 눈앞에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여섯 개의 커다란 생각이 나타나자 문호는 매우 좋아하였는데 그러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먹는 법을 몰라 당황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먹지요?”

하고 삭카레는 물었다.

“이렇게 먹습니다.”

하고 멋있게 먹어 보였다. 삭카레는

그대로 먹어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만 잠잠코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출판자는

“선생님 맛이 어떠세요?”

하고 물었다. 삭카레는 길게 한숨을 내 쉬며

“어쩌면 갓난애를 그대로 삼키는 것 같아서”

◇그는 역시 수학자였다.

옥스퍼드의 유명한 어느 수학자는 음치였다. 어느 날 우인의 음악가에 초청을 받고 파리에서 왔다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들었다.

연주가 끝나고 난 뒤 우인이 물었다.

“어때 참 잘 하지”

그런데 수학자 교수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기가 막혀! 2,900회 이상이나 팔이 오르내렸어!”

◇우울 이상의 우울

런던의 명의 아바네시(1764-1831)에게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찾아 왔다. 아바네시는 친절히 진찰을 끝마치고

“당신은 앞으로 명량한 곳을 찾아 다니시오. 아니, 희극 배우 그리마르테이를 보러 가십시오. 웃지 않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약보다도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자 환자는 더욱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 내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리마르테이인데.....”

◇못난 사람

존슨 박사가 어느 파티에서 우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인의 우인으로 보이는 신사가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는 체 날뛰기에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상하군. 나는 당신이 알아들을 만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는데...”

구라파의 최근 동향

김준환(金俊煥)
 <동양통신의신부장>

시사 해설

(1) 서언

구라파의 현 정세는 2차대전 종결 후 일찍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잡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종전 후 근 20년 동안 꾸준히 부흥의 길을 걸어온 구라파는 이제 경제적으로 당당히 거대한 제3세력을 이룩했으며, 그들의 이 경제력에 상응한 국제 정국상의 발언권을 익구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구라파라고 함은 서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까닭은 동구 공산 위성 국가들은 소련의 완전한 통제하에서 독자적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의 경제력이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존재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래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세력으로 분극하였으며, 세계의 운명은 이 양대세력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구라파는 이제 이 세계의 양극화 현상을 거부하고 구라파를 위한 제트의 위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요구의 기수가 바로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인 것이다.

드·골 구상은 단적으로 표현하여 구라파에 의한 구라파 운명의 결정이라고



아데나워



드·골

집약될 수 있다. 그의 구상은 말하자면 1차대전 이래 미국에게 독점되어 온 자유 세계의 영도권을 이제 구라파에게도 분양하라는 것이다.

드골은 시사한다.“세계 문제는 이제 미국·소련 및 구라파의 삼자 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몸부림을 거듭한다. 독자적 핵 군사력 창설, 본=파리=마드리드 추축의 형성, 미·영 세력의 구라파로부터의 거세 등을 기도하는 그의 몸부림은 거세다.

(2) EEC 주변

지난 1월 29일의 일이다. 영국의 구라파 경제 공동체(EEC =속칭 구라파 공동시장) 가입을 위한 브뤼셀 협상이 마침내 결렬되고 말았다. 15일간의 교섭으로 거의 합의점에까지 접근했던 영국의 공동시장 가입문제는 최종순간에 가서 드골의 거부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것은 확실히 드골의 폭주였다. 그것은 자유 세계의 단결이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볼 때 불행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드골에게는 그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브뤼셀 협상의 결렬 원인은 표면상으로는 공동시장 농업정책에 대한 불란서와 영국 사이의 견해대립이었다. 즉 영국은 국내 농업보조 정책과 영 연방 내 특혜제도 등을 이유로 영국이 공동시장에 가입한 후 어느 기간의 과도 단계를 인정해서 특혜조치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과잉농업생산에 고민하는 불란서는 공동시장의 공동농업정책에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하에 공동시장의 농업정책을 불란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협상은 이상과 같은 직접 원인으로 깨어졌지만 결렬을 초래한 보다 기본적인 지류는 드·골이 미·영세력의 공동 시장내 침투를 꺼렸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드·골은 미국이 영국을 앞장세워 구라파 공동 시장내에 세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영국의 공동시장가입을 무기 연기시키고 만 것이다.

공동시장권에서 미국과 영국의 영향력을 후퇴시킴으로 순수한 구라파만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드·골 구상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파리=본 추축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구상에서 나온 하나의 움직임이 불독 협조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지난 1월 파리에서 조인되었으며, 3월 2일 서독 하원의 비준을 거쳤고, 4월에는 서독 상원의 비준을 거침으로써 정식으로 성립될 예정이었다.

불란서는 서독과의 제휴강화 외에 서반아와도 밀접한 접촉을 취하고 있어 드·골 구상의 전개를 반영하고 있다.

(3) 핵 군사력 문제

구라파 공동시장을 엮은 불란서의 독주 태세는 핵 군사력 면에서도 역세계 나타나고 있다.

드골은 불란서의 독자적 핵 사력 창설을 기약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다각적 핵 군사력 창설을 위한 미·영 양국안을 거부하고 있다.

NATO의 다각적 핵 군사력 설치 계획은 작년 12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맥밀란 영국 수상 간의 내소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원래 처음의 합의에 의하면 미·영 양국의 기존 핵 군사력을 NATO에 제공해서 통합군사력을 설치하며 미국은 영국에 폴라리스 탄도탄을 공급해서 핵 잠수함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이와 같이 합의를 본 후 불란서도 이 합의에 참석하도록 드골 대통령에게 종용했으나 드골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말았다. 어디까지나 불란서는 불란서 독자의 핵 군사력을 창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드골의 고집의 밑바닥에는 미국에 계속 서구국가 방위의 책임을 맡겨서는 구라파의 발언권이 결정적으로 강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수국가가 참여하는 다각적 핵 군사력이 NATO에 설치되더라도 비상시의 사용 명령은 필연 미국 대통령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타 국가들이 결정권을 향유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오는 판단인 것이다.

기실 미국의 다각적 핵 군사력 설치안이 핵무기의 확산을 가급적 방지하려는 미국의 기본자세에서 나온 정책 노선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드골은 이와 같은 저의가 숨어있는 다각적 핵 군사력 창설안에 동의했다가는 불란서가 영원히 핵 보유국가로 등장하지 못하리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불란서는 이미 전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원자 장치를 실험한 바 있거니와 내년 여름경에는 태평양에서 열핵 장치도 실험할지 모른다고 전하여지는 만큼 상당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4) 미·영의 포석

드골의 이와 같은 독주 태세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견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드골이 다시 대서양권의 총체적 단결을 지향하도록 유인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영국은 공동시장 가입이 실패하자 공동시장 가입 협상으로 거의 소멸단계에 있던 영국 주동 하의 구라파자유통상연합(EFTA) 7개국과 2월 18일 및 19일의 이틀에 걸쳐 각료회의를 열고 일련의 대항 조치를 결정하였다.

이때의 결정사항 중에는 EFTA 권내의 공업품에 대한 관세를 EEC보다 1년 앞서 1966년까지에 전폐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한편 미국은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에 걸쳐 대통령 특사 리빙스턴·머찬트씨를 불란서·서독·영국 등 제동 맹국에 파견하여 다각적 핵 군사력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 타진을 가지게 하였다.

다각적 핵 군사력에 대한 미국 측 복안은 당초 계획과는 좀 변경되어 폴라리스탄 도탄을 우선 수상함에 장비하고 이러한 폴라리스 수상함대의 승무원을 국제 편제로 하자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머찬트 미국 대통령 특사와 회담을 통해서 영국과 서독은 미국의 안에 대체로 동조하였고 불란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게 하였다.

NATO도 각 핵 군사력 설치문제에 있어 미국과 영국은 그들의 계획을 가급적 조속히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그것은 비단 NATO 군사력의 개선 강화라는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독자적 핵 군사력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줄달음질치는 불란서에 대한 견제라는 관점에서도 당연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미·영 양국의 포석은 또한 불란서의 독주에 전적으로 찬동하지 않고 있는 다른 구라파 국가와의 제휴를 계산에 넣고 있다.

드골이 영국의 공동시장 가입을 봉쇄했을 때 공동시장의 나머지 개국은 한결같이 불란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탈리아와 화란 등은 노골적으로 영국의 가입에 찬동한 국가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NATO 핵 군사력의 설치안에 대해서도 이탈리아를 필두로 한 여러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서구 국가들을 통한 대불압력은 미·영 전략의 한 기본방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결어

이상에서 우리는 구라파 현정세와 그저 류를 대충 살폈다. 거기에서 받은 인상은 서구의 단결에 금이 가 있는 듯 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가?

와르사와 조약기구라는 공산 측 동맹 체제와 맞겨누고 있는 서구동맹 즉 NATO가 크게 수습할 수 없는 분열 속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정말 불안한 일이다. 또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만약 미국과 구라파가 분열된다면 그것은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과연 드·골은 완전히 미·영 세력과 갈라진 제3세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의 구상이 끝내 실현될 것인가?

역설적으로 말하여 이와 같은 구라파 내의 의견대립은 냉전이 비교적 완화되었다는 객관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쿠바 위기 이래 냉전 긴장이 약간 후퇴하자 집안일에 대한 불만이 머리를 치켜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하여 구라파의 미·영 양국은 꿇을래야 꿇을 수 없는 사이이다.

드골의 현재의 독주는 미·영 세력과의 절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드골은 구라파와 미·영 세력의 꿇을 수 없는 유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라파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과잉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서방 핵 군사력의 98퍼센트가 미국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다. 서구의 통합된 경제력이 거대한 제3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라파의 군사력이 미국의 핵 저지력에 한 보호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럴진대 현재의 구라파 내 의견대립은 월터·리프만의 말대로 전쟁 중의 제후가 평화의 회복과 더불어 깨어진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냉전이 격화되고 위기가 닥친다면 서방세계의 의견대립은 자연 소멸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일 것이 명백한 일이다.

소련 농업의 본질과 결함점

소련의 연이은 화려한 인공 위성 발사와 수십 메가톤급 핵 실험의 이면에는 처참한 농민들의 굶주림과 피땀이 서리어 있다.

김성철(金星七)

<문관·공군대학 근무>

1961년 10월 제22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금후 10년 내지 20년 간의 경제계획과 경제 목표를 설명하고 아울러 미국을 능가하는 20년 후의 이상향을 잡꼬대처럼 늘어놓은 바 있다. 그 중 농업에 관한 것만을 추려보면 20년 후의 소련은 곡물에 있어서 현재 생산고의 2배 이상, 육류는 약 4배, 우유는 약 3배를 생산하게 되어 유사 이래 처음 인간의 식생활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불식이 된다. 따라서 종합적 경제 생활면에서 국민은 집세가 무료인 국영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며, 공장의 식당에서 무료로 취식을 할 뿐 아니라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것,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모두가 무료로 되는 즉 이 사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지상의 Utopia를 이 건설할 수가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이었다. 참으로 듣기만 하여도 3년 체중이 한꺼번에 달아날 정도로 통쾌한 말이라는 하지만 사실상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자주 되풀이 한 경제 계획 특히 농업 계획안 같은 것은 항상 가정과 편견에서 꾸며져 있었고, 또한 편견에 따라 부단히 왜곡되며 정치적 호기가 우연히 도래하면 무자비하게 추진이 된다는 비타협적인 교의의 이야기 뿐이었고 보니 역시 강요된 별종의 독단론으로 귀착될 것이 뻔하다.

여기서 후르시초프의 망상이 여하한 것인가를 농업 분석으로서 밝혀 보기로 하겠다.

2. 소련 농업의 기본 조직과 농업 정책의 분석

소련 농업의 현 기본 조직은 한 말로 말해서 집단농장과 국영 농장으로 되어 있다고 요약할 수가 있다. 이 제도는 1918년 2월에 토지 기본법이 발표되고 신 농업 정책의 방침이 밝혀진 데에 기인한다. 이 법률에 의해 개인 농민 및 농민 공동체의 소유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는 강제 몰수되어 국유화가 선언된 동시에 집단농장의 결성이 장려되고 원 지주 소유지와 국유지는 국영농장으로 변모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곧 '노서야에 있어서 개인 농민은 자본주의적 근간을 형성하는 최후 보루인 것을 명심하라'라고 역설한 레닌의 지상 명제를 안면 그대로 실천한 공산 정권의 수단이었다. 그 후 오랜 세월을 두고 농업의 집단화는 국가와 농민 간의 끊임없는 알력 항쟁의 도가니 속에서 오늘의 형태에까지 자라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에 입각한 경영상의 편리에서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농민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농작물을 보다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가. 즉 착취해 가기 쉬운가 하는 영리 감독상의 필요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소련 정부는 현재 이러한 기본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억지 농업정책을 가차 없이 농민에게 뒤집어씌워 놓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소련은 6차에 걸친 5개년 농업 계획 실천을 비롯해서 금년 그 6년째로 접어드는 7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나, 해마다 주요 농산물 생산 실적은 그 계획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혹 축산 부문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참담하였던 스탈린 암흑 시대는 고사하고 농업의 전문가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후르시초프가 불타는 의욕으로 출발 소위 후르시초프 농업 정책이 10년 가까이나 시행되어 왔어도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비록 1962년도의 곡물 생산이 사상 최고의 14,750만 톤에 달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5년 전인 1958년의 14,020만 톤 보다 겨우 730만 톤의 증산이고 보니 연평균 증산이 146만 톤(0.8% 증산률)에 불과하며, 더욱이 동년도 계획 16,380만 톤에서 1,630만 톤(약 10%)이나 하회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고 식육 생산에 있어서는 61년도 생산은 계획의 25% 미달이며, 또한 62년에는 계획에 무려 404만 톤(31%)이나 하회한 886만 톤 생산에 지나지 않다. 여기에서 연평균 인구의 자연 증가 약 400만 명(1.8% 증가율)을 감안하여 본다면 점증하여 가는 식량난 특히 식육난에 대한 그네들의 초조감이란 이루 다 표현할 바가 없다. 그 반영으로서 근간 도시 고깃집 문전에는 판매 시간만 되면 수많은 인파로서 장사진을 이루고 물건은 순식간에 매진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기울어져 가는 소련 농업의 근본적인 흠잡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위기를 극복코자 시도하고 있는 후르시초프 농업 정책의 개요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1954년 소련판 뉴·프런티어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처너지개간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4,125만 Ha라는 광대한 지역을 개간해 내었다. 일례를 들면 1956-59년 사이에 이르는 4년간에 연평균 200억 루블의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그 투자액은 혁명 이래 스탈린 시대까지의 33년간의 총계와 필적한다고 한다.

1957년 농정에 종사하는 불량 간부의 숙청과 농정영가직접통제, 중앙집권주의로부터 지방 분권화로 옮겼다. 그 이유인즉 중앙 집권 관리에는 관료주의라는 필요악이 팽창하여 관을 몹시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1958년 농촌의 개폐우 역할을 맡고 있던 NTS(기계 트랙터 상치소)를 농업 생산의 발전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개조하였다.

동년 12월에 제6차 5개년 계획(1956-60)을 1958년에서 중단하고 드디어 1959-65년의 새로운 7개년 계획을 편성하였다.

1961년 농업성을 개조

1962년 오랫동안 스탈린 시대에 추진하여 오던 소위 수초 휴한지 System(전 경지의 1/4에 해당하는 5,200만 Ha가 된다)을 포기하여 그중 62년도분으로서 2,200만 Ha의 경지에다 두과 작물을 경작기로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것은 가축 사료 증산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동년 식육 정부 매상 가격을 35% 인상하였다. 농민의 근로 의욕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다.

동년 농업 생산의 지도 관리체제를 개혁하여(사실은 매년과 같이 실시) 현재 까지 지도와 감시가 불충분하였던 농업 생산의 현지 지도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중앙 집권화의 일정 한도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개 이상과 같은 번거로운 개선책이 숨돌릴 겨를조차 없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농정실시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들이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지역적 내지 형식적인 대중료법만으로는 도저히 소련 농업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불식할 수가 없을 뿐더러 자칫하면 그 성과보다 더한 깊은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무릇 곡물 증산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농민의 자발적인 근로 의욕일 것이며, 이것은 본래 인간성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강제적인 규범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유희 정책 및 빈번한 관리 기구의 개혁 등으로서 해결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경작지의 확대와 막대한 농업 자금 투자는 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증산은 가져올 수 있으나, 집단농장에 강제적으로 얽매어 희망 없이 단조로운 삶을 이어가는 농민에게 품팔이 노동자로서의 의욕 이외 그 무엇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도리어 양산을 위 한 신지 개간을 엄명함으로써 농민이 강제 동원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니 개간지에서 야기될지도 모를 노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농산물 감수 현상만을 제재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 수조 지한지 System을 타파하고 두과작물을 경작시킴은 그 경작 면적만 큼은 증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것 역시 그 이상의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농업 생산의 지도 관리, 체제의 강화는 당장의 이완된 근로 의욕, 불합리한 생산활동을 시정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는 도리어 보다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런지 모른다.

넷째 MTS의 폐지는 기계의 경우, 파종, 농작물의 수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농민의 자주성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로서 농민에게 환영을 받았고 근로 의욕을 북돋우어 준바 있으나 그것도 역시 처음 한때 뿐이고 집단농장에는 공산당원이 있고 당 세포 조직의 지도하에서 관리되는 동시 기계의 경우는 기사 기수가 적당히 각 농장에 배치되어 계층적 조직을 통해서 중앙집권적으로 당에 총괄이 되어 지도가 되기 때문에 MTS가 폐지되었다 해도 농장의 감독에는 유루가 있을 리가 없고 근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으니 이것 또한 중전으로 되돌아갔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5개년 계획이니 7개년 계획이니 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선 농업 생산의 증진 발전에 기여한바 있으나 그 계획들이 모두 달성 가능한 실질적인 것이 못되고 항상 자만심과 초조에서 우러난 불합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애매한 농민만을 들볶는 채찍의 역할밖에 해오지 못했고 그 결과는 결국 연쇄적 반응을 일으켜 끝내는 전반적인 경제 계획 실패로 낙착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소련 농업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전연 도외시하고 고식적인 정책에서만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광대한 옥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침체의 함정 속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3.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소련 농업 부진의 최대 원인이 저변에 있는가를 대략 파악하였다.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그것은 그릇된 가정과 편견에서 출발한 공산주의 방식에 있다고 한다. 환언해서 기본적으로는 집단화 방식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흠함으로부터 온 다는 것이다.

특집

오늘의 군대와 정훈



현대전과 정훈

현대전에 있어서 정훈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

이용상(李容相)

<공보부 공보국장>

(1)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의 카이젤은 패전지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탄식조의 말을 내뱉었다.

“우리는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런던의 타임스지에 졌다.”고.

이 말은 즉 막강한 무력이 전쟁 승리의 요소이긴 하나 종교적인 승리는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동시에 선전전—넓은 의미에서의 정신전—무력에 못지 않게 전쟁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확실히 1차 대전 당시에 있어서의 독일은 무력전에 있어서 우세한 힘을 발휘했으나 선전전에 있어서 무방비와 무통제로 인하여 영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용의주도하고도 면밀한 계획하에 꾸며진 무서운 선전 지탄 앞에 마침내는 굴복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당시 연합군의 선전 공세를 가리켜 독일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독군이 퇴각하는 뒤를 뒤쫓아 오는 것은 연합국의 군대가 아니라 선전이라는 무서운 지탄의 세례였다.’고

이상에서 인용한 것은 전쟁에서의 선전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밝힌 것이지만 오늘에 와서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정신력의 동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

현대전을 일컬어 과학전이라 한다. 동시에 현대전의 양상은 곧 국가 총력전이고 과학의 우세가 전쟁 승리의 요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오늘날 사람의 지혜가 낳은 과학 문명의 발달은 전쟁무기에 있어서도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동안 우리에게서 제트기 시대라는 말이 유행되었으나, 오늘은 로켓 시대로 변모하였고, 내일에는 어떤 시대가 도래할는지 예측할 수 없을만큼 과학력은 무한계의 세계로 비약에 비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냉전이라고 싸움터에서 대결하고 있는 미·소 양 진영에서는 부단히 치열한 과학전을 전개하고 있으니, 핵무기 실험이니 우주 로켓 발사니 하여 그 성과를 과시하는 것도 냉전의 도가니 속에서 볼 수 있는 과학전이요, 동시에 정신전의 한 국면임은 두말할 것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무기는 너무나도 그 성능이 높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거의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과거의 전쟁과 같이 승자와 패자를 가려낼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왜냐하면 적에게 주는 희생과 공포에 상당하는 위협을 스스로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면 전쟁을 상상한다는 것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는 것이요, 승리 없는 전쟁으로서 인류사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라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현대의 무력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 잠재하는 것이요, 냉전 속에서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진면목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살인 무기를 다루는 병사 개개인에 대한 정신 무기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과학 무기가 인류 전멸의 두려워할 힘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학 무기는 사람의 지혜가 만들어 낸 것이요, 이의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정신의 지배를 면치 못한다는데서, 무기를 실제로 다루고 조작하는 병사 개개인의 정신, 교육 문제는 과학력,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전은 과학전으로서 모든 병기는 그 조작이 복잡할 뿐 아니라, 그 원리에는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투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기초적 지식을 부여하는 것은 정훈의 일부 면에 속하는 일반 교육에 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전이 경제력으로 대하고 무형의 힘에는 정치, 사상, 문화 등 광범한 힘의 종합이 동원되는 마당에서 정훈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앞서 강조되는 것이다.

(3)

국방부 발행 교육 강좌(35호)에 의하면 정훈이란 그의 임무를 이해 인식시키고 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왕성한 책임감을 함양함으로써 전투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훈 업무는 정훈망의 조직, 강화, 보도, 선전, 일반 교육, 정훈 교육, 정훈 조사 등의 지반 업무를 내포하고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군에 있어서의 정훈의 중요성은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에 급히 강조된 바 있다. 그것은 독군에 퍼분 연합군의 선전 지탄이 무력전에 못지 않게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서 위대한 힘을 하였다는데 기인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군 작전에 있어서 정훈 활동의 적부는 작전 성패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끔 되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군 작전은 전쟁의 승패를 가리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작전은 지휘관의 작전 계획에 의하여 그 승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작전 명령에 의하여 전투하는 전투원의 자질 문제인 것이다.

그 예로서 로마의 스피키오 장군은 카세지 성을 공략할 때 외곽성을 모조리 탈취하고 전승지기제로 카세지 성으로 달리는 도중 큰 강에 다다랐다. 이때 물은 도저히 도보로서는 건너기가 어렵게끔 물살이 사나웠다. 여기에서 스피키오 장군은 강기슭에 말을 멈추고 한참 생각 끝에 병사들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오 신이여 불의의 무리 카세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 이 쓸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 얼마 안 가서 물은 차차 쓸개 되어 강을 건너게 되었고, 병졸들은 스피키오 장군이 신탁을 받은 것이라 감동하고 용기 백배하여 무난히 카세지 최후 아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강물은 바다 근처인 까닭에 간조로 인해 빠진 것이요 스피키오 장군이 신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형 상황을 재빨리 판단하고 병사의 심리적인 효과를 포착한 스피키오 장군이야말로 지휘의 작전 계획을 성공시킨 본보기라 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있어서 정부군에 호응하고 정부군이 반란군과 호응하였던 사실을 상기하며, 6·25 사변 전에 춘천에서의 강·표 두 소령의 부대 인솔 월북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병사의 사상적 지도를 완전히 못한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강·표의 계획적인 거사에 의한 것이라고만 간단히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6·25 사변에 있어서도 전투지로부터 터의 이탈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며, 휴전 직후 중립국 감시 하의 포로 설득 공작에서 기수의 병졸이 조국을 등진 뼈아픈 사실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사상적 전쟁에 있어서 사상적 지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사상적 전쟁이 정책적 전쟁보다 치열하고 참담함에 비추어 사상적 지도의 긴요성은 더욱 증대되는 것이다. 전란 초기에 있어서 소구경화기로서 파괴할 수 없었던 적의 전차에 대한 육박이라든가 중공의 인해전술에 대한 과세로서의 악전 고투는 사상적 지도에 의하여 전투원의 길과 임무를 인식한 전투의 정신적인 발로이며, 유엔군의 참전 또한 사상적 지도에 의한 민주주의 정신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공명과 같은 명장이 수립한 작전 계획이라 할지라도 전투원이 질이 낮으면 작전의 성공은 기대하기 곤란하며 우장이 수립한 졸렬한 작전 계획이라도 정신 무장이 잘된 전투원이라면 패망은 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전투원의 전투 경험이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장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한 교육에 의해서 만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훈련 상태나 정신 상태는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교육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그 시일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투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전투 경험보다는 훈련 상태인 정신 상태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훈은 작전에 선행하고 작전과 병행하는 것

이며 작전과 정훈은 불분리의 관계에 있고, 이 양자의 유대 없이 전승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4)

끝으로 국군의 정훈 편제와 자유 중국 국 부군의 정치부 편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소고의 참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국부군의 정치부 편제를 보면 부분적인 정훈 업무에 관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감찰, 정보, 특전, 민사, 군정 업무를 망라한 방대한 기구로서 유기적인 기능과 강력한 조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된 정공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자유 중국 총 정치부의 임무는 정공 조직의 확립으로 국부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바 오늘날 국부군의 정공 교육은 국부군 육성에 10%의 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다.

국부군의 정공 조직을 검토하면 지휘관이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직속으로 그 좌우편에 총 정치부 주임과 참모장이 있어 가지고 참모장은 미국식 참모 업무를 주관하는 격이고 총 정치 주임을 정치상의 막료장으로서 일반 참모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총사령부의 정치부 주임과 총 사령관과의 관계는 참모장 대 총 사령관과의 관계와 동일하다.

총 정치부에는 3개실, 5처와 13개 단위 부대가 있으며 제1처는 정공 작전, 심리 작전, 문화 선전 업무를 담당하며, 제2처는 정치 교육, 정훈 공작, 강업 활동, 체육 공작을, 제3처는 행정 감찰, 전술 감찰, 기술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바 우리 편제에 비하면 육본감찰감실업무는 제3처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제4처는 보밀 공작, 방첩 공작, 안전 조사, 보방 교육, 비밀 파괴 및 음모 반란 방지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술 방첩 외에도 조사 방첩, 그리고 미군의 G-2와 같은 반간첩업무, 민군 공작 업무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위로상의 활동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행정실, 국방부 지휘하에 있는 정공 간부 학교제와는 비교 안 될 만큼 국부군은 방대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중요시하고 있다.

자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1950년 6월 국부군 내의 정공 제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군사상 정훈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웅변으로 밝혀주고 있다. 즉

“자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혁명군은 정공 제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북방 155마일 전선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자각해야 할 것으로 안다.

국군 정훈의 당면 문제



문중섭(文重燮)

<육군준장·육군정훈학교 교장>

1. 정훈 기구의 발전 과정

군의 사상 선도를 위한 정훈 기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국방부의 기구가 확장하게 되자, 장병들의 사상 선도와 정신 무장을 위한 기구로서 국방부 내에 정치국(그 당시 제2국)을 두게 되었다.

초창기 정치국의 업무는 정치국 요원의 확보와 불충분한 장비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는 부진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제주도를 비롯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정훈 업무의 필요성은 더욱 가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정치국은 발전적인 해체와 동시에 정치국의 명칭을 정훈국으로 개칭하였다.

육군 정훈 학교는 1954년 7월 31일 대구 제1보충대에서 초대 교장 최주종 소장(당시 대령)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그동안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각군의 각급 지휘관과 사병들을 교육하여 배출하였다.

정훈 학교를 전 평시를 불문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신 교육이 되어야 했고, 또한 부대 증편에 따라 급증하는 교육 소요 인원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했다.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 이념을 생활화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의 직접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지금 대공 포진 155마일을 경계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 거개의 일선 지휘관들은 장병의 정신 무장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보다 적절하고 타당한 교육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

왜냐하면 병무 행정이 5·16 이후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되자 고등 교육을 받은 장정의 대거 입대로 말미암아 조성된 일반 사병의 질적 변화는 지휘 통솔 방법에 보다 심리적인 배려를 부가케 하였으며, 따라서 정신 훈련 방법의 시정 강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인 정신 무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하여 사상 선도와 인격 지도를 도맡아 교육하여야 하는 육군 정훈 학교는 국군 정훈 학교로서 발전되어야 할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각 군은 모두 전략 전술 분야의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심리전(사상전) 분야의 교육은 육군 정훈 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정세가 복잡 다난한 가운데 국군 장병의 정신 무장 강화는 적의 사상전에 대비하여 적군을 설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전 기술 분야의 개척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평시부터 군사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강군을 육성하여 물리적인 공세(군사적인 면)와 심리적인 공세(사상적인 면)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정예 부대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필승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 마디로 말한다면 역시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평시부터 군사적인 교육 훈련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 선도(정신 무장)가 철저하게 잘 교육되고 훈련되어 있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군사적인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겠으나 이에 모지 않게 보이지 않는 심리전(사상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만한 원자핵 무기도 인간에 의하여 제조되고 조작과 운반이 사람의 손에 의한다면 손은 인간의 두뇌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고, 인간의 두뇌는 높은 국가관과 윤리의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군의 사상 선도 즉 반공정신 무장을 위한 당면한 과제를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성업을 완수하지는 데 있다.

반공 정신 무장으로 승공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면에서도 거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문제 이상의 새로운 문제로서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현실의 시행은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우선 철저한 군의 정신 무장을 위한 기구를 재정비 강화하여 승공 통일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2. 혁명적인 사고로서 당면 문제의 해결책

정훈 학교가 창설 이래 8년 간에 배출시킨 장교 졸업자의 수는 총 교육 대상자의 14.4%에 해당하는 숫자의 인원이 졸업하였다<별표1 A,B참조>.

현 정훈 학교의 현재 능력으로서 육군의 대상자 전원을 교육시키기 위하여서는 고급반(영관급) 교육에 12년, 초급반(위관급) 교육에 50년이 걸려야 하고 타군의 교육을 지원한다면 이 이상의 시일이 요구된다.

현 정훈 제도하의 정훈 학교 기능으로서 연간 배출 총 인원은 약 2천여 명에 불과하다.

최소한 소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만을 교육하기 위하여서도 30여 년이 소요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 상사급만을 완전히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50여 년이 소요되고 문관과 군속까지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시일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정훈 기구와 조직으로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군은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군사 교육을 비롯한 인격 지도는 각급 지휘관들에 의하여 교육되고 군인 정신의 함양은 직업 군인(중 상사급, 하사관)들의 내무 교육과 내무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초급 장교와 하사관은 항상 사병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들의 교양과 언행은 부하 사병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직업 군인들은 솔선수범하여 사병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고상한 인격을 지녀야 함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다.

정훈 교육은 육군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 모두 필요불가결한 문제이므로 정훈 기구의 증편과 더불어 종합된 국군 정훈 학교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부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사령부의 요청에 의하여 고급 장교들에 대한 특별 정훈 교육을 실시하였다<별표 2참조>.

이와 같이 군의 사상 선도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실을 실증해 주고 있다.

오늘날 각 군 모두 반공정신 무장의 실태가 어느 정도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하여 연구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별표 1:A>

정훈 교육 수료자 통계

54-63.2월 말

연도 장병별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계
장교	126	1,029	1,083	1,727	1,621	1,654	1,299	1,135	1,345	70	11,994
사병		282	572	433	357	426	511	363	758	55	3,796
총계	126	1,311	1,655	2,160	1,978	2,080	1,819	1,498	2,103	125	15,790

공군, 해군, 해병대 의탁 교육 수료자 통계

<별표 1:B>

55-63.2월 말

연도 장병별	군별	55	56	57	58	59	60	61	62	63	계
장교	해군			3	1	13	7	2	176		202
	공군	5			3	2	15	19	114		158
	해병대	1	7	5	8	3	3	4	17	30	78
사병	해군	5		10	12	14	6	7	14	1	69
	공군			3	2	16	3		6	3	33
	해병대	10	67	4	18	9	8	11	12	4	143
계	해군	5		13	13	27	13	9	190	1	271
	공군	5		3	5	18	18	19	120	3	191
	해병대	11	74	9	26	12	11	15	29	34	221
총계		21	74	25	44	57	42	43	339	38	683

<별표2>

공군, 해군, 해병대 의탁 교육 수료자 통계

62.6.-63.2.

군별 기별	해군	공군	해병대	전고
1기	37명	28명	30명	
2기	38명	24명	31명	
3기	35명	27명	30명	
4기	35명			
5기	23명			
계	168명	79명	91명	총수료 인원 338명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은 최전방 중립 지대에 근무하는 감시 요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공산군을 설복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훈 학교는 여군이 요구하는 정도에 알맞게 사상 교육을 시켜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훈 기구로서는 시설 및 예산 면에서 생각하여 볼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응시하고 있다면 국가에 대한 죄악을 더 크게 범하는 결과만을 가져다줄 뿐이므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긴급한 문제이다.

현실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고급 사령부 지휘관들은 거시적이고 혁명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정훈 기구의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얼마간의 틈을 각오하고라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실이 요구하는 정훈 기구로 개혁하여 단시일내에 많은 정훈 학교 사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건전한 교육으로 사상을 선거하여 60만 대군의 정신 무장을 시켜 놓아야만 통일 성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방법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최단 시일 내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각군의 모태를 이루고 있는 각 학교 및 전투단급, 단위 부대에서는 유능한 장교를 선발하여 일정한 기간 이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긴급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정훈 학교에 특별 코스를 설치하여 일정한 기간에 하나의 과목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로서 전문가를 양성하여 각 학교 및 단위 부대로 교관 요원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목별 전문 교육을 받은 장교들에 의하여 각기 단위 부대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조그마한 사이즈의 정훈 학교가 되는 것이다.

각급 지휘관들은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하여 발전시킨다면 사병들의 반공정신 무장과 인격 도야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의 목표를 가능하게 달성할 수 있을 가장 가까운 길이 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3. 승공 통일을 위한 정훈 제도의 필요성

공산주의 국가 및 공산당의 일체의 정책은 침략을 위하는 전략 전술이고 이는 곧 제반 행동의 원천이 되는 동시 공산당원들의 노선에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공산주의 이외의 이데

올르기는 무가치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유해로운 존재로서 적대시하고 배격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영역에 있어서 공산주의만이 인류 사회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공산 진영에서는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비난하고 자유와 평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공산 진영 국가의 국민들 같이 인간 본연의 자유를 유린당하는 나라도 없다.

또한 공산당처럼 군사 과학을 애호하고 연구하는 정당도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혁명 자체를 투쟁으로서 파악하고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을 계급 투쟁 사관에 입각하여 국가 전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국제적인 전쟁마저 본질적으로 계급 투쟁이 외부적으로 발현한 것으로 보고 또한 그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유 진영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는 평화 공존과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계속적인 적화를 흉계하여 간접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버릇처럼 평화 공존을 외치고 있으나 공산주의자의 평화 전술이란 자국의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전략으로서 시간의 연장을 흉책하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까닭에 우리 자유 진영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은 평화 공존의 관념은 그들의 주의 사상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유혈이 수반되는 정치이고, 정치는 유혈이 없는 전쟁이라고 보고 전쟁과 정치를 직접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사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공산주의의 전략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군에서는 정치보위대를 설치하고 중대까지 정치부 장교를 배치하여 병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무장시키는 동시에 군의 세포 조직이 말단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상에 고찰한 바와 같이 공산당의 침략 전술은 공식되어 있지만 때로는 그 나라의 정황에 따라 전략 전술은 바꾸어 지기도 한다.

즉 그들은 항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약화되었거나 사회상의 혼란을 틈타 기묘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인간 기지를 확보하고 계속 침투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서 5·16 군사 혁명 이전 우리 사회의 혼란상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우리 민족이 처하여 있는 역사적인 수난의 역경을 극복 타개하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어둠 속의 등불 마냥 우리 민족의 길어 나가야 할 길을 향도하여 국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현명한 지도자가 불행히도 없었던 것이다.

5·16 군사 혁명 이후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는 혁명 정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을 명확히 분석 검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반공 자유 센터를 비롯한 제반 승공 시책을 수립하고 전 국민과 더불어 승공 전선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하고 있다.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물리적인 공세와 심리적인 공세로 대별할 수 있으나 물리적인 공세보다도 심리적인 공세(사상전)가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여 볼 때 우리는 공산군의 심리전 공세에 대비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예로서 현재 정훈 업무를 맡아 보고 있는 정훈 장교들의 신원 문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능한 정훈 장교들은 일선 지휘관 또는 타 병과로 전속되어 가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고급 지휘관은 사상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훈 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둘째, 정훈 요원 및 기구의 확보 강화를 위한 개혁이 요구되고,

셋째, 사상 선도 및 정신 무장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증가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고급 지휘관들의 혁명적인 사고로서 과감한 영단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 정신 무장 강화의 필요성은 그저 주장에만 그치다 말고 정훈 업무는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직접적 적인 북한 괴뢰군의 소위 정치 장교가 그 군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참되게 생각하여 본다면 필자의 제언을 일소에 불이지는 못하리라.

적의 심리전 공세와 그 분쇄책

제2차 세계 대전 후 새로 생겨난 말에 냉전이란 낱말이 있다. 이 신어는 대전 후의 국제 관계가 지니게 된 새로운 구성과 그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 소련을 정점으로 하고 피라미 형으로 응결한 공산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원형으로 결속한 자유 진영과의 사이에서 대전 이래 전개 되어 온 집단적인 적대 관계-이것이 바로 냉전의 실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국제 관계가 그 이전의 그것과 다른 짧은 대체로 개별적이었던 국제 관계가 두 개의 커다란 집단으로 집약되어서 당시적인 양대 세력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데도 있지만 이보다도 더욱 현저한 특징은 양대 진영이 각각 의거하고 있는 정치 방식의 사상적 근거가 배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데 있었다.

자유, 공산 양 진영이 각기 그 생활 토대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그것이 하나의 사상인 이상 이질적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적대적이어야 할 이유가 숙명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적대 관계는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 즉, 역사의 발전은 계급 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력은 그 속에서 자라난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마침내 타도되어 자본주의 사회 대신에 사회주의 사회가 생겨난다는 그릇된 역사관에 그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냉전은 계급 투쟁에 의해서 타도된 자본주의의 시체 위에 사회주의 사회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를 건설한다는 공산주의의 이론과 공산주의자들의 망상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대 냉전의 근본 원인이 공산에 있다는

것이며, 또한 후르시초프가 아무리 평화 공존을 역설하고 미소를 뿌리면서 협조와 양보의 제스처를 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화를 위한 전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성립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 공존 노선을 둘러싼 소련과 중공의 논쟁과 대립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평화 공존이란 이념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의 국내 정세와 대외 정세가 평화 공존이란 위장 전술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서 진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역사적 인식의 강열도를 보여 주는데 불과하다는 견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의 냉전, 즉, 자유 대 공산의 심리전에 있어서 공산 측의 기본 목표가 평화 공존 노선을 전략·전술로 하는 세계의 적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목표는 1960년 12월의 세계 81개 공산당 대표자 회의의 모스크바 성명을 통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기본 강령으로서 이미 채택된 것이나 이것은 공산 국가 12개국, 1957년 11월에 내놓은 모스크바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한국 민족의 당면의 적인 북한 괴뢰 집단의 대남 심리전이 이 기본 목표에서 우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괴뢰의 모든 대남 선전과 심리전 활동은 남한을 공산화한다는 원대한 최후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남한의 실정에 따라 그에 적응하며 유도할 수 있도록 꾸며진 적화에 이장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공산 이론에의 배신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이론이 변질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이 공산주의자로 남아 있는 한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선전과 활동의 목적이 대외적으로는 적화, 대내적으로는 정권 혹은 지배권의 강화에 있다는 본질만은 영구불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북괴의 대남 심리전 공세의 실태

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는 원래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상대방에게 자기가 의도한 대로의 심리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 이든 모두 심리전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측과 북괴 측은 현재 휴전 상태에 있으므로 휴전 조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소재 자체가 지닌 제약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인지라 그들 눈에 휴전 조약이 보일 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들의 심리전에 언제 어떠한 기상천외의 교묘한 수법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북괴의 대남 심리전 방법을 들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전파를 통해서 하는 선전·평양에는 중앙방송(국내방송)과 평양방송(대외방송)이 있으며 출력은 150kw.

이 밖에 제1선 지대의 전역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는 스피커 방송이 있다.

(2) 간첩 침투

대개 남한 출신으로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자가 파견되며, 주로 가족이나 친지가 포섭 대상으로 되어 있다. 경로는 해상 육상을 가리지 않으며, 그리고 일본을 경유, 제일 교포로 가장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3) 고무 풍선을 이용한 빠라의 공중 살포

겨울의 북서풍 또는 북풍을 이용하여 빠라를 고무

풍선에 태워 남한 지역에서 공중 살포하는 데 1, 2월 중에 발전된 것만도 20여만 매에 달하고 있다.

(4) 국내 또는 외국간행물을 도용한 위조 간행물의 남한 송부

이 수법은 명년 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국내 신문으로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제호를 따서 위조한 일이 있으며, 외국 동행물로는 미국, 영국, 서독, 통일아랍, 서백랍 등에서 발간되는 신문, 잡지명을 도용하고 그 내용에다 북괴당, 제4차 회의의 김일성 연설 전문,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회상기, 북괴의 통일에 관한 비망록,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미군 철수 투쟁을 선동하는 최용건의 연설문, 그리고 북괴의 교육 제도 등을 게재한 문서나 혹은 포켓 가요집 등을 남한에 거주하는 실재인에게 항공 우편으로 침투시키었다. 또 북괴는 서독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 앞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중순까지에 약 47부의 불은 문서를 보냈는데 이것은 전에 없었던 것이다.

(5) 휴전선 근처에서 감행되는 도발 행위와 정전 회담을 이용한 선전

북괴는 주로 이 휴전선과 정전 회담을 한국군의 전투력과 그 태도 타진, 한국군 특히 미군의 침략도와 침략성을 날조 선전하기 위한 선전 장소 북한 주민들에게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발 무대로서 이용하고 있다.

(6) 남북 어민에게 세뇌 공작을 하여 돌려보내는 방법에 의한 간접 선전

가장 최근의 일로는 작년 8월에 있었던 약 40여 명의 어민들이 연평도 근처에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북으로 밀려갔던 것을 기회로 이들을 남북했다가 약 1개월만에

선전용 공장과 시설들을 구경시킨 후 각종 물품을 주어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 등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북괴의 선전을 그 내용에 의해서 대남 선전만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당면 목표가 떠오른다.

최근 연간에 전개된 북괴의 대남 선전만 보더라도 그들의 대남 전략이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정치적 동향에 따라서 직각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북괴의 대남 선전은 대체로 남한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시점, 즉 4·19 혁명, 5·16 혁명, 파주 린치 사건, 정치 활동 재개에 따른 정국의 불안과 2·18 박 의장 성명 등을 계기로 하고 선전 전략을 전환하였다.

(1) 4·19 혁명 이전까지 주장해온 북괴의 통일 방안은 1954년 5월의 제네바 회의 이후 정세 변화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1958년 2월의 소위 정부 성명에서 일체 외국 군대의 철수 하에 실시되는 중립국 감시 하의 남북한 자유선거 경제 문화의 교류 및 통일 문제를 위한 남북 대표의 협상, 그리고 남북한 군대의 최소한 축소 등으로 그 골자를 재확인한 제네바 회의 때의 제안 그것이었다.

그러나 북괴는 4·19 직후의 8·15 기념일을 통하여 조선 민족끼리의 자체 해결을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와 문화 교류를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4·19를 통해서 체험되고 양양된 주체 의식이 통일 문제에서 혼란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억압되었던 자유 의식이 갑자기 반전적으로 분출하는 바람에 초래되었던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 던진 북괴의 유인책이었던 것이다.

(2) 5·16 혁명이 일어나자 북괴의 태도는 전례 없 이 경화되었다. 북괴는 4·19 혁명의 실패는 공산주의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하당 조직을 위한 특수 전파의 전개를 약속하면서 남한 주민들에게 결정적인 반정부 투쟁 및 반미구국투쟁을 전개하라고 격렬한 어조로 선동하였다. 이것은 혁명 정부와 국민과의 사이가 과감하고도 단호했던 혁명 정부의 부정, 부패, 일소 정책과 정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유리되리라는 관점에서 그 간극에 타고 들은 파괴책이었다.

(3) 그러나 작년 6월에 이르러 파주 린치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학생들의 데모가 연일 한미행정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나서자 북괴는 갑자기 이례적인 하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고 6월 22일,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및 남조선 사회 정치 활동가,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북괴 최고인민회

의서한과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그 주제 즉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을 전개한 데 대하여 보여주듯이 파주 린치 사건으로 급작스러이 양양된 민족적인 주체 의식을 반미 투쟁으로 전환시켜 볼 심산에서 소집된 형식적인 선동 집회였다. 이른바 이 서한에서 북괴는 ①미군 철거 투쟁에 전 민족적 역량을 단합하라고 선동하고, ②미군의 완전 철거 조건하에서 남북한 군대를 각각 10만 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시키며, ③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민족의 장래 문제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기 위한 협상을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안하였다.

그 후 10월 23일에 북괴의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그의 시정 연설을 통하여 또다시 통일 문제의 자체 해결과 경제 및 문화 교류 그리고 경제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토대 위에서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고자 주장하였다. 김일성의 이 주장은 4·19 직후의 해방기념일에서 김일성 자신이 내세웠던 제안과 똑같은 것이었다.

김일성의 이 새로운 주장이 전기한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보완하는 것인지 또는 그 대안인지는 명백치 않으나 여하튼 북괴가 민정 이양을 앞둔 한국의 정치 정세를 4·19 당시와 동일시하는 예측 하에서 혼란을 조장하기 위하여 미리 내세운 심리전적인 포석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4) 박 의장의 2·18 성명 이후에도 북괴의 공세 방향은 작년 10월의 김일성 연설을 구체화시키는 입장에서 한층 격렬하게 전개되었을 뿐이다. 다만 좀 색다른 것은 2월 18일의 평양 방송이 5·16 혁명의 주동 세력을 지칭하면서 경찰관을 포함하여 통 뿌리를 주한 미군과 혁명 정부에게 돌리라고 선동한 것과 2·18 성명에 대한 첫 반항인 2월 19일의 평양 방송이나 2·27 선서식 후의 2월 28일 평양 방송이 다같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당을 조직하여 인민정부를 수립하고 강조한 점이다.

전자는 혁명 정부 내에서 일어난 내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며, 후자는 4·19 혁명에서 얻은 그들의 정세 분석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상 열거한 북괴의 대남 심리전을 개관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은가 한다.

①북괴가 전개하는 대남 심리전의 당면 목표는 남한의 정치 정세에 적응하는 체제 하에 주력성 있게 수시 변동한다.

②북괴의 공세는 시사성을 무시하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③반미 감정의 조장과 미군 철수 투쟁 속에 대한 선동은 일관된 전략 목표로 되어 있다.

④북괴는 혁명은 물론 정치적인 데모를 중요한 정치적 전기로 포착한다.

⑤통일안에 나타나는 북괴의 당면 목표는 남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활 감정이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장하는 방향에서 민주적인 탈을 쓰고 적화에 유리한 최소한의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된다.

⑥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선전 기법 상에 나타난 북괴의 특징을 들어 보면 대충 아래와 같다.

①북괴는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미달된 생업 실적이나 저급한 운동 기록 그리고 범죄, 사고, 질병 등의 통계 등)과 사태(각종 범죄 사건, 재판과 검열의 결과 천재와 지변, 각종 교통 사고 등)들을 발표하지 않는 반면에 남한을 비롯한 적대 진영의 단점과 약점은 가능한 한 왜곡 또는 과장하거나 때로는 조작 날조해서 선전한다.

②인용 선전할 경우, 어느 정도 사실을 전달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하나 그렇지 못할 적에는 애매하게 제시한다.(예, 발행일 없는 신문명의 제시, 방송 일자와 시간 없는 방송국명 등)

③청년·학생과 군인들을 주요 선전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④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 걸쳐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 부정적 사태들을 모두 들추어 내어 취급한다.

⑤지도 세력과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는 적의에 찬 욕설을 퍼붓는다.

⑥북괴의 선전은 이론에 의한 사태 인식보다 감정에 대한 호소를 중요시한다.

⑦북괴의 경제 건설과 생산 통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과장된 숫자라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2. 적의 심리전 공세에 대한 군인의 자세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 백전백승한다.”는 고훈은 이 경우에도 여전히 진리이다. 상대방의 성격과 생리 그리고 그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움직임과 공세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분쇄하거나 분쇄하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적측의 주체에 대한 즉 공산주의의 체질과 그것을 실천해 온 과정에 나타난 전술 및 현 독재자의 개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적의 선전이 기도하고 있는 목표와 그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60년의 모스크바 성명으로써 재확인되었듯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최종 목표가 세계 내의 전역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것은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또한 소련이 아무리 평화 공존을 구가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전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대한 확고부동한 자기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있어서 안 될 것은 북괴의 독재자 김일성은 철저한 스탈린 주의자라는 점이다. 이것은 그의 모체인 소련을 배반하고 강경론자인 중공 쪽으로 가담하였다는 그의 행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이지만 그가 스탈린 주의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고 공산 국가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우상화 정책과 폭압 정치를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북괴가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세우고 있는 평화통일 노선은 6·25 남침이 실증해 주었듯이 그것은 하나의 기만적인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것은 북괴의 선전이 지닌 기본적 성격과 자세에 대한 인식이다. 북괴 선전의 기본 성격은 공산주의의 최종 목표에서 우러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전술이 표시하는 마키아벨리즘적인 사고가 곁들여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괴의 대남 선전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선전에 총집중되는 데 이 선전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수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의 대남 선전은 사실을 보도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적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괴의 선전에서 왜곡이나 과장 또는 허위, 모략, 선동 등이 없다면 그것은 도리어 공산주의적 선전 상식에서 벗어난 이탈 행위요, 반당 행위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불괴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심리전을 전개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대적 인식은 방어를 위한 소극적 방법이 될 뿐이다. 그런 까닭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듯이 적보다 우세한 심리전을 전개하여 적지역 깊숙이 파고 들어가 적 심리전의 국민적인 기반을 뒤흔들어 놓은 동시에 민주주의적 혼련과 자기 체험을 통하여 체득한 정신 무장의 강화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 있는 분쇄책이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민주주의적 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기 무장을 토대로 하고 선전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가 종합될 때 비로소 적의 심리전을 막아낼 수 있는 부동의 장벽이 구축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장벽이 아무리 거세고 교묘한 적의 심리 파동이 밀려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메아리만을 남긴 채 되돌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핵잠수함의 성능과 전략적 가치



‘조용히 그리고 깊이 잠수하고 있는 핵잠수함에 대하여 적절한 방어를 시행할 수 있는 병기는 현재 시험 수단에 있는 것도 없다.’

(세실 · 부라운로우)
 <미군사평론가>

조규언
 <해군중위>

제2차 대전 때만 하드레도 영국의 운명은 독일 해군의 잠수함작전으로 거의 절망의 지경에까지 놓이기도 하였다. 전쟁 말기에 합군이 만든 항공기의 Radar는 잠수함에겐 큰 타격과 위협이 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곧 고안된 것이 Snorkel System이고, 적에게 탐지되었을 시, 도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중 고속용 Walter Turbine이 있었으나 사용에 종전었다. 물론 Snorkel이라 하여도 전연 Radar에 접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부상 시에 비하면 목표물이 작은 것이므로 발견될 기회는 매우 줄어든다. 더욱이 Snorkel 끝에는 역탐 장치(Electronic Counter Measure)가 있으므로 항공기를 보다 속히 발견하여 탐지되기 전에 해중으로 살아진다. 이리하여 2차 대전 이후에는 잠수함에 Snorkel, Radar, Sonar를 장치하게 되어 잠수함이 항행하거나 부상하여서 항공기나 수상함과 대전하는 기회는 없어지고 말았으며 여하한 악천후 하에서도 오랜 시간을 수중에서 은밀적으로 작전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자력이 잠수함에 이용됨에 따라 잠수함은 가장 접촉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 무제한 기간 작전할 수 있으며, 종래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을 완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핵잠수함(SSN)의 능력 때문에 적의 상당의 SSN을 보유한다면 선단 제도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SSN은 그의 공격 및 수차의 재공격을 한 후에 잔존함을 추적하며, 대잠 부대를 피할 충분한 추진 추진력을 계속 갖고 있으며, 장래에 있어서는 좋은 기상 상태 하에서라 할지라도 구축 함형 함정은 SSN을 격파함에 소요되는 속력의 이점을 갖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Sonar(음파탐지기)의 발달로써 해상함이 최고 속력으로서 Contact를 보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리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SSN은 속력에 있어 우월성을 자랑하고 있다.

수상 함정은 물과 이보다 밀도가 훨씬 낮은 공기 사이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중대한 Energy의 소모를 가져오게 된다. 수상함의 외관 마찰(Skin Friction)은 중량이 같은 잠수함보다 적기 때문에 후퇴 작용(Drag)이 덜하나 속력이 빨라짐에 따라서 이 조파 작용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잠수함이 크기가 같은 수상함보다 후퇴 작용이 덜하게 되는 위치는 함체의 수선상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약 300피트의 길이와 약 2,000톤의 배수 톤수를 갖고 있는 잠수함(미국의 Guppy 호급)은 약 18노트 정도에서부터 수상보다 수중에서 항행할 때 마력이 덜 들기 시작한다.

수상 함정은 속력이 빨라짐에 따라서 조파 작용에 흡수되는 Energy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선수 형태에 관계 없이 어느 정도 이상의 속력을 내지 못하게 된다. 비교적 조용한 수면에서 항행하는 대형함조차도 이러한 제약 때문에 40-50노트 이상 속력을 낼 수 없다. 그러나 해상은 언제나 다소의 풍파가 일고 또 폭풍은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함선은 그 속력을 낮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함체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구축은 심한 파도 작용을 받기 때문에 대형 함정에 비하여 그 최고 속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때때로 15노트의 잠수함의 35노트의 속력을 가진 구축함을 앞지르는 것이다.

수중 함정은 공동 현상(Cavitation) 때문에 그 최고 속력이 제약을 받는다. 정확한 비교는 못 되지만 항공기에 있어서 음속 하에서 초음속으로 바뀌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Mach Number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인 것과 꼭 같이 공동 현상은 물의 깊이에 좌우된다.

잠수함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공동 현상때문에 후퇴하는 힘은 급히 약화되고 속력이 빨라진다. 원자력을 사용한 SSN은 현재 이 모든 이점을 겸비하는 동시에, 전술한 바 Energy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Diesel-Electric 잠수함은 잠항하여 최고 속력 시는 반시간이라는 단 시간 내에 전지는 모두 방전되며 이 동력 소비로써 단지 8-10마일 항진할 수 있고, 최저 속력으로 항진한다면 60-70시간의 전지의 지속력을 가지고 약 2백 마일을 항해할 수 있다.

SSN은 잠항 거리 및 지속력에 있어서 무제한하다. SSN의 이런 능력은 모든 해상 운송을 공격함에 있어서 막대한 이점을 가진다. 상기한 여러가지 이점을 가진 SSN에게 유도탄을 장치함으로써 전략적인 가치는 가일층 커졌고 SSN은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다. 작은 핵탄두에 파괴력을 집중 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적하 능력이 적다고 생각되어오던 잠수함이 전혀 판이한 존재가 되었다.

오늘날 그의 SSN은 한 대륙의 내연안지방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1개 잠수 함대를 아무 곳이나 배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일제 사격을 가하게 되면, 일대황폐화를 가져올 능력을 갖고 있다. 원자력은 수상 함정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 동시에 잠수함의 기동을 크게 만들었고, 신축성과 파괴력도 더 증가시켜 주었다.

잠수함은 그 행동 반경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의 우세한 공군이나 잠수함대 또는 수상 함대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수역까지(이 중에는 기후를 첨가할 수도 있다. 출몰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었고, 또한 그 중요성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노틸라스 호와 스케이트가 북극 여행에 성공했음에 비추어 북미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인 북빙양에 있어서까지도 잠수함이 장차 군사용으로는 물론 기타 보급이나 교역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극 지방과 남극 지방에 대한 SSN이 가진 특별한 의미는 크다. 이 두 지방은 위치뿐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대조적이다. 약 550만 평방리의 같은 크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남극 지방은 그 류를 보지 못하는 광량한 대륙으로서 알려져 있고, 북극 지방은 아세아, 구주나 북미 등의 주위 연안에서 2,000 Fathom 가까이 연장된 대양으로서 알려져 있다.

해양은 해군의 관할이고 해상력의 영역이며 SSN은 지구 표면의 70%를 해상력의 무대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척하여 놓았다. SSN은 거대한 빙산들 때문에 작전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유빙산에 의하여 행동이 저지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북극 지방이나 남극 지방에 있어서의 잠항 작전은 적도 지방의 그것과 별다른 점이 없다.

SSN은 얼음 밑에서 천기와 기온의 영향 없이 자체로 행동할 수 있으며, 두 상의 얼음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빙산 간격이나 얼음을 파괴하고 부상할 수도 있다. 광막한 빙판은 SSN의 항공기로부터의 인지나 공격을 은폐하여 주고 타 함선으로부터의 간섭을 방지하여 주기 때문에 SSN은 극한 지방을 피난처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극 지방의 전략상의 중요성은 다른 면에 있다.

평화 시의 극한 지역 수송로는 항공기의 공격로나 유도탄의 탄도가 된다는 것은 조기 경보 계통에 의하여 증명됨에 따라 이러한 조기 발견 초소를 가동하고 확실한 Radar 초계 잠수함과 같은 것의 이용으로 더 연장시키려는 필요가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런 임무 수행을 위하여서는 수로 기능 탐색과 구조, 항해 Beacon 그리고 통신중계소 등이 요구되나 극한 지방에서 이 활동할 수 있는 SSN은 이러한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천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로는 대양 간의 잠수함의 조속 배치를 허용하며 가능한 적에게 중요한 해상 통로나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터어 준다.

북해 상로에 의존하고 있는 소련의 경제와 군사의 중요성을 몇 년 동안의 고심의 개발 조직으로서 명백하여 계속적인 노력은 그들의 최초의 선박인 쇠빙선의 조합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제2차 대전 시 독일의 잠수함이 가장 강력히 저지한 것도 이 교통로이며, 현재에도 이 수송로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잠수함 외엔 없는 것이다. 또한 이 빙간의 교통로는 항상 확보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상되는 것은 잠수함에 의한 수송일 것이고, 그러한 경우 이에 대한 대적 방법은 SSN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북극의 지리적 조건이 전략적 중요성을 내포함에 따라 남극에 있어서의 SSN의 필요성도 동등한 가치를 나타낸다. 북극에 있어서의 유리한 능력(약 천후나 수상 하에서의 활동)은 남극에 있어서도 남방 대륙의 끝까지 인원, 장구, 물자의 수송을 용이케 한다.

남극에 있어서의 자원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전략적 의미에서의 영원한 기지를 기치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런 경우 SSN 항공기, 유류 공급, 차륜 및 주거 물자 등의 수송은 가장 유능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남극 지방의 개척에 대하여 크게 기여하는 바는 SSN의 이 지방의 과학적 정보 모집에 대한 능력인 것이다. 특히 현재 극천후의 변화를 좌우하고 있는 해양, 수로학 상의 여러 자료를 모집할 수 있는 가치는 큰 것이다.

반면 소련 군사기들의 잠수함에 대한 고려에서 Raymond Garthoff 저 "Soviet strategy in the Nuclear age"를 인용하면 소음의 군사 이론가들은 미래의 전면 전쟁에 있어서는 구아 대륙 주변 작전 지역 특히 구라파에서 중요한 장기적인 전역을 치루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미래전에 대한 소련의 이러한 전망으로 볼 때 서구와 북미 간의 해상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소련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소련 해군의 안드레프 소장은 그의 논문(1957)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 전쟁은 방대한 군대로서 수행되는 것이다. …… 그리고 그러한 방대한 군대를 동원하는 전투 상황에서는 병력, 무기, 탄약, 연료, 식료, 장비 등등의 계속적인 보강과 보급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와 NATO 동맹들은 주로 도양 보급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소련)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서 광범위한 전투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문제의 초점은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그의 전쟁 수행 가능성이 원활한 해상 보급 작전 유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보급은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NATO 군이 특수한 사정에 처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소련은 전략적 방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이러한 전략적 목표에 대하여 대륙 간 공격을 하는 수단으로서 잠수함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샤프쵸프 해군 대우는 "우리 견해로 볼 때 잠수함은 원자 무기에 대해서 가장 약점이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해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 뿐만 아니라 기지에 있는 잠수함을 발견하기는 곤란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잠수함 기지에 대한 적의 원자 공격이 있을 때라도 잠수함들은 잠수하면 그 위험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기지 내에 분산되어 있거나 해양에서 작전 중인 잠수함에 대하여 원자 공격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이로 인하여서 파괴되는 잠수함의 수는 1척 이상을 넘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있으며 단 1척의 잠수함은 그러한 원자 공격을 유지하는 좋은 목표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공격 면을 볼 때, 서방측 열강의 가장 커다란 지리적 요점을 비롯하여 모든 기지주요 국가가 모두 해안선에서

항공 기상이란 무엇인가?

200리 이내에 대 인구 중심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집중해 있는 곳에는 주요한 각종 공장을 비롯해서 수송, 통신 연구와 발전 시기와 기타 많은 군사 시설 등이 집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경제의 중심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1950년도의 인구를 인용하면 봉쇄, 불가능한 가장 가까운 해면에서 150마일 사정을 가진 유도탄을 발사하면 Europe 도시 인구의 57%가 그 파괴 범위에 들어가나 소련의 그것은 불과 13% 밖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100마일의 사정을 가진 유도탄을 이상적인 지점에서 발사하면 대부분의 소련 인구 중심지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 환언하면 사정이 200마일인 유도탄을 잠수함에서 발사하게 되면 구주 각국과 미국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나 소련에 대하여 동일 정도의 위협을 주려면 이보다 더 장거리 유도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가능하다. 그러나 사정이 짧을수록 유도탄의 정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소련이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이 사정과 정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ICBM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도탄 발사 비용 잠수함의 중요성은 감소되지는 않는 것이고, 장래에 있어서도 특정한 목표를 정확히 때릴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인 군사상의 이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의 첫 공격을 받고도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인 것이다. 실사 육상에 있는 유도탄 기지를 간소화할 수 있고 또 그 일부를 은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은 이를 쉽사리 알아낼 수 있을 것이며, 장기 계획 수립으로 이것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SSN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견고한 콘크리트보다 더 훌륭한 방벽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SN은 대단히 기동을 갖고 있는 동시에 바다 자체에 의하여 어느 사도의 방호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전후 좌우 상하가 전부 바다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핵 폭발로 인한 방사성 낙하물이나 열과 방사능의 직도적인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 유도탄 발사용으로서의 SSN의 또 하나 중요한 가치는 정치적으로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점이다. Pokalis SSN을 공해상에 배치하는 데는 아무 조약도 필요없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정책에 어떠한 불화를 일으킬 요소가 없이 우리의 취회에 둘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장차 예상되는 핵 후대의 전쟁에 있어서 SSN이 담당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수송용으로서의 역할이다.

△화차에 실려온 참고서

소설가 디켄스(1812-1870)는 1848년, 이도 이야기를 기고하였을 때, 프랑스 혁명이 배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저자 카아라일에게 참고 서적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서적을 만재한 2대의 화차가 도착되었다. ‘희망하시는 책 보내드립니다.’라는 카아라일의 편지와 함께...

디켄스는 크게 감격하였다.

그런데 디켄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디켄스는 카아라일을 추도문 속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씨는 전신 한치한치 모두가 정직으로 꾸며진 인물이었다……”

1. 항공 기상이란 무엇인가
2. 고기압과 저기압
3. 항공 기상 요소와 그의 영향
4. 항공 기상 업무
5. 전망

최우식(崔祐植)
〈공군중령·중앙기상부〉



1. 항공 기상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항공기상학은 응용기상학의 1분과로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학 부분을 항공의 입장에서 취한 것이었다. 항공기의 성능이 저급하였던 때에는 기상의 여러 문제도 안전 비행을 위한 기상의 위험을 저하시키는 것에 주력하여 왔다.

즉, 시정(Visibility)과 돌풍(Gust Wind) 등의 기상 현상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일반 기상학의 범위를 넘지 못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항공기 성능이 고도화되어 고속도, 고고도, 장거리 비행이 일반화되고 군작전, 일반 상업 비행에 더욱 기상의 영향이 커짐으로써 경제적인 비행과 비행 목적의 안전한 달성, 그리고 속도에 따르는 시간의 제한 및 유체역학적인 문제 등이 중요시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항공기상학이 체계화되었다.

고도에 있어서도 제트 발동기 실용에 따라 4,000-5,000피트의 성층권 하층에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항공기상 요소로서는 기상 현상에 적응 비행하는 기술(계기비행)이 발달함에 따라서 대기 중에 일어나는 가시적인 현상 및 무형적인 대기 운동 전반으로 증가되었고 분석 지원의 정밀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 기상의 시대적인 발전 과정에 대하여는 과학의 첨단 기술을 구사하는 공군의 일원으로 누구나가 잘 알아야 하겠기에 편집자의

요구대로 장병 여러분들의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2. 고기압과 저기압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공기가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것을 기압이라고 한다. 항상 일정한 크기로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밀도 차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으로서 공기가 클 때는 기압이 높고 적을 때는 기압도 낮다.

이와 같은 변화를 지표면 상의 인간으로서는 감지키 곤란하며 급격한 큰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인체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기 중의 제현상 구름, 비나 눈, 안개, 바람 등은 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1) 고기압(High pressure-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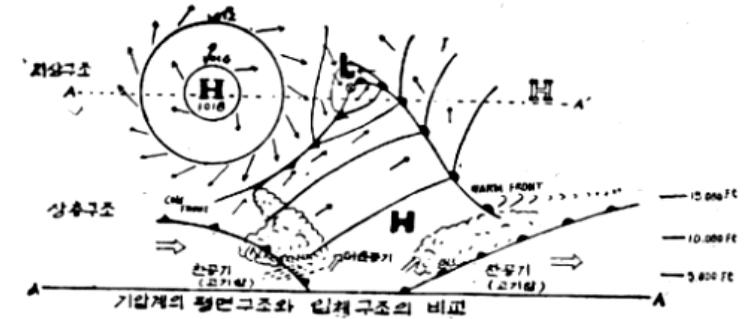
고기압은 어떠한 표준 기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위보다 높은 기압을 말하며 가장 높은 곳을 고기압 중심이라고 한다. 기상에서 기단(Air Mass)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광범위하게 평면적으로 같은 물리적 성질을 가진 공기의 덩어리(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기압은 하나의 기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고기압은 역학적으로 안정된 공기의 집단이므로 대체로 좋은 날씨를 보여주는 것이 상례이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기류는 시계 방향으로 중심에서 밖으로 유출되며 고기압 주변에서 기압 경도에 의하여 바람이 강하다. 이것은 겨울철 눈이 내린 후 개이면서 심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2) 저기압(Low Pressure-L)

저기압은 상대적으로 주위보다 낮은 기압을 말하며 가장 낮은 곳을 저기압 중심이라고 한다. 이는 물리적 성질이 다른 두 개 기단의 접촉에서 기류의 모임에 의하여 형성되는 조직으로서 저기압을 가지고 기단이라고 하지 않으나 열대성 폭풍우 또는 태풍과 같은 것은 기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차고 습기가 없는 공기와 덥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부딪치면 불연속이 형성되며 공기가 혼합 불안정하게 되어 공기에 의한 구름, 비, 눈, 빙작 등의 기상 현상을 동반케 된다.

기류는 반시계 방향으로서 중심으로 쏠려 들어가게 되어 중심에 갈수록 강하여진다. 한편 불연속선(Front)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찬 공기가 활성을 띄우고 더운 공기를 밀고 가는 한랭 전선(Cold Front)과 더운 공기가 활성을 띄워 찬 공기를 밀고 가는 온난 전선(Warm Front)이 그것이다. 불연속면이 지표와 닿은 곳을 불연속선 또는 전선이라고 한다.



3. 항공 기상 요소와 그 영향

모든 기상 요소는 고기압, 저기압에 수반되며 비행에 관련된 기상 현상을 항공 기상 요소라고 한다. 이 중 비중이 큰 것은 시정, 시일링, 바람, 기온, 기압, 요란, 빙작 및 제트 스트림이다.

(1) 시정(Visibility)

시정이란 수평적으로 목표물을 볼 수 있는 한계 거리로서 직접적으로 항공기 이착륙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연기, 안개 또는 심한降雪, 강우 등 공기의 혼탁물에 의하여 장애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비행장 내의 관측소를 중심으로 4개 상한의 수평적인 가시거리 중 둘째 번으로 좋은 불한의 시정을 우시정이라하여 기지 대표 시정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면에서는 접근하는 활주로의 시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항공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간의 여유가 없고 이로 인하여 빠르게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관측이 요구됨으로써 활주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신 대기 중에 빛을 통과시켜 빛의 투과율에 따라 시정을 환산하는 전자 자동 시정기(Transmissometer)를 고안 실용케 되었다. 활주로 끝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투광기(Projector)와 수광기(Receiver)를 설치하고 기상대에는 지시기록기(Recorder)를 두어 자동적으로 지시 기록케 하여 24시간 계속 정확한 시정을 결정할 수가 있어 비행 안전에 많은 땅을 한다.

우리 공군에도 뒤에 말할 전자자동운고측정기(Ceilmeter)와 함께 동양에서 가장 빠른 통용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착륙할 시 접근하는 상공에서 활주로를 내려다보는 한계 즉, 접근시정(Slant Visibility)의 관측이 불가능하며 조종사 판단 외에는 해결키 곤란하다.

(1) 시일링(Ceiling)

시일링이란 영어로 천정이라는 뜻으로서 항공 기상에서 말한다면 수직 시일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시일링의 높이는 항공 기상의 중요한 요소로서 취급되고 있다. 구름이 여러 층에 걸쳐 있을 때 아래층에서부터 하늘을 가리고 있는 차폐량을 합하여 6/10 이상 되는 양에 달하는 구름 층의 고도까지를 시일링이라고 한다.

안개, 비, 눈, 연무에 의하여 구름의 높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수직 시정 그 자체가 시일링이 된다. 시일링은 시정과 같이 항공 교통 관제 시 비행 규칙의 한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서 그의 관측이 역시 중요하다. 구름의 두께에 따라 항상 운중을 계기 비행하느냐 운상을 비행하느냐의 비행 조건이 달라진다.

그리고 시일링의 고도가 낮아서 지형에 비추어 위험하거나 Radar에 의한 항공 교통 관제가 불가능할 때는 그 정도에 따라 비행이 불가능하다. 시일링을 관측하는 데는 보통 기구를 띄워서 기구가 구름 속에 들어가 버리는 높이를 시일링으로 결정하였으나 정확성이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전자자동운고측정기(Ceilmeter)를 사용하여 관측하고 있다. 이것 역시 활주로 구름 높이의 중요성에 따라서 활주로 끝에서 접근 지점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투광기와 수광기를 설치하여 빛을 곧바로 위에 투광하면 운 조동의 일정한 주파수에 변조되어 광선은 구름 밑에서 반사되며 제일 강한 부분은 수광기, 광전관에 잡히고 나타난 고도각이 기록기에 기록되어 높이를 읽을 수 있다. 이 장비도 금년 내로 주요 기지에 설치케 된다.

(3) 바람(Wind)

지상 및 상층 각 고도의 바람은 각기 항공기 이착륙, 순항, 상승 및 하강에 크게 영향을 가져오는 항공 기상의 중요요소이다. 바람이란 공기 이동의 벡터(Vector)량이며 방향과 속도로 정한다.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말하며 16방위로 구분하고 풍속은 속도로서 m/sec 또는 Knot로 표시한다. 1Knot는 약 2 m/sec에 해당된다. 지상의 바람은 주로 방향과 각차에 따라 이착륙에 영향을 준다.

활주위에 평행한 바람은 이륙 거리 또는 최대 이륙중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온다.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길이에 구애를 받게 될 때는 활주로 방향에 평행하고 정확한 풍속치가 요구된다. 정풍 10노트의 증가는 이륙 중량을 1,000LBS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일정 중량 하에서 이륙 거리를 천 피트 단축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활주로 방향과 각차를 가지고

불어오는 측풍은 항공기 착륙의 위험을 가져오거나 어느 한계에 달하면 불가능하게 한다. 상층 특히 비행 고도의 바람은 지정된 항로에서 편류케 하거나 또 정확히 이용하면 연료를 절약하면서 비행할 수 있고 예비 연료 탑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더욱 정밀한 관측과 예보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KTS 내외의 오차를 면할 수가 없다. 지상으로부터 순항 고도까지의 평균풍도 상승 또는 하강 시의 편류 그리고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는데 필요하며 이와 같은 상승풍(Climb Wind)과 하강풍(Descend Wind)은 각 기지 관측치로써 쉽게 이용된다.

(4) 기온(Temperature)

활주로의 기온은 항공기에 주어진 이륙 중량으로 이륙하여 주변 장애물을 높이 50피트 이상으로 피하는 데 필요한 활주로 길이를 결정하는데 활주로의 기압 고도나 활주로 방향의 바람 분력과 함께 필요한 것이다. 기온 자체 변화만 고려하면 제트 항공기가 규정 총 중량으로 이륙할 때 화씨 5°의 차이는 약 2백 피트의 이륙 거리, 또는 천 파운드의 이륙 중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MACA 조사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비행 고도 있어서의 기온은 비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압 면의 높이를 결정하여 주고 비행 고도의 풍향 풍속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5) 기압(Pressure)

제트 항공기 비행에 있어서 기압은 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 지상 기온이 일정할 때 지상 기압 10m의 오차로 인한 이륙 거리의 영향은 기압이 일정할 때 기온 5° F의 오차에 해당되며 2백 피트의 이륙 거리, 천 파운드의 이륙 중량의 오차를 초래하는 것이다. 표준 대기로서 결정한 기압 고도는 이륙에 요하는 활주 거리, 또는 최대 이륙 중량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기온, 바람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다.

(6) 요란(Turbulence)

대기의 흐름에 있어서는 지표면, 마찰 또는 기온의 차, 그리고 기류 방향의 엇갈림에 의하여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흐름의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요란이라고 한다.

이 요란 속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기체가 몹시 흔들리고 심하면 조종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요란을 받는 정도는 항공기 속도가 클수록 하다. 요란 현상은 역학적인 영향에 의한 것, 열적 영향에 의한 것, 그리고 불연속선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학적인 영향에 의한 대표적인 것이 산악파(Mountain Wave)로서 이는 강한 바람이 산맥에 불어올 때 넘어 풍하 쪽에는 지형성 입파(중력파)아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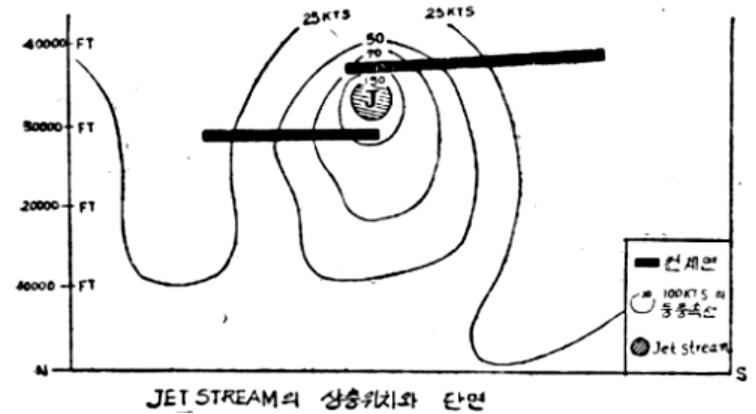
쏟리는 바람과 위로 솟는 바람)가 생긴다. 이러한 중력파가 발달하면 극단적인 수직 하강 기류에 의한 요란으로 비행이 위험하며 경비행기는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추락 사고를 일으킨다. 하강 기류의 속도는 1분간 5천 피트 정도이다. 한편 일사에 의하여 지표면에 접한 공기가 더워져 가벼워지면 상승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열적 요란이라고 하며 햇볕을 직접 받는 산의 사면, 평지, 사장에서 심하고 삼림과 초원지에서는 약하다. 이와 같은 요란은 지상으로부터 4천-6천 피트 심할 때는 만 피트까지 달하는 경우가 있다. 전선 부근에서의 요란은 성질이 다른 기단의 경계에서 양자의 기온 또는 습도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온과 습도의 차이가 클수록 요란의 강도는 커진다.

(7) 빙착(Icing)

빙점(0°C) 이하의 기온 하에서도 안정도에 의하여 얼지 않고 부유하는 과냉각 수적이 구름 속에 있다. 과냉각 수적으로 된 운중을 비행할 때 수적이 기체에 부딪혀 빙결하는 현상으로서 -02°C~08°C의 적운형의 구름 속에서는 맑고 표면이 미끄러운 밀빙(Clear Ice)이 발생하며 -08°C 이하의 다운형의 구름 속에서는 희고 표면이 거친 조빙(Rime Ice)이 발생한다. 빙착은 순간적으로 발생되며 공기와 접하는 항공기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난다. 구름 속을 비행치 못 하던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계기 비행이 성행되는 오늘날에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미 공군 실험에 의하면 1/2inch의 빙착이 익전면에 발생하면 항공기 추력이 1/2 정도로 감소된다고 하니 실속 사고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대기의 상태를 분석하는 단열선도(Adiabatic Diagram)에 의하여 쉽게 예보할 수 있고 실제 비행한 조종사의 보고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8) 제트스트림(Jet Stream)

2차 대전 중 발견된 것으로 대류권과 성층권의 권계면 부근에서 약 150-200 노트의 속도로 좁은 폭을 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는 기류를 발견하여 이것을 제트 스트림이라 부르게 되었다.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류권과 성층의 기온 차로 인한 대기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사계절을 통하여 위도적 위치만을 변화하면서 존재하고 있고 겨울에 가장 강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겨울 중 신의주 지방으로부터 부산 지방으로 3만-4만 피트 상공을 흐르고 있어 고공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이용한다면 경제적인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여름에는 남만주에 있으므로 이용할 수가 없고 근간 태평양을 횡단하는 항공기들이 이용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다.



4. 항공 기상 업무

항공 기상 업무는 국제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 어떠한 지역에만 국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 연쇄 업무이며 국제적 협약에 의한 공동 과업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지고 상호 협조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업무의 세부 절차도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이를 모든 나라가 준수한다. 항공 기상 업무는 기상 현상을 관측 전달하고 이를 분석 예보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기상과 다른 것은 항공 기상 요소를 관측 대상으로 하며 이를 수직적으로 예보하는 것이다.

(1) 항공 기상 관측(Observation)과 전달(Dissemination)

국내에서의 관측은 매시 정각을 기하여 정시 관측을 그리고 기상 요소가 불규칙적으로 변하여 비행에 주의를 하는 상태가 되면 어느 때든지 특별 관측을 실시한다. 정시 관측 시에는 하늘 상태(구름의 양과 높이) 시정 및 시정 장애 현상, 기압, 기온, 노점 온도, 풍향 풍속, 고도수정치, 기타 기사를 포함하며 특별 관측에는 기압, 기온, 노점 및 고도수정치가 생략된다. 이러한 관측치는 곧 Inter Phone을 통하여 기지의 관제탑GCA, 조종사 대기소, 작전실에 전달되고 기상통신소를 통하여 중앙기상부에 송신하며 중앙기상부는 각 기지의 관측치를 종합하여 국내외로 송신한다. 국외의 관측치도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다.

(2) 예보(Forecast)

일본, 중국, 소련 동남아 각지로부터 전달되어 온 관측치와 국내의 관측치를 종합하여 지상으로부터 200mb (40,000 ft)까지의 천기권을 작성하게 되며 기압계(고기압, 저기압, 불연속선)를 파악함과 동시에 기상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외에

단열 선도나 수치적 가감법으로 얻은 보조 선도로서 지상 및 상층의 항공기상 요소 즉 구름의 높이와 두께, 시정 및 시정장해물, 지상과 상층풍, 지상 및 상층 기온, 요란, 빙착점 등을 수치적으로 예보하게 된다. 예보는 집단 또는 개인 브리핑을 통하거나 녹음기를 통하여 기지 내의 장병들에게 전달한다. 미공군에서는 기상 브리핑 전용의 Television을 설치하고 있다.

(3) 예보의 문제점

예보 업무는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완성된 이론이 없으므로 인한 예보의 부정확이며 둘째 지구 표면을 덮을 만큼의 관측치가 없다는 것들이다. 먼저 관측소를 증설하여 관측치의 공백 지대를 없애고 계속적으로 정확한 관측치를 얻어야 한다. 특히나 한국 실정으로서 기술 인원의 부족과 기압의 통로인 황해상의 관측치를 얻을 수 없는 점 입체 관측을 위한 Radar가 없음으로써 더욱 어려운 입장에 있다.

5. 전망

미사일과 인공위성의 발달로 인간의 우주 여행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날 항공 기상의 개념은 제한된 고도까지의 범위에서 벗어나 과거 탄도 기상학 분야로 취급하던 우주권의 고공 기상까지도 취급하게 되었고 점진적인 실천을 보이고 있다. 한 편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항공기 속도에 비례하는 기상 단층의 신속 정밀이 요청됨으로써 현재까지의 관측법을 벗어나 활주로 접근 지점에 관측을 두어 시일링, 시정, 바람을 전자장비로 자동 관측케 되었다. 그 외에 재래식 장비를 사용하여 관측하는 지상 및 상기온, 습도, 고도별 풍향 풍속이 전자장비에 의하여 판단 없이 관측케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 지의 Tiros, 금년 중에 발사될 Nimbus, 64년도에 발사될 Aeris 인공위성의 Television 카메라는 수천 평방리 지역의 구름 분포, 기압계의 이동을 계속 찍어서 송신하고 탑재된 적외선 측정 장치는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훑어가면서 태양열 방사 및 폭사를 알아내어 기압계(주로 폭풍우) 발생 미후를 탐지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실용화되는 그때부터는 현재와 같은 복잡한 과제를 거치지 않고도 장기 예보가 우리의 생활면에 그리고 항공면에 전하여 올 것이다. -끝-

◇ 때와 장소에 따라

비이콘스펠드경, 즉 디스레리(1804-1881)가 1878년의 백림회의에 영국 대표로서 출석하였는데 의장인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앞에서는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 담배를 태웠다. 수원의 한 사람이 주의를 시키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상대가 자기를 경계하는 것으로 야단 말이야.’

산으로 가는 마음



남정현(南正鉉)
〈공군소령〉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에도 등산이 많이 보급되어 등산 인구가 많이 늘게 되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책망하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산을 즐기고 그 품속에 뛰어들어 드는 것은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고 또 산을 찾음으로써 평범한 생활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데릭·해리슨(Frederic Harrison)은 “우리들의 현재의 세계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 세계이다. 그러나 자연스럽고 행복한 세계는 아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단순한 행복과 건강 속에서 젊고 발자한 생활의 단편을 모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때때로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위대한 도안을 그리기를 원하며 또 한 때때로 시인이 우리들의 귀에다가 그들의 시를 단조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들의 감정 깊숙한 곳에 확 타오르는 무엇이 있도록 읊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인간은 때때로 그의 모든 지식과 공지를 지닌 채 그가 이 신비스러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신비스러운 하나의 원자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산을 알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년 전에 한 말이다. 한 번이라도 산을 자기의 생활 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이 불안과 공포, 증오와 투쟁으로써 잔뜩 어두워진 세계에서 얼마나 참다운 진리로서 울리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인간 역사에서 산과 등산 활동이 인류에게 오늘날처럼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가 그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의 광대하고 조화된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구성 요소의 무한한 다종 다양성과 전체의 놀랄만한 통일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를 우리는 등산 활동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등산이란 일련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스포츠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과 육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점에서 등산은 분명히 스포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산에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있다. 등산에는 완전한 규칙이 없으며 대인간의 경쟁이 있을 수 없고 또 관중이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일반 스포츠와는 성질이 다르다.

등산에는 성문화된 규칙이 없다. 이것은 경쟁이 있을 수 없는 등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마터호른(Matterhorn)이나 에베레스트(Everest)과 같은 특수한 경위의 예외는 있었지만 원래 등산에는 경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산가는 타인의 실수나 불운을 바랄 필요가 없으며 단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여 성실하게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 등산에는 관중이 없으며 심판관도 없다. 아무도 등산하는 사람의 뒤를 쫓지는 않으며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점수를 매기려 하거나 심판관이 되려 하지 않는다. 등산가는 그 자신이 바로 그의 주관자이며 그의 행위에 대한 상이나 벌은 그 자신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등산에는 왕도가 없다. 등산은 등산가의 정확한 지식과 노련한 기술, 축적된 경험과 불굴의 투지, 끊임없는 인내와 착오 없는 판단에 의해서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등산이란 일종의 도피 행위이다. 그것은 삶의 소란과 복잡 다단성, 불화와 슬픔으로부터 도피이며 아스팔트·정글로부터의 도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하고 심원한 의미에서 말할 때 그것은 현실을 벗어나는 도피가 아니고 현실로 뛰어드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등산이란 산을 모른다는 등반 행위 자체로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글을 오르고 싶어하고 오르려고 노력한다는 그 사실이며 또 이것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산을 오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이 그러한 투쟁을 전개할 때에 그는 벌써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등산이란 지구상의 높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며 이것은 무지와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귀정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 세계에서 승리를 전취하기 위하여 싸울만한 가장 가치 있는 투쟁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혼자서 또는 삼삼오오 짝을 짓거나 대규모의 원정대를 조직하여 지구상의 고지역에 대하여 도전해 왔으며 지금도 세계의 곳곳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알프스의 깎아지른 듯한 암벽과 번쩍번쩍 빛나는 빙탑을 올랐으며, 눈보라와 혹한이 엄습하는 코카스에서 새로운 처녀 지역을 개척하였다. 그들은 록키와 안데스의 주름진 능선과 아프리카의 미담봉을 찾아서 수천 수 만 리를 여행하였으며 알래스카의 빙결된 산속과 중앙 아세아의 광대한 고원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등정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루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시련과 곤란을 극복하고 위에 올라서서 환희에 가득 찬 승리감을 맛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내 등정을 이루지 못한 채 실망 속에 쓰러린 패배의 고배를 마셨으며 때로는 죽음에 휩쓸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이나 패배한 사람이나 다 같이 오랫동안의 시련을 겪었으며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 투쟁해야만 했다. 그러면 인간은 산에서 어떠한 투쟁을 전개해 왔던 것인가?

×××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물과 인연을 맺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인간이 산악을 찾아 발길을 옮기는 것은 일종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간의 생리적 향수라고 등산의 동기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등산의 역사는 오랜 것이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짝이 나 깊숙한 근원에게까지 더듬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히말라야 산록에 사는 티베트인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주민들이 그리 하지만 고대인들은 또울 신이나 악마의 은거지로 생각하여 신성시하거나 산에 대하여 일종의 공포심을 품고 있었다.

시(詩) 조개

하사 박연(朴延)
〈공사교 인사처〉

바닷가 조개는 나그네의 침묵.
철따라 외딴 섬에 피어나는 향수.
고독하고 우아한 선 눈망울로.
내 고향 어딘가 편지하고 싶네.

그리하여 많은 희랍 신화나 신구 약 성서의 이야기, 세계 각국의 전설 등이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희랍이나 로마 시대에도 등산을 했던 일이 있었음을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은 극히 드물었다. 등산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한 최초의 것은 몽·떼규(Mont Aiguille : 2,097 M)등반으로서 프랑스의 앙뜨완느·드·빌(Antoine de Ville) 등이 1492년에 이룬 것이다. 몽·떼규는 그리 높지는 않으나 그 초등반 이

후 3, 4세기 동안 다시 등정된 일이 없었을 만큼 곤란한 등반대상이었으니 당시에 이 등정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다.

그 후 문예 부흥기에 이르러 제법 조직적인 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때에는 콜럼버스(Columbus)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을 비롯하여 바다 건너 수평선 너머에까지 다다르는 많은 모험적인 항해가 이루어졌었고 인류의 생활에 커다란 혜택을 줄 과학 문명의 진보가 시작되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탐구심이 마음속 가득히 부풀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높은 위에도 과학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될 무엇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보게 된 알프스에 대한 탐험의 선구자로 나선 사람이 레오나르다빈치였다. 그러나 그는 과학적 관측을 위하여 산을 올랐던 것이며 등산을 목적으로 올랐던 것은 아니었다.

산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품고 또한 순수한 등산을 목적으로 알프스를 답사한 사람은 유리히 대학의 교수였던 콘라드·게스너(Conrad Gesner)였다. 그는 산악대학의 한 선구자로서 산악미와 등산을 높이 칭송하였으며 또 필라투스(Pilatus : 2,123 M) 등을 등반하여 사람들의 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데 공헌하였다.

근대적 등산은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Mont Blanc : 4,804M)이 등정된 1786년으로부터 비롯한다. 몽·블랑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3국의 접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경이 꽤 장엄하고 수려하기 때문에 18세기 중엽부터 많은 관광객이 샤모니(Chamonix)에 모여들고 있었다. 그 관광객 중에 드·소슈르(Benedict de Saussure)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빙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1760년 샤모니(Bhamonix)에 왔던 것인데 몽·블랑을 보고는 그 경관에 매혹되어 곤등정의 꿈을 품게 되었다.

시(詩) 바닷가 언덕에 서면

상병 노수
<제107기지병원>

—이렇게 머리카락을 훑날리며
바닷가 언덕에 서면.

아쉬운 님이라도 머언 길을 보내는 양 하
얀 손수건이라도 흔들고 싶은 마음은 터
영 비어지는 가슴은—.

하지만 언제부턴가 당신의 이미지는
외로운 마음들을 벗하며,
가난한 마음들을 살지게 하는
화사한 습성이 있다. 그
해심(海心)에.

허어연 썰물이 지면
나는 또 한번 나의 서러움에 젖어
머언 수평선 너머로
미소처럼
미소처럼
하이얀 손수건을 흔든다.

(Aapinism)의 여명기가 시작되었다.

소슈르는 빠까르 등이 몽블랑을 등정한 다음 해에 20여 명의 파티를 구성하
여 여러 가지 관측기구와 식량을 가지고 이를 동안에 몽블랑을 등정하고 천문
관측을 하였다. 소슈르는 이 뒤에도 몬테·로자(Monte Rosa : 4,742M) 등 수개의
고봉에 도전하였다. 그는 순전히 과학적인 목적을 위하여 등산하였으나 그의
글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여 그를 근대 등산의 개척자로 만들었다.

영국의 등산가들이 알프스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뷰포이(Beaufoy) 대령이
소슈르에 바로 뒤이어 넷째 번으로 몽·블랑의 정상을 다녀간 후부터였다. 이
들 영국 등산가들의 활동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것이어서 그들은 알프스 인접
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등산가들을 압도하고 알프
스 개척의 선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의 하
나는 영국의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등산을 순수한 스포츠로 생각하고 즐
겼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과학적 실험이나 기상 관측과는 관계없이 다만 산을
오르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 산 저 산을 찾아 그들의 정열을 퍼부었던 것
이다. 이들 영국의 정열적인 알피니스트들은 1857년에 세계 최초의 산악 단
체인 알파인·클럽 (Alpine Club)을 런던에 조직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들은 더
욱 눈부신 활동을 알프스 전역에 전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른바 피크·헌팅
(Peak Hunting)의 풍조가 유유럽의 산악계를 휩쓸게 되었다.

이리하여 수년 동안에 알프스에서 백여 개의 응봉이 등정되었으며 베테호

그리하여 그는 샤토니에서
몽·블랑에 현상을 걸고, 최초
로 등정한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사람들이 산
에 대하여 대단한 공포심을
품고 있을 때였으므로 그러
한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등
반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
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뒤
부터야 등반을 시도하는 사
람이 몇 명 나왔으나 이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소슈르 자신도 1761년부터
1785년까지 5회에 걸쳐 등반
을 시도해 보았으나 성공하
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786
년이 되었다. 그해 여름에 샤토
니에 내과의사이며 등산
애호가였던 미셸·가브리엘·
빠까르(Michel Gabriel Paccard)
와 가이드였던 자크·발마
(Facquès Balmat)가 드디어 알
프스 최고봉의 등정에 성
공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
로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근대적 알피니즘

시(詩) 조국에 부치는 노래

일병 김동원
<제205기지병원>

머언 동방
해돋는 나라를 열어
기리
홍익하신 얼이길래

3천리
꽃처럼 어여쁜 자연이 피고
겨레는 흰 옷을 즐겨
평화를 살았거니

비단강 곱게
영원을 누비며
꽃피고 새 우는 봄이 찾아와

내 나라
끝없는
인생의 꽃이어

때로
잔인한 침략의 물결 속에서도
오히려
수련한 얼굴이어든

른 (Wetterhom : 3,720 M)에 발을 디
딘 1854년부터 마터호른 (Matterhorn
: 4,409M)이 등정된 1865년까지 십
여 년에 걸친 알프스 등반의 황금
시대가 이루어졌다. 이 시대의 등
산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5
년 동안에 8회에 걸친 도전 끝에 마
터호른 초등정을 이루어 알프스 황
금 시대에 막을 내리게 한 에드워드
드·윌퍼 (Edward Whympe)였다. 윌
퍼는 마터호른 등반 후 하산 시에
등반자 3인이 추락하는 참변을 당하
게 되었는데 그는 이 때에 심한 심
적 충격을 받아 그 후로는 그린랜드
와 남미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는
안데스산맥의 침보라조 (Chimborato
: 6,260M), 코토팍시(Cotopaxi : 5,890
M)등의 초등정에 성공하였으며 다
시 캐나다인 록키 개척자의 한 사
람이 되었다.

알프스 등반의 황금시대가 지나가
자 등산가들은 처녀봉을 잃어버리
게 되어 새로운 방향의 움직임을 보
이게 되었다. 그것은 영국의 등산
가 맘메리(Mumme ry)가 말하는 보
다 더 곤란한 등로에 의한 초등정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맘메리
즘 (Mummerism)이란 것이다.

맘메리는 “등산이란 언제나 새로운
등반을 찾는 사람을 말한다. 등산의 진수는 대자연의 이름다움이나 산정에 도
달하는 희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아무도 밟아 본 일이 없는 더욱
어렵고 곤란한 등로를 찾아내서 그것을 통하여 산에 도달함으로써 산이 제공
하는 곤란을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그의 등산관을 피력한 바 있다.

맘메리의 출현으로 알프스의 또 산악계는 맘메리즘의 영향을 받아 보다 더
곤란한 등로에 의한 등반이 성행하게 되었다.

맘메리 자신은 주로 몽·블랑을 중심으로 한 알프스 일대를 등반하였으며 그
레뵙(Grepon)과 마터호른의 제르마트·릿취(Zermatt Ridge) 등은 특히 유명하다.
그는 1888년에 디크타우(Dykhtau : 5,400M)을 초등반함으로써 코카사스 등행
을 시작하였으며 1895년에는 히말라야의 마왕봉인 낭가 파르바트(Nanga Parbat
: 8,125 M)에 도전하였다가 불귀의 객이 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중앙 아세아의 고지 히말라야(Himalaya)는 19세기 중엽부터 탐험의 대상이
되어 1848년에는 영국인 조셉·후커(Joseph Hooker)의 씨끼(Sikkim) 히말라야 원
정 같은 것이 있었으나 당시는 등산이 알프스에서 그 무대를 옮기기 전이었
으므로 주목할 만한 산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기 말이 되
어서부터는 알프스의 황금시대 이후로 처녀봉을 만나지 못하고 있던 등산가

오오!
지혜로운 민족
거센 창해의 물결에
영혼을 씻고
인종의 구슬픈 언덕을 넘어
햇살 짓는
동해, 끝나라여!

내일의 종을 울려라
내
사랑하는 조국여

찬란한 역사의 깃발을
무너져 가는 세기의 심장에
드높이 휘날려라

멀리
머열리에
하늘 끝까지
허물지 않는 자유라
슬기로운 문화
위대한 문명을 예지로운 생애
무궁한 번영을
가득히 건설하라

내
사랑하는
조국여!

들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되
었으며 그들의 눈은 드디어 히말라
야의 광대한 고지로 향하게 되었다.

히말라야의 수많은 거봉 중에서도
특히 등산가의 마음을 이끈 것은 지
구상의 최고봉으로 유명한 에베레
스트(Everest : 8840 M)봉이었다.

네팔(Nepal)과 티베트(Tibet)의 국경
에 위치하는 에베레스트는 1852년에
발견되어 처음에는 제15봉(Peak15)이
라고 호칭되었었다. 그 후 당시에
인도 총독이었던 앤드루 워(Andrew
Waugh)경이 그의 전임자였던 조
지 에베레스트(George Everest)의 이
름을 따서 에베레스트라고 명명하였다.

에베레스트는 일찍부터 등산가들
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으나 네팔과
티베트가 그들의 독립을 침해당할
까 염려해서 오랫동안 유럽인이 자
국에 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지 않
고 있었기 때문에 1893년 이후로 영
국인 브루스(Bruce) 등이 입국 허가
를 얻으려고 노력했었으나 모두 실
패하였고 처음으로 티베트 정부가
영국 원정대에게 입국을 허가해 준
것은 1921년이 되어서였다. 이 때로
부터 1938년까지 7회에 걸친 에베레
스트 원정이 있었으며 1924의 원정
에서는 등정을 시도하던 날, 말로리
(George Mallory)와 어빈(Irvine)이 히
말라야의 짙은 안개 속에 영원히 자
취를 감추어 버린 조난사고까지 발
생하였으나 끝내 산정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2차대전을 맞이하여 원정은 중단되었다.

또 하나의 히말라야 거봉으로서 일찍부터 등산가들이 등반을 기도한 봉우
리는 낭가 파르바트였다. 펀잡(Punjab) 히말라야에 위치하는 이 봉우리는 1895
년 처음으로 도전했던 뎀메리(Mummery)를 비롯하여 수십 명의 등산가와 셰
르파(Sherpa)를 집어삼켜 마의 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또한 1939년까지
독일 원정대의 5차에 걸친 공격이 있었으나 굴복하지 않은 채 2차대전을 맞
이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많은 등산가들이 KZ나 칸첸중가(Kanchenjunga)등의 거봉에
도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2차 대전전까지 8천 미급의 산에서는 하나의 등
정도 기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세기 초엽부터 시도되어 카메트(Kainet : 7,755 M)나 난다.데비(Nanda
Devi : 7,817 M) 민야.콩카(Minya Konak : 7,587M) 등의 7천 미급에는 불만 한 승

리를 거두어 후일 2차 대전이 끝나자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히말라야 알피니
즘의 개화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근저를 이룩하였다.

히말라야 등반의 황금시대는 안나뿌르나 (Annapurna : 8078 M)의 등정이 이루
어진 1950년에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르조그(Herzog)를 대장으로 하는 프
랑스의 등반대는 일찍이 접근조차 탐색된 일이 없는 이 거대한 처녀봉에 도전
하여 성공함으로써 히말라야 황금시대의 막을 올렸던 것이다.

이어 1953년에는 존.헛트(Fohn Hunt)경이 지휘하는 영국의 제9차 에베레스트
등반대가 1921년 이래로 대결하여 온 지상의 극점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등산사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체 역사상에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였다. 또 같
은 해에 독일 등반대의 해로만·불(Hermann Buhl)은 낭가·파르바트에서 단독
등정에 성공한 후 기적적으로 무사히 생환함으로써 1932년 이래로 쓰라린 패
배를 거듭해 온 무정한 산에서 출기차게 계속된 승고한 노력의 결실을 보았다.

다음 해인 1954년에는 이탈리아의 등반대는 K2에서 오스트리아의 등반대는
쵸.오유(Cho Oyu : 8,153M)에서 등정에 성공하였으며 칸첸중가와 마칼루(Makalu
: 8, 481 M)는 1955년 영국과 프랑스의 등반대에게 각각 그의 문을 열어 주었다.

이 밖에도 룯체(Lho-Tse : 8,501M)나 피로드·피크 (Broad Peak : 8047M) 등의 8
천 미급 거봉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끈덕진 등산가들에게 속속 그 정상을
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막스·아이젤린 (Max Eiselin)이 영도하는 스위스의 등
반대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등반 불가능의 산이라고 단정했던 다우라기
리 1봉(Dhaulagiri T: 8,172M)을 오름으로써 공산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등반을 기도할 수 없는 고자인탄(Gosainthan : 8,013 M)을 제외한 8천 미급 13봉
의 등정이 모두 성취되었다.

×××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8천 미급의 히말라야 거봉이 모두 등정되었고, 설사 이
지상의 모든 봉우리에 인간의 발자취가 남겨졌다 하더라도 등산 활동에 어떤
한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등산의 의의는 등정보다도 등반 과정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등산이란 스포츠 이상의 것이며 정복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만일 모험이란
것이 단지 어떤 장애물과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등산은 물론 모
험 이상의 것이다. 인간이 산에 도전하고 거봉의 정상에 올라섰다고 해서 그
것이 편을 정복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주어진 모든 고난과 시련을
물리치고 산정에 올라섰을 때 그는 적을 무찌른 것이 아니고 무지와 공포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극복한 것이다. 인간은 그의 정복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산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산에 오르
는 것이다. 만일 등산이란 것이 지구 표면의 여기저기에 돌출해 있는 높은 곳
에 도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등산 활동이란 단지 감흥적인 멜로
드라마의 한 장면일 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등산이란 인생과 같은 것이다.
산에 대한 태도와 산에 대한 응답이 곧 인생에 대한 태도와 응답이 되는 것
이다.

북한 동포는 나를 살렸다.

<제3화>

이준수

4. 동굴 안에서

“동무들!”하는 놈들의 서릿발 같은 한 마디에 나는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



내며,
 “큰소리를 지르면 쓸 데다. 조용히 손을 들었, 만약 불응하면 알지!”
 터지지 않은 알을 빼내고 탄창이 밀어주는 총알을 다시 장진하니 약실에 들어 있던 총알은 밖으로 떨어졌다.
 총을 든 나의 손은 놈들의 가슴을 향하여 1미터 전까지 육박해 갔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하는 놈들이냐?”
 하며 놈들의 복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속옷은 괴뢰군의 누더기 동복에 잠바는 야군이 입은 야전 잠바가 분명하다.
 놈들의 행동을 보니 우리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같다. 놈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는 이 산중 이 동굴에서 총성을 낼 수는 없었다. 놈들은 두 손을 꾸부려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한국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오”
 하며 놈들을 향하여 거총 자세를 하고 있는 나를 믿는다는 듯이 들었던 총을 땅에다 놓는다.
 놈들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까 기다리는 동안에 뒤통수를 치는 것 같으며 귓전이 아픈 소리가 고막을 뚫드렸다.
 “우리는 정치보위부에서 나온 정치 보위부원ियो.”
 이 말에 손에는 힘이 가해지나 눈앞에는 이지랑이 안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리는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다시 눈을 고쳐 뜨고 곧 대답을 했다.
 “그러세요. 우리는 인민군 905부대 제2중대 자동 청소대에 있는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고 서 있는 적은 놈의 입에서
 “그런데 어째서 이곳에.....”
 나는 두 눈의 시력을 놈의 눈에 넣고 흥분된 어조로,
 “그렇게 알고 싶다면 말해 주지. 어젯밤 행군 도중에 공습을 받아 산산히 헤어졌소. 그런데 도중에 이 동무가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더 가지 못하고 이 동굴에서 공습을 피할 겸 이 동무의 다리 회복을 기 다리는 거요.”
 하며 나는 현국군을 가리켰다.
 말을 해 놓고 생각하니 이상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괴뢰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적지도 아닌 지역에서 공습을 피해 산중 동굴 안에서 전우의 다리 회복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중에 놈들은 미친 사람 모양으로 웃기 시작했다. 나는 총을 다시 고쳐 쥐며 생각했다. 이왕에 터진 폭탄이니 지금 터뜨린 폭탄의 파편을 죽어 모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한 마디의 실언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 이런 때에 두고 한 말인가?
 그들은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며 계속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놈들의 시선이 가는 곳을 볼 수가 없었다. 시선을 뒤로 돌리면 그 순간에 놈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주저앉은 한국이에게 거총 자세를 취하게 하고 놈들의 시선이 가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우리가 타고 내려온 낙하산이 산재되어 있었다. 나의 시선이 자기들의 시선과 합친 것을 알자 키가 큰 놈의 입에서는,
 “우리는 당신들이 무어라 변명해도 다 알고 있소. 무엇하는 사람이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까지도.....”
 한 놈의 말이 끝나자 놈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웃어댔다. 나는 놈들을 향해 총을 다시 고쳐 주고 이 동굴 안에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운명과 놈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은 기분에서 한 발자국 더 놈들의 앞으로 다가갔다. 놈들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기색으로 말을 계속한다.
 “이곳은 우리 세상이니 안심하고 총을 놓으시는 것이 좋을걸.”
 빈정대듯 토하는 말에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충격과 함께 손에든 한정의 권총조차 가눌 수 없을 만큼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일어나는 분노를 누르고 놈들의 말을 새겨 보았다.
 물론 이곳은 공산 북한이니 너희들 세상이라 하겠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네들은 무엇 때문에 인민군에게 행패를 하는 거요”
 그러자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한 사람이 머리에 올려놓은 손을 높이 쳐들고는,
 “제가 당신들에게 보일 것이 있으니.....”
 하며 손을 내리려고 하여 나는 천국에게 소리를 지르며, 놈을 향해 다시 거
 충을 시켰다. 놈은 거충도 아랑곳 없다는 듯이 수첩을 하나 들고 동굴로 들
 어와 나에게 보이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यो.
 당신들은 언제 이곳에 오셨어?”
 하고 다시 물리시며 묻는 말에 나는 조금 큰 소리로 “너희들의 임무부터 설
 명하라!”
 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두 놈의 입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서해지구에서 특수사명을 받고 이곳에 와 산사람이 된 지 수개월
 이 지났어.”
 하며 겁도 없이 허죽허죽 웃으면서 말을 계속한다. “당신들을 보니 총개 머
 리 끌리는 인민군 같지는 않고 우리와 같은 임무를 갖고 이곳에 나타나신 분
 들이 틀림없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암호입니다.”
 나는 놈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채 우리들의 암호를 가짜로 델까 망설이는데 놈
 들은 다 알고 있으니 말할 필요 없다고 하며 손을 좌우로 흔든다. 도대체 어떻
 게 돌아가는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은 기분에 나의 총
 구는 점점 수그러져 가 는 것을 발견한 그들은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우
 리들이 서 있는 곳으로 던지며,
 “이렇게까지 하여도 우리를 못 믿겠소?”
 하며 두 눈동자를 나의 눈으로 마주 댈다.
 한국이는 그들이 던진 총을 들어 조사한다. 물론 탄창에는 총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지를 못하겠소? 우리는 전에도 말했지만 인
 민을 보호하는 영웅한 인 민군ियो.”
 이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손을 들고
 “저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낙하산이 있는 곳을 가리키 며 말을 계속한다.
 “여보시오 이러지들 마십시오. 우리 유격군들은 헤아릴 수 없이 이곳에 많소.
 우리는 당신들을 구원할 의무가 있소. 그러니 너무 우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나는 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짐작했으나 단정
 하지는 못했다. 정황 설명 때 이곳에는 남한을 지지하는 애국자와 서해지구
 유격군들이 입산해 있다는 것과 이들을 접촉할 때에는 최후 수단으로 하라던
 담당 참모의 설명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한국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국이의 얼굴에서도 아직 불안감이 사라
 지지 않았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낙하산을 보고 당신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
 신들의 사정을 대체로 짐작하고 임무까지도 대충 알고 있으니깐요. 우리가 도
 와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오. 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은 자유스러이 움직이는 그들의 입가를 떠나지 않았다.

낙하산을 보고 우리를 믿는다는 것이 진심에서 하는 말일까? 그렇다면 그 낙
 하산을 매장하였으면 지금 이 지경에서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규
 정을 벗어나 한국의 이 불로 사용한 것이 지금의 우리들을 살게 해준 것인
 가? 조금 뒤에
 “여보시오 이곳이 당신네 세상이라 말했지. 그러면 낮에도 행동할 수 있소?”
 하고 묻자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물론이죠. 이제라도 당신들이 우리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안내하
 겠소. 우리들은 동지들 오기만 기다렸소. 그리고 대략 이 지방에 투하했을 것
 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찾아다녔지요.”
 아무리 꼼꼼히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가져온 무기는 전
 부 탄약을 빼서 우리들 앞에 던져 놓고 태연한 자세로 앉아 시종일관 우리를
 구해준다느니 도와준다 하니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 때에 광기 먼 행동으로 자 약한 실탄을 빼내고 다시 장전하며
 “손들었!”
 하고 더욱 총구를 가까이 갔다 댔다.
 그들은 놀라는 기색으로 손을 다시 번쩍 들면서 우리들이 타고 내려온 낙하
 산만을 바라보다가는 다시 우리들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들의 가
 슴에 총을 대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면 어쩌서 우리에게 그들이 가진 무기까지 던
 져 놓고 구해준다. 도와준다 농성을 부릴까? 그리고 그들은 왜 낙하산만을 유
 심히 분단 말인가? 그들에 대한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한 걸음 물리시며 한국이에게 말했다.
 “한국이 낙하산 줄을 끊어서 놈들의 손을 움짱 못하게 묶어버려!”
 그러자 키가 큰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정말 당신네들을 구원하려고 이곳에 왔요.”
 한국이는 그런 소리도 아랑곳없이 뒤로 손을 돌려 묶어 버렸다.
 “우리들이 정치보위부원이면 당신네들의 이상한 점을 보고 당장에 체포했을
 께요. 그리고 당신들이 굴 안에서 나올 때 우리는 미리부터 당신들의 행동을
 발견했소. 그때 당시 당신들은 우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었요. 우리는 지
 금 유격대장의 명령으로 3일 전에 이곳에 투하한 당신들을 수색 중에 있었소.”
 나는 흥분된 어조로
 “닥쳐! 지금 당장에 너희들의 진가가 판결날 테니 아무말 말고 앉아 있어.”
 하고 총구로 놈들의 가슴을 쿡 찔러 뒤로 주저앉게 하였다. 놈들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혹시 놈들이 우리를 이용하여 서해
 지구에서 침투한 대대적인 유격군을 잡으려고 이러한 작전을 쓰는 것은 아닐
 까? 사람은 의심하면 한없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당신들의 정체가 당신들이 말하는 대
 로가 아니면, 또한 당신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이
 동굴 안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을 각오하십시오.”
 줄에 묶인 그들은 눈만 꺾꺾꺾

하고 있었다. 나는 두 놈을 분리시킨 후에 질문하기 시작했다.

“출생지는?”

“평안남도입니다.”

“말은 어느 도 말을 제일 잘하는가?”

“평안도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자라났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똑바로 그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 대동군에서 출생하여 대동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지?”

“네, 그러나 일사후퇴 이후 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하고는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일사후퇴 시 서해도서로 피난 가서 유격대에 입대하여 고향에는 두 번째 들어 왔지요.”

“알겠소. 그러면 학교도 물론 이곳에서 다녔겠지?”

“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위협하듯 말했다.

“나도 이 지방을 잘 알고 있으며,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알겠소?”

나는 말을 재촉했다.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부락은?”

“천남동이요,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는 천남인민학교요.”

“그러면 1949년부터 1950년까지 그 학교 교장의 이름은?”

“아, 감동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유명한 곡물은 목화와 벼농사지요.”

“그러면 서해지구 유격군이었다기에 유격군의 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나를 남한에서 낙하산을 타고 침투한 군인이라 생각한 것은 틀림없소. 나는 국군이요, 그리고 나는 이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해지구의 각 부대를 시찰하고 왔기 때문에 유격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소. 그러니까 지금부터 묻는 말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당신네들을 괴뢰군으로 인정하고 이 동굴 안에서 처치해 버릴 테니 이는 대로 답변하도록!”

그러나 나는 서해지구 유격군의 편성에 대해서 이는 바가 없었다.

연대장 이름과 참모들의 성명이며 심지어는 부대명까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을 따로 심문해서 두 사람의 말이 꼭 같으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되어 즉시 두 사람을 분리 심문했다.

“소속 부대는?”

“000부대 수색 중대”

“연대장 성명은?”

“000”

“작전참모는?”

역시 두 사람의 입에서는 녹음된 테이프를 트는 것 같이 똑같은 대답이 나왔다. 나는 심문을 마친 다음 천국이를 바라다보았다.

한국이의 얼굴에서도 비로소 의심의 빛이 사라지고 웃음이 떠올랐다. 나는 그 체야 미안스러운 표정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 말했다.

“우리들이 주의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가족과의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왔다는

말은 절대로..... 그리고 당신들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가족 또는 친척 부락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요?”

하고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들은 어느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각오를 다시 했다.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믿어 보자는 뜻에서 포승을 따르고 무기를 돌려주었다. 그들은 호주머니 속에 권총을 넣고 나서 말을 계속한다.

“좌우간 전쟁이 시작되어 한국 사람이 밤에 낙하산으로 이곳에 떨어지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의들 자신도 모르니까요.”

하고 나는 말을 탄 곳으로 돌렸다. 어느 정도 안도감이 들었다. 그들은 약간 웃는 얼굴을 하고

“통하는 데 익숙하지 못해서 영 글렀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빨리 통할 수 있을까요?”

했다. 말이 끝나자 나는

“당신들이 이곳에 잠입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적군의 후방지원을 차단시키는 일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온 일은 주로 철로 교통망, 전화선, 군량미 집적소, 탄약저장고 등을 폭파하거나 또는 적은 병력의 주둔지를 소탕시켜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공산주의에 반항하는 애국 동포들을 우리 유격군에 입대시키고 고향자 또는 남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자유 대만으로 안내하는 일입니다.”

하며 나를 쳐다보면서 말을 계속한다.

“그러면 동지들은? 물론 특별한 임무를 받고 오셨겠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대답했다.

“우리들의 임무는 극비 중의 극비로 되어 있소.” 우리가 죽더라도 비밀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들은 그들에게 우리들의 임무를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 그들이 사명과 임무의 중점을 몰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계속한다.

“우리들은 서해지구 도서와 연락 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괴뢰군 주둔지에 폭격을 시킬 수도 있지요.”

이 소리에 한국이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왜 당신들은 우리의 임무를 알려고 합니까? 우리가 할 일도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조 금도 다를 것이 없으니 그걸로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도 대략 동지들의 임무를 알고 있소. 그러나 혹시 다른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없는 말에 던지시

“어떤 임무를 말하는 것이죠?”

하자 그들은 우리들의 임무를 그대로 말하고 나서는 풀리지 않은 산수 문제를 푼 국민학교 어린이처럼 웃으며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한국이는 눈이 둥글해져서 그들에게 말을 한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네, -이왕 말할 것이니 자세히 말씀해 드리지요. 우리들은 적후 방부대 수송

이성에서 자유에의 과정

……야스퍼어스, 마알셀, 사르뜨르……

김형석(金亨錫)



우리는 지금까지 실존적 문제의 발단에서 그 체계에의 길을 살피왔다. 키엘케고올이 강조하여 준 주체성의 문제가 하이네거에 이르러서는 형이상학의 근본과 제인 존재의 내용으로 체계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이네거와 마찬가지로 실존 철학을 체계화해 준 또 한 사람의 철학자가 있었다. 최근 많은 저서로 알려져 있는 야스퍼어스이다. 의학에서 정신병리학을 다시 심리학을 거쳐 철학에의 방향을 택한 그도 1913년 키엘케고올에 접한 뒤부터는 확고한 자기 철학에의 뜻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는 먼저 인간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찰했다. 그리고는 시대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현대의 철학적 고찰」을 남겨 놓았다. 철학은 정히 인간과 시대 속에 깊이 머물고 있는 근본문제를 해결지어야 하는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감 밑에 그가 발견한 두 사람이 키엘케고올과 니이체였고 다시 그가 문제 삼은 내용이 유럽 전통을 계승하는 이성과 그 자신이 강조하는 실존이었다. 자신이 실존 철학자로 자처했으며 그의 방대한 저서가 통일된 문제를 오늘날까지도 전개시키고 있다.

그는 인간의 존재를 내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으로 구별했다. 내재적인 것의 제일 단계가 현존재(Dasein)이어서 정신적인 자각이 얽은 현실 생활의 단계이다. 둘째 단계인

기관 등을 격파시킬 계획을 하고 사령부 지원을 간청했지요. 아마 이 계획을 사령부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한 모양입니다. 그 계획을 어느 쪽에서 먼저 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행될 것인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하고 그들은 침착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이 작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령부에서 동지들을 이곳에 착륙시킨 것입니다. 우리들은 동지들이 이곳에 투하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동지들의 안전 착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이 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지금부터 같이 행동합시다.”

그러자 먼 곳에서 폭격하는 폭음이 큰 산을 울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전쟁은 적지와와의 연락이 있어야 되는 법이구나, 우리를 이곳에 투하시킬 때에 사령부의 방침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리는 동안에 붉은 빛이 있는 곳으로 해는 둥글게 내려간다. 하루 중 태양이 가장 의식되는 시각이었다. 양상한 나무의 키 큰 그림자가 동굴의 문을 가로질러 길게 지나갔다.

우리는 이동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우리들의 세상인 밤을 기다린다. 시야를 막는 산은 없는데 시야는 어디쯤에선가 제한을 당하고 어두움이 깔려 오고 있다. 크고 넓게 그리고 조용하게 어두움은 산악의 계곡으로 기어오르고 있다. 죽음의 손길처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밤의 장막은 다가오고 있다.

나는 어둠의 뒤를 따라 자신의 목표도 모르는 길을 구원자의 뒤를 따라 한국군의 팔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장랑소식 문장량격

변호사 존 크라크씨는 어느 날 밤 연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나 새로 이사한 자기 집 골목이 복잡해서 집을 못 찾아 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노라니까 어느 집 앞에서 식모가 나왔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이 근처에 변호사 존 크라크의 집을 모릅니까?”하고 물었다. 식모는 크라크의 얼굴을 들어다 보다가 ‘크라크 선생님 이제 돌아오세요’하고 인사를 했다.

“네. 그 크라크의 집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크라크는 말했다.

“아니, 선생님이 바로 크라크 선생님 아니세요?”하고 식모는 고개를 가우똥거렸다. 크라크씨는 안심한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네. 제가 크라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크라크가 크라크의 집을 찾고 있으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식모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더욱 크라크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의식 일반의 세계는 일반적인 의식이 중심되는 위치로 과학적인 사고 등이 차지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제삼의 단계가 정신(Geist)의 영역이다. 사상 문화의 문제들이 이에 속한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녀온 생활의 대부분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넘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 가치 자체도 이러한 내재적인 것에 머물고 있었다. 생활에 유용한 재를 생산하는 기술적 가치만을 뜻하는 이해 문제 쾌(快)와 불쾌(不快)를 가리는 감성적인 가치, 유능성에 기반을 둔 생명적인 힘의 가치 등이 생활의 대부분을 점령해 왔다. 말하자면 가장 초보적인 생활 가치이며 현 존재에 속하는 자아의 종속적 가치에 불과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이해, 쾌와 고통, 권력의 세계에 머무는 한 우리들의 진실성, 삶의 영원성은 나타나지를 못 한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삶이 정신적 영역의 가치를 찾아 선이나 참의 문화적 단계에 머문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족한가? 물론 그것들은 종속적 가치에 비하여 자기 가치라 볼 수도 있으며, 문화와 정신의 특수한 창조력을 지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역시 삶의 내재적인 문제들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이나 깊은 자아성 본래적인 주체의 문제는 못 된다.

이제 이 모든 내재적인 것을 초월하는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이 실존의 단계이다. 그리고 실존은 초월의 계기가 된다. 만일 우리들의 삶이 현실 존재나 정신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몰입도 없으며 주체아로서의 철학적 과제도 일어나지 못한다. 실존적 인간이 됨으로서만 비로소 삶과 의미의 궁극적인 과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가 거룩함과 성실인 것이다. 참, 자유, 사랑, 믿음은 성실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며 예배 종교적인 영복이 거룩함과 더불어 주어진다. 말하자면 실존적 가치라 할까? 자기 초월을 뜻하는 삶의 궁극적 투기를 계획하게 된다. 그러므로 야스퍼어스가 실행을 강조하는 이유도 짐작이 되나 실존적 과제에 부딪힘이 없이는 참다운 삶이나 철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 존재, 의식 일반, 정신에서 실행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이며 이것들이 통일과 연결을 갖게 되는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야스퍼어스가 꾸준히 긍정하는 하나의 근본요소가 있다. 그것이 곧 이성이다. 이성은 생의 전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생의 높고 귀한 것으로 향하는 초월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힘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스퍼어스의 철학은 실존의 철학인 동시에 이성의 철학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실존 이성

의 철학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실존의 단계가 지니는 과제는 무엇인가? 현 존재, 의식 일반, 정신의 단계를 넘어선 실존은 우선 자기 초월을 위하여 초월자와 대하게 된다. 실존 이전에는 단순한 세계(Welt)로 있으면서 현 존재나 정신에 대한 전체자가 실존적 자아와 대립될 때는 그 내용을 바꾸어 포괄하는 초월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실존은 초월자로서의 전체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각함으로써 본래의 자기 존재를 찾으려 한다. 현대와 더불어 평균화해 버렸으며 본래의 존재를 상실한 모든 요소를 버리고 본래의 자아 있어야 할 존재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그것은 합리적인 형태만 가지고서도 불가능하며 일상적인 정신적 노력으로도 안 된다. 일단 이 모든 것을 부정 포기하는 정신적 모험이 전개되어야 한다. 하나의 근본적인 한계 정세에 부딪치게 마련이며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하여 자기부정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야스퍼어스가 자주 난파하는 실존이라는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의 자기 평균적인 존재가 일단 난파를 각오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결단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는 실존적 호소와 성실한 요청이 기대하는 초월자가 있다. 즉 신의 품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포괄자를 제치고 전진하는 끝없는 탐구에 따라 우리는 보다 깊이 초월자의 품 안으로 찾아들게 된다. 그때는 현 존재나 정신계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안호를 가지고 초월자로 향하는 실존 이성의 길을 알려준다.

철학이란 바로 이러한 책임과 뜻을 자각시켜주며 이성의 바른 방향과 자기 초월의 길을 열어주는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야스퍼어스의 실존 철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초월자로서의 신을 긍정하며 따라서 이성적 신앙을 전제 삼고 있다는 점이며 다음 하나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실존적 사귀의 문제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더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해도 후자의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실존의 과제에 대하여 보다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실행의 단계에 이른 이성은 자연히 그 삶에 있어 실존적 교제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현 존재나 정신의 단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연대적인 운명성 한가지로 비극적인 한계상황을 돌파하려는 공통성, 이해나 권력을 초월한 실존적인 사귀의 싸움, 실존적 고독을 교류시켜 주는 깊은 사귀이 필요하며 따라서 성립되게 된다. 이것이 다름 아닌 야스퍼어스의 실존적 사귀의 문제다. 그가 진리를 논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논증의 단계를 넘어 실존적 사귀의 문제를 존중시 하는 뜻이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존의 문제와 경향을 깊이 받아들인 한 사람의 프랑스 철학자가 나타났다. G. 마알셀인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 때 적십자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는 동안 생과 고뇌의 공감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마알셀이 1929년 카톨릭에 입교했음을 보아 그의 철학 또한 어떤 성격의 것이 짐작된다.

그는 프랑스 근대 철학의 선조인 데카르트가 사유에서 존재를 연역시켰음을 옳지 않게 보았다. 오히려 사고-존재-자아의 경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있다는 명제에서 모든 것은 발단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실존 철학자들이 모두 정신, 이성, 의식의 인간과 자아를 논하였음에 대하여 마알셀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참 인간이며 육체와 더불어 있는 자아가 진정한 자아라고 보았다. 우리들의 손이 만년필을 잡듯이 우리들의 정신이 육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동반하는 양자가 하나로 통일된 구체적인 인간이 진정한 인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들이 서로 사귀어 가지며 내적인 연관성을 맺어가는 데 우리들의 참 생존이 영위되고 있다.

내가 타자들과 더불어 있는 공존의 장소가 삶과 한의 지반이며 정신과 육체를 갖춘 인격적인 사귀의 사실이 인간존재의 기반인 동시에 실상이나 그리고 이때에도 가장 구체적이며 현실적 사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지금까지 경시되어 왔던) 우리들의 신체로서의 주체이다. 신체는 인격의 표현인 동시에 인격 그 자체인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으로서의 주체가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귀에 의하며 사회적인 참여 초월자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사귀에 따른다. 우리들의 인격은 신체를 통하여 나타나며 형성된다. 그런데 모든 신체가 가지는 유일한 개성도 표정을 매개로 서로 사귀어 가지며 흔히 인식의 초보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감각마저도 서로 접촉과 사귀어 통하여 나타난다. 보고 듣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나와 물질 뿐 아니다. 나와 너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의 사귀의 방도가 된다. 마알셀이 감각은 인격과 인격과의 사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함이 나 느끼는 내가 타자의 생명에 참여하는 방도라고 보는 견해도 여기에 성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귀어 통하여 볼 때 우리들의 삶은 대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의 접촉으로도 나타난다. 즉 나의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의 사귀이다. 그것이 시간적 변화인 역사성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장소적 차이를 가진 사회성으로 주어질 때도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상황에 머물면서 동시에 그것을 초월해 가고 있다. 상황과의

접촉도 하나의 사귀의 형태이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일도 하나의 사귀에 속한다.

그러나 마알셀은 이러한 사건임을 한보 더 전진시킨다. 그것이 타자 상황을 넘어 있는 초월자인 신과의 사건이다. 이 사귀어야말로 실존의 참여라고 볼 수 있는 최후의 과제이다. 초월자와의 인격적인 사귀와 참여 그것은 모든 실존의 문제를 해결 지어주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과제가 된다.

이제 이러한 마알셀의 과정을 그의 소유와 존재의 이론에 따라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의 주체 대 상황의 관계는 우선 지배와 소유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 내가 상황 세계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본능과 관습의 힘에 의한 지배와 소유의 의지로 나타나는 때문이다.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주변의 온갖 것이 어떻게 편리하게 나를 위하여 쓰여지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지식은 그 일을 돕는 데 유용할 뿐이며 실용과 공리를 위하여서는 모든 대상이 일반화 동질화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들의 과학적 합리성이 바로 그 임무를 대신한다. 마알셀은 이것을 지성의 첫 번째 번 반성이라고 본다. 지성의 밑바닥에는 지배와 권력욕이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것은 물질적인 가치와 내용으로 환산될 뿐이다. 자유나 내적인 삶의 가치 앞에서는 언제나 폐쇄적이며 고정적인 세계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와 지배의 현상은 곧 그 형태를 바꾸어 버린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위치로 전락되며, 소유하려든 주체가 소유물의 수단과 방편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 돈은 소유의 대상이었지만 인간이 돈의 추종자가 되며 물질적 행복의 도구로 이용당하던 기계가 오히려 인간을 기계화하는 현상으로 바뀐다. 현대가 기계의 시대 메커니즘의 시대로 역전해 버린 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근대문명의 폐단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인간의 실존적 고충은 자아 변질의 위기 본래적 존재에서의 이탈을 동반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해결의 방도를 찾은 것이 법률 제도 등에 의한 강제적 통솔력이다. 인간과 소유물 사이에 또 하나의 중간자를 두어 중화와 조정을 통해 본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크고 위험한 비극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개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가 나타나기 마련이며 인간 본래의 인격과 존엄성을 평균 기계화해 버리는 과정이 불가피해지는 때문이다.

여기에 본래적인 공존성은 깨지며 인간은 불안에 붙잡힌다. 뿐만 아니라 해결의 기대를 걸고 있던 모든 인생관 세계관 사회조직 가치의 체계 행위의 규준마저 붕괴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깊은 절망의식을 깨닫게 되며 정신적인 허무주의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상이다. 참된 존재로부터의 퇴각이며 있어야 할 본원적 존재에서의 파멸적인 이탈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은 무엇인가? 마침내는 이러한 운명으로 귀착되게 마련인 우리들의 세계를 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이끄는 길은 무엇인가? 마알셀이 주장하는 것은 창조적 성실성이다. 절망에서 희망에의 용기를 찾아야 하며 장래에 대한 굳은 신념과 동시에 겸손을 동반하는 성실성이다. 그 속에서만 인간의 근원적 호소에 접할 수 있으며 인간성의 진실에 부딪칠 수가 있다. 창조적인 자유도 이때에만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인간성에의 성실은 신에의 성실이다. 이 성실성을 타고 초월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신의 은총이 동반한다. 신은 우리를 속이 지도 배척하지도 않는 영원하면서도 절대적인 너이다. 항상 숨겨져 있으면서도 은총과 인격적 사귀를 주는 유일한 존재다. 사실은 모든 희망 신념 겸손 성실 자유가 주어진 것도 이 신의 은총이었던 것이며 우리들에게 결핍되었던 것은 신과의 사귀인 신앙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마알셀의 문제는 일단 해결을 가져오며 신으로부터의 사랑의 사귀는 끝없는 인간애를 타고 역사와 사회와의 새로운 참여를 요청하게 된다.

또 한 사람의 프랑스 실존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그의 문예적인 활동 사회적인 역할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사르트르는 실존철학에는 기독교적인 것과 무신론적인 것이 있으나 전자는 진정한 의미의 실존 철학이 못 된다고 주장한다. 그 점 키엘케고올 야스퍼어스 마알셀과는 엄연히 반대되는 입장에 머문다. 기독교가 키엘케고올에 있어서와 같이 주체성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좋다. 그러나 실존은 본질에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언제나 신을 전제로 삼으며 신학은 중세기부터 본질적인 것을 공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존은 무엇보다도 무신론을 전제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르트르에 의하면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물체로서의 존재를 대표하는 백태로서의 존재와 우리들의 의식을 말하는 대 자태로서의 존재이다. 의식이 항상 자신을 벗어나 무엇인가로 향하는 존재임에 비하여 물체는 자기 속에 문을 닫고 스스로 자족하는 자신과 합치된 존재에 지나지 못한다. 존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지 이들을 초월하는 신 같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간적 존재의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신은 이미 존재치 않기 때문에 인간실존에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렇다고 어떤 본질이 우리들의 존재에 앞서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있는 것은 나의 존재일 뿐이며, 그 존재가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 뿐이다. 그것은 마치 무로부터의 출발과 같으며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내가 있으며 내 본질을 만들어 갈 뿐이다. 자신의 계획 선택 결단 외에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상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데 근본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유이며 다음은 행동이다.

나의 존재가 무에서 태어났으며 우리들의 의식 속에 스스로의 모순인 무의 요소가 깃들어 있어도 좋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존재를 만들어 가며 나의 나뉘를 형성해 가는데 모든 것은 달려 있다. 그것이 곧 자유이다. 이 자유의 나타남은 행동에 의하여 주어지며 행동이 곧 자유의 내용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행동이란 빈 하늘에 팔을 내 흔드는 것 같은 반응도 저항도 없는 동작이 아니다. 행동이란 언제나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의의와 내용을 동반하고 있다. 자유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이념을 향하여 같이 일할 수 있으며 한 가지로 전철해 나갈 수 있는 길과 책임이 뒤따른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고립된 정신의 내면적인 실전에서 야스퍼어스의 실존적 사귀의 철학을 논했고 마알셀의 육체를 가진 참여의 원리를 지나왔지만 여기 사르트르에 이르러서는 자유와 행동의 인간 무에서 창조로 향하는 원리가 사회적인 행동의 철학으로 전개됨을 볼 수 있었다.

사르트르 자신이 독일에 대한 항거 운동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 헝가리 사건 이전까지는 공산주의적 행동 체계에 적극적 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으로 미루어 그의 자유와 행동의 실존철학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까뮈가 사르트르에 반대하듯이 인간은 사회와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 짓는 것도 아니며 인류에의 책임을 자각하고 선택과 행동을 전개시킨다고 자기충족을 가져오는 것도 못 된다. 인간은 자신 속에 모순과 부조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행동으로 해결되지는 못하는 형이상학적인 부조리라는 것이다. 그 점은 키엘케고올이나 하이데거도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내용인 바 사르트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돌려놓고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도 그 내용과 문제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유는 절대이지만 그 절대의 자유가 이미 부득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있는 운명적인 것이며 완성과 자족은 약속될 수 없는 끝없는 자유의 달음박질임을 인정하고 있다. 목적보다는 허무 만족이 아니라 공허 스스로의 계획과 선택이 좌절 난파할 것을 잘 알면서도 전진해야 하는 운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유와 행동이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행진이며 가능성은 있으되

한국의 음악

성경린(成慶麟)
<국립국악원장>

목적과 달성도 없는 고달픈 무거운 짐이다. 운명적 이로 강요당한 저주의 형틀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은 존재치 않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도 없고 모든 자유가 있으되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만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주어진 운명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택과 행동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인류의 길이다. 인류가 걸을 수 있는 방향과 주어진 목적에 적극적으로 과감히 참여하는 일이 실존인의 유일한 사명이 된다. 여기에 키엘케고올로 시작된 주체가 인류에의 참여라는 하나의 방향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남겨져 있다. 해결된 문제들 보다는 남겨진 문제들이 더 중하며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오늘의 과제라기보다 오늘날들의 과제인 것이다.

△불필요한 눈요기

청교도인 엄격한 설교자 스론은 어느 니승을 방문했다.

“저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쭈씨.”하고 스론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고급 유리병을 가리켰다. 마쭈는 “그건 별 것이 아닙니다. 빈 병이며 그것 보기가 좋게 말하자면 장식품이지요.”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론은 “글쎄 그것이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눈요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하여 일침을 놓았다. 그 후 그 중니는 그러한 허식을 일절하지 않았다.

◇자시 명함

존 마크파슨은 스코틀랜드인이다. 그는 교수였다. 또 그는 천성이 겸손한 위인이었다. 또 옛날부터 교수라는 직업은 전망증이 있는 것으로 남들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명함을 새로 찍어야 할 일이 생겼다. 명함집에 나타난 그는 지금은 전연 쓰지 않는 옛날의 명함 속에서 한 장의 견본을 내놓았다. 얼마 후 그는 명함집에서 새로 인쇄한 새 명함을 받았다. 그 명함에는 모두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었다.

퇴원을 축하합니다. 마크파슨 교수

◇판사의 익살

가난한 변호사가 죽어서 장의비가 한 푼도 없었다. 시의 법정 변호사들이 장의비를 공동 부담하고 공소원 트라라는 판사에게도 1시링의 기부를 부탁했다. 트라 판사는

‘그 시링! 변호사 한 사람 매장하는 데 1시링이 든다면, 자 20시링 가져가서 20명을 물어주세요.’라고 말했다.

한국의 역사가 유구하듯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악도 유구하다.

곡(穀), 명(命), 병(病), 형(刑), 선악(善惡) 등 무릇 3백 60남은 일을 주리(主理)하여 군생(群生)을 치평(治平)하였던 상고(上古) 신시시대(神市時代)는 너무 아득하여 알 바이 없으나 북(北)은 지금의 만주(滿洲)를 확보하고 남(南)은 한반도(韓半島)를 종형(縱)으로 치구한 고대 한민족의 문화는 유구하고도 고도하였다. 문화가 유구하며 저절로 음악의 역사가 유구하다.

한민족의 고대음악도 다른 고대의 민족음악이 그렇듯이 제천(天) 사신(祀神)의 종교적(宗敎的) 기축(祈祝)과 의식(儀式)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음악이 어느 예술보다도 발달 되어 한층 높은 자리에 처해 있어 놀라게 숭상되었던 사실도 꼭 같았다.

더욱 특이한 것은 우리의 음악이 중국(中國)에 전하여 매(味)니 주리 등의 이름으로 은(殷) 주(周)의 악관이 이습함이 됴므로 보든지 후한지(後漢志) 통전(通典) 등의 전적(典籍)에 이른바 동이(東夷) 고숙(古俗)이 가무를 즐긴다 함과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에 부여(扶餘) 고구려(高句麗)의 민속을 서술함에 어디나 가무를 일컫지 않음이 없으므로 미루어 원시적이나 비교적 고도한 가무음악의 존재를 의심하지 못한다.

단지 가석한 것은 악본이 전하지 못하고 곡보를 찾을 길이 없음이 한이로되 멀리 중국에까지 전하여 떠돌린 것으로 보아 한국민족이 어떻게 음악을 애호하고 또 뛰어난 독특한 음악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넉넉히 알 수 있다.

부여족(扶餘族)은 남월로서 국민이 대회(大會)하여 천신(天神)을 제사하는 제전이 있어 여러 날을 두고 가무(歌舞)하였다. 하고 예족은 10월에 제천하는 대회가 있어 낮과 밤 가무가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부여에서는 영고(迎鼓) 예에서는 무천이라 하였다.

마한(馬韓)에는 5월 하종(下種)이 끝나고 10월 농사가 끝난 때 귀신을 제사하는 습속이 있는데 이때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 춤추고 노래하고 즐겼다는 것을 역사는 전하고 있다.

진한과 변한의 민족도 크게 가무를 일컬으나 특히 이곳에는 우리의 고유한 현악기가 있었던 것이 주목된다. 이것이 뒷날 가얏고로 발전한 것이람은 거의 정설이 되어 있다.

한국의 역사는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와서 역사년대(歷史年代)에 들어 온다. 까닭에 그 문화의 모습도 적으나마 역사상에 나타나 음악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시대는 현저해진 중국 통교(通交)에 의하여 한문화(漢文化)의 수입이 많았는데 음악상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중국으로 보면 전한(前漢)에서 후한(後漢)에 이르는 시대로 이 기간은 문화도 여러 부면으로 완비하고 음악은 더욱 발달한 중 그 위에 천축, 구자 등 서역(西域) 제국으로부터 음악이 전래하여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음악이 한국에 전래한 때는 서역 제국의 음악이 부수적(附隨的)으로 함께 전래한 것이다.

고구려의 악기에는 관, 현, 타 아울러 주로 중국에서 전한 것이었으나 고구려 독자적 것으로 거문고(玄琴)가 창제되었다.

고구려의 음악이 특색있던 것은 이것이 중국에까지 수출되어 수(隋)의 칠부기와 당(唐)의 구부기 속에 고려기의 이름으로 편입되어 연주되었던 사실이다.

백제(百濟)는 가악(歌樂)으로 선운산(禪雲山) 무등산(無等山), 방등산(方等山), 정읍(井邑), 지리산(智異山) 등이 있고 악기로는 고(鼓), 각(角), 공후, 쟁, 우, 지, 적(笛) 등을 가지고 있었다.

백제는 특히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이라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가면극을 중국에서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 일본(日本)에 전하여 기악(伎樂)이라고 불렀다.

신라(新羅)는 진한(辰韓)의 한 작은 땅으로부터 나라를 일으켜 드디어 고구려 백제를 병합하므로 한국 최초의 통일 대업에 성공하고 찬란한 문화를 향유하여 음악상에도 실로 위대한 발달을 이루었던 것이다.

신라 시대에는 국가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관아(官衙)를 설치하여 악사를 양성하고 악곡을 이습하여 의식주악을 담당하던 것이니 이것이 곧 음성서이다.

신라의 음악에 유공한 구실을 한 것이 바로 화랑제도(花郎制度)였으니 화랑은 풍월주(風月主)로부터 일어나 원화(源花), 화랑, 국선(國仙) 또는 이를 줄이어 화(花) 혹은 랑(郎)이라 이르는 것으로 이들이 특히 가악(歌樂)으로 상열(相悅)하여 음악발달에 이바지함이 컸다.

신라 악기는 삼죽(三竹), 삼현(三絃), 박판(拍板), 대고(大鼓) 등이 있었다.

삼죽은 대금, 중금, 소금이요, 삼현은 거문고, 가얏고, 비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보다 신라의 음악은 통일 이후 불교의 영향을 받고 그 음악 범패 또는 어산이 수입되었고 최치원(崔致遠)의 향악잡영 5수(鄉樂雜詠五首)에 보이는 바와 같은 서역계의 무악(舞樂)이 성행하였다.

그 뒤 고려조에 와서는 삼국시대의 음악을 도습하여 더욱 발달을 보니 2월 연등회(燃燈會), 11월 팔관회(八關會)의 음악이며 역대의 임금에 연락(宴樂)을 좋아하고 특히 중엽 송(宋)에서 아악(雅樂)이 전래하므로 극성하였다.

고려 때의 음악은 아악과 당악(唐樂) 속악(俗樂)의 셋으로 나뉘는데 아악과 당악은 중국에서 건너온 음악의 이름이며 속악은 곧 향악(鄉樂)으로서 한국 재래의 여러 악곡과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가요(歌謠)를 이렇게 불렀던 것이다.

이조(李朝)에 들어와선 제4대 세종(世宗)대에 이르러 음악이 크게 발달되었다. 세종대왕은 음악에 놀라운 천품을 보여 아악의 성률을 바로잡고 궁중의 음악을 크게 혁신하고 그 위에 친히 지은 허다한 악곡이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전하고 있다.

세종조의 음악상 또 하나의 위대한 공적은 정간보(井間譜)의 창안인 것이다. 이전이라고 악보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음의 장단(長短)을 표시하진 못하였는데 이대 1행(行) 32정간(井間)으로 작게 나누어 정간의 다소로 음의 시가(時價)를 표시하고 또 장구 및 박(拍) 표를 기록하여 강약(強弱)과 박절(拍節)을 소산히 한 독특한 것이다. 성종(成宗) 대에는 태상시(太常寺) 동편에 장악원(掌樂院)의

청사를 이룩하여 위의를 가졌고 대악전(大樂典)인 악학궤범(樂學軌範)이 편찬되어 영년(永年)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악학(樂學) 전반의 집대성(集大成)인 악학궤범 말고 악보로는 세종실록, 세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양조(兩朝) 제작의 관찬 외에 민찬(民撰)으로는 선조(宣祖) 5년 안상이 지은 금합자보(琴合字譜)가 최고(最古)로 되고 있던 바 근년 중종(中宗) 명종(明宗) 무렵의 저술로 보여지는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가 나와 일위를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광해군(光海君) 2년에는 양덕수(梁德壽)의 양금신보(梁琴新譜), 동 12년에는 이득윤(李得胤)의 현금동문유기(玄琴東文類記)가 나와 금도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조도 중기 이후에 이르면 형식적인 궁정음악이 쇠미하는 반면 평민 계급(平民階級)의 음악으로 시조(時調), 잡가, 판소리 등의 대두가 눈에 띄운다.

나는 위에서 지루할 정도로 우리 음악의 긴 역정(歷程)을 개관하였는데 우리 음악의 자랑이 바로 여기서 배태하는 것임을 설명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에 대해서 바른 이해는 그만두고라도 다소의 관심이나마 가져주는 사람이 오늘날 과연 몇이나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음악을 써 뿌려 가꾸고 난만히 개화케한 우리의 조상은 참으로 우수한 음악적 감성의 민족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후예인 오늘의 젊은 세대가 이것을 이해하기는커녕 고귀한 것으로 상애할 줄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한심한 일인가. 한국음악의 자랑은 첫째 한국음악의 고유성(固有性)에 귀납되어야 한다. 우리보다 우수한 문화를 과시하는 중국과 인접하여 있어 그의 영향을 음악이라고 피할 도리가 도저히 어려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당당한 한국음악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다.

무지의 소산이 아니면 고의의 훼손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지만 한국의 아악을 가리켜 중국음악이라고 내썩는 사람이 있다.

얼마의 중국계의 음악이 남아 있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오늘날 모두 우리 음악에 동화되어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의 역설인 것이다. 한국음악은 전날 궁정(宮廷)에서 연주되어 보존하여 온 이른바 정대의 가락 아악과 또 민간에서 자연발생적(自然發生的)으로 발생하여 전승한 세칭 속악(俗樂)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아악이란 역대 궁정에서 나라의 제사, 궁중의 조회와

연향(宴享)에 연주되어 온 존귀한 정악(正樂)이며 속악이란 많이 평민층의 사연(社宴)에서 즐기던 편이하고 통속한 모든 음악을 가리킨다.

아악은 아악대로의 아취(雅趣)를 자랑하는 것이요, 속악은 속악대로 대중의 감정에 직결되는 보배로운 음악들인 것이다.

한국음악에 그 정대한 아악만이 존재한다면 너무나 많은 수의 시민이 가없고 반대로 통속한 음악만 존재한다 하여도 오로지 천박하다는 비평을 면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작년 4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서울국제음악제(國際音樂祭)에 참가하기 위하여 맨 먼저 내도한 빌토오지디 로마악단의 일행이 국립국악원에 와서 이곳에 전시된 한국 악기를 구경하고 우리나라의 유악과 고전무용을 감상하였는데 그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몰토·베네(아주 좋다는 뜻)를 연발하면서 격찬해 마지않았다.

그 중의 지휘자인 헛사노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참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러 나라의 고전음악이나 민속 음악을 들었지만 한국의 국악처럼 오리지널리티가 풍부한 음악은 처음 들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적(詩的)인 음악이다. 특히 대금 독주는 그 유현한 맛이 서양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서양 악기와와의 협주(協奏)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그것은 작곡상의 문제라고 하겠다.’

일행의 일인인 오보예의 잔휘니 씨도 ‘정말 오리지널한 음악이다. 특히 나는 오보예를 불기 때문에 대금 독주에 큰 감명을 받았다. 대금이라는 악기는 참으로 훌륭한 악기라고 생각한다.’

극히 적은 수의 국악인 말고 대금이란 악기를 알기나 하며 정말 어떻게 출색인 악기인 줄이야 상상이나 하겠느냐는 말이다.

역시 그 중의 바이올린 엘트를 당하는 사베리씨는 말한다.

‘아주 개성이 강한 음악이라고 본다. 너무나 오리지널하고 특이한 음악이기 때문에 서양 악기와와의 협주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그러나 음악 자체는 원시 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적이다. 음의 배열이 서구의 현대음악과 비슷하다.’

입을 다투어 한국음악의 풍부한 창의성을 감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잠시의 인상이 아니라 올 1월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음악을 배우고 연구한 미국의 저명한 작곡가 아란·호바네스씨는 한국음악에 대하여 비교적 깊이 이해한 소감을 모지에 실어 우리들을 놀라게 하였다.

‘아악은 장엄하고 웅대, 향악은 A 플랫에서 낮은 E플랫 사이의 아름다운 음정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표출적이고 숭엄하고 자유스러운 음악이며 그 선물의 자유로움과 신비감에 있어서 그 유(類)를 찾아볼 수가 거의 없다. 이것은 영(靈)의 음악이다.’

라고 최대의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국립국악원에서 들은 이주환씨의 가곡을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항상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장사 훈씨의 거문고로의 정악을 마음과 영의 음악이라고 높이였다.

‘한국이 이러한 고도한 음악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그 힘과 변화성과 다양의 형식과 미묘한 맛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고까지 그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음악이 선인(先人)의 훌륭한 유산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보다 새로운 현대의 음악을 풍성히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만근 새 국악 운동의 활발한 기세는 이 길에로의 과감한 전진이라고 믿는다.

한국음악은 길이 한국의 자량이 될 것이다.

◇ 물고기 종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협회의 존셀튼은 매우 박학한 자나 때때로 기묘한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곤란케 하였다.

어느 날 회합에서 성지 제루사렘과 제리코와의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진지한 의논이 벌어졌다.

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성서에 고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운반했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대단한 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자 일동은 그것 좋은 증거라고 감탄했다. 그랬더니 셀튼은 다음과 같이 부인했다.

“그 고기가 소금에 간 친 고기가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까?”

◇ 수영이 무슨 관계?

배우 존, 드윌, 배역 관계로 수영을 깎아 버렸다. 극장의 복도에서 만화가 막스, 비아봄(1872)의 어깨를 치니 그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응드윌 군이군. 자넨 수영을 깎고도 나를 잘 알아보았네!”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나 서서와 이탈리아는 알프스의 담벼락 같은 바위벽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맛타·혼은 이 국경 선상에 솟아 있어 그 정상에는 서서와 이탈리아로 뚫린 길이 있다.

여러 갈래의 큰 길은 산맥을 휘돌아 자연히 언덕에 다다르게 되어 있는데 해발 2,430미터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도 옆에 음침하고도 아무 멋대개 리 없이 지은 큰 집이 서 있다. 이 건물은 흡사히 감옥소같이 보이지만 그곳에는 근 오백년 가까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이다. 수목 하나 눈에 띄지 않고 다만 얼음과 바위만이 널려 있으며, 그 위에는 높은 산봉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건물은 1년 중에 5개월 동안은 거의 반쯤 눈 속에 파묻혀서 해마다 12월부터 5월까지는 특히 눈이 깊이 쌓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왕래에는 스키를 이용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내가 이 음침하고 얼어붙은 장소를 경이순례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상하게 생각할 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성 베르날 수도원이기 때문이다.

구라과 대륙에서 가장 교통이 빈번한 도로 언덕에 있는 이 건물이 구라과에서



려지고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그 명성은 구라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수도원이 이렇게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한니발이나 씨이저나 나폴레옹 같은 역사상 유명한 인물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를 지나가서가 아니고 이 수도원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베르날 개(犬)가 눈 속에 파묻힌 많은 여행자들을 구출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목에 술이든 수통을 매달고 눈에 파묻힌 여행자를 구조하려 가는 성 베르날의 개 그림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림에는 개가 눈구덩이 속에서 의식을 잃어버린 여행자를 끌어내는 장면이라든가 수도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짖어대는 장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설사 그 그림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아이디어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 베르날 개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든다.

이 집의 역사는 거의 천 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기독교가 북구라파에 널리 퍼지자 로마의 성도는 순례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영국이나 불란서에서 이태리를 가자면 알프스를 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길은 가장 가까운 거리지만 높고 험준하고 추운 곳이었다. 그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조난해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베르날 이라는 이태리의 한 젊은 수도사가 서기 950년에 산정에다 암자를 세워 고난을 당하는 여행자들의 피난소로 삼았다.

이 베르날의 암자가 완성된 이래 이 도로는 알프스를 넘는 데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되어 이 길을 이용하는 순례자의 수는 4배나 늘었다.

이 수도원에는 언제나 30명 가량의 수도사 밖에 살고 있지 않았는데 수백 명을 받아드릴 수 있을 만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수도사만큼 피로한 생활을 하는 곳은 달리 없을 것이다. 수도사들은 가을에서부터 봄철까지는 끊임없이 눈에 파묻혀 빈사지경에 있는 여행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약 2만 명을 헤아리는 방문객들을 맞이하여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아울러 여름철을 이용해서 9미터 이상이나 눈이 깊이 쌓이는 동철에 대비해서 모든 식료품, 연료 그밖에 여러 가지 살림 도구를 2,400미터 높이로 되는 수도원까지 운반해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1560년에 이르러 당초의 건물로서는 아무래도 순례자들의 요구를 전부 충족시키기는 곤란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버리고 따로이 커다란 새 건물을 세우게 되었다. 그것은 주위의 풍경과도 비슷하게 볼품없는 집이었는데 100개의 방과 400개의 침대를 비치하고 특히 벽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 두께가 180센치나 되었다.

산길을 험뎠거리면서 정상에 다다랐을 때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이 건물이며, 또 한 유명한 밧 베르날 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이 건물 안이다. 쉼터에서 이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다지 멀지 않다. 나는 이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은 안내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이곳을 코끼리를 타고 올라가 본 적이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연유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한니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칼타고 출신의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그 당시 차를 자랑하던 로마와 싸우고자 아프리카에서 군대를 이끌고 구라파로 건너가 스페인, 불란서를 횡당해서 알프스를 넘어 북이태리로 내려갔다. 이때 코끼리의 한 떼도 참가하여 그 등에 칼타고의 사관들이 타고 있었다.

나는 이와 똑같은 길을 한니발처럼 코끼리를 타고 간다는 것은 제법 스포츠맨다운 모험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실행해 보기로 작정하였다. 한니발의 군대 행진에 참가하였던 코끼리는 37두나 되었지만 나의 경우는 오직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한 마리라도 과분한 것이었다.

역사가 가운데는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을 때 갔던 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몇 베르날의 수도사들은 오늘날 수도원이 있는 길을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길을 넘자면 가장 높고 눈이 깊어 위험이 따랐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감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칼타고 군이 이 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만족한 마음으로 한니발이 지나갔던 길을 성 베르날의 큰길이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말에 동의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길 중도에 있는 유명한 수도원에 걸음을 멈출 수가 있으며, 또한 사람이나 개들도 내가 코끼리를 타고 방문하는 것을 기꺼이 맞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 순례에서 내가 코끼리를 타고 여행한 이야기를 짬짬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들(여러분도)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한니발도 오늘날이라면 역시 트럭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길은 서서쪽 산록으로부터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급류를 따라 갈짓자처럼 된 험악한 길을 높이 올라감에 따라 심한 소나기나 타는 듯한 여름 햇빛속을 지나가게 된다. 머리 위나 전방에 보이는 얼음에 쌓인 산정은 한순간 창공에 번쩍이자 이내 구름에 가리워져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다.

우리들은 모퉁이에 세워진 조그만 농가 앞을 지나가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발일 때문에 바빠서 자동차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도 누구 한 사람 쳐다보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그 옛날 내가 탄 코끼리가 그들 시야에 들어갔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라. 농부들은 거개가 처음 보는 코끼리를 보고 눈들이 휘둥그레졌음은 당연하다. 어쨌든 한니발이 37두의 코끼리를 끌고 이 길을 지나간 지 벌써 2,100년 이상이나 지나고 그 뒤는 내가 코끼리를 타고 가기까지 한 마리의 코끼리도 지나가지 않은 것이다.

내가 타고 간 코끼리는 사람들의 흥분이나 놀라움 따위는 나무에도 없이 등산객들의 사이를 뚫고 즐거운 듯이 길을 걸어들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생겼다. 그것은 말이었다. 말들은 코끼리를 보자 놀라서 그대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미리 알맞은 무대를 준비해 두었다가 말이 가까이 오면 말걸로 가서 코끼리가 지나갈 때까지 말 눈을 가려 주기로 하였다. 로마의 역사가 리비아스는 북이태리에서의 한니발의 최초의 대적전에 관해서 쓴 책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한니발이 인솔한 코끼리 떼들은 칼타고 군 선두에 나타나 그 기묘한 모습과 고약한 냄새로 해서 로마군의 말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라고.

우리들은 자동차를 타고 중턱에 있는 성 피엘이라는 마을에 다다른다. 여기는 슈리어스-씨이저가 로마와 골(고대 지명으로 오늘날의 북이태리, 불란서, 벨지움 및 독일, 서서, 화란의 일부를 포함) 사이를 왕복하는 길에 몇 차례에 걸쳐 발길을 멈추었던 곳이며, 또한 1800년 3월 나폴레옹이 풍설을 무릅쓰고 알프스를 넘었을 때 유명한 소년 고수의 이야기가 생긴 곳이다. 우리들은 그 옛날 불란서군이 이태리를 침공하였을 때 나폴레옹이 점심을 먹었다는 조그만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된다. 그곳은 나폴레옹이 떠나자마자 그가 휴식했던 방 앞을 출입금지인 줄이 쳐지고 오늘날까지 방안에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어 누구든지 그 옛날 나폴레옹이 앉았던 의자라던가 접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다시 16기로 좁 산길을 올라가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전방에 몽-부랑이 솟아 있는 것이 보인다. 거기서 다시 또 한 모퉁이를 돌아서면 단단한 얼음속에 파진 터널 앞에 이른다. 이 터널은 180미터나 되며 가장 더운 여름철이 아니고 저는 절대로 녹는 법이 없다.이 아니고 저는 절대로 녹는 법이 없다.

내가 전에 코끼리를 타고 이 터널을 빠져 나왔을 때는 마침 세 사람의 수도사가 각기 크고도 아름다운 개를 데리고 마중을 나와 있었다. 코끼리도 여기서 처음으로 몇 베르날 수도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며, 수도원의 개들도 처음으로 코끼리를 보았던 것이다. 개들은 마구 짖어 대었다. 마침 그곳에 와 있던 각국으로부터의 방문객 약 2,000명이 지붕 꼭대기에서 혹은 창문에서 우리들의 내방을 환영해 주었다.

그 날 밤 사람들이 퇴거한 뒤에 수도사들은 말하기를 이번 코끼리의 방문은 아마도 나폴레옹을 맞이했을 때 이래 최대의 흥분과 많은 방문객들이 수도원에 집중케 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들(나와 여러분)이 정상에 도착하였을 때는 타고 온 자동차의 엔진은 완전히 소모되고 김이 무력무력 나고 있는 것이다. 전부터 알고 있는 수도 원장이 우리들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여 이 건물 가운데서도 가장 기분 좋은 방으로 안내해 준다.

휴식을 취한 다음 우리들은 수도원을 구경하게 된다. 박물관, 도서관, 예배당 등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수도사들이 아주 멋있는 현대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수도원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세워진 것인데 오늘날에도 모든 건물이 난방 장치가 되어 있고 전기, 전화, 라디오 시설이 다 되어 있다. 이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해마다 느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로 오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옛날과는 달리 그다지 바쁜 일이 없다.

우리들은 유명한 성 베르날 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러자 수도 원장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성 베르날 개는 불독과 번견의 혼혈종으로서 머리와 가슴쪽은 불독과 꼭 같다. 그리고 힘이 셀 뿐 아니라 상당히 영리한 개다.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추위에 길이 들어 오늘날에 와서는 북극의 에스키모 견과 같이 눈 속을 내집으로 삼고 폭풍설 때나 아니면 집안에 있으려 하지 않는다.

전화 시대 이전에는 한번 눈 오는 계절이 닥치면 수도사들은 매일 아침 개를 데리고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여행자를 찾는다. 그리하여 눈보라에 휩쓸려 파묻힌 많은 사람들이 이 후각이 예민하고 영리한 개한테 발견된다. 눈보라 때문에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라도 이 개는 선두에 서서 긴 안내 역할을 담당한다. 그뿐 아니라 여행자들이 밤에 눈보라를 만나 수도원에 구원을 논하러 오는 도중에 눈과 추위 때문에 한 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하고 수난을 겪고 있을 때 수도원의 개들은 상당히 먼 곳에서도 이것을 알아내고 달려가서 조난지를 확인한 다음 곧바로 되돌아와서 사람들을 현장에 안내한다.

성 베르날 개 가운데서 특히 용감하고 영리한 개에 대해서 바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말기부터 많은 인명을 구세하였기 때문에 구라파를 통해서 유명한 개를 기념해서 부쳐진 이름이다. 바리 일세의 유체는 현재 베르누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통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수도사들의 끊임 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생자들은 끊이지 않는다. 19세기 중에는 12명의 수도사와 많은 개가 조난지를 구조하다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우리들은 이들 친절한 수도사와 개들에게 석별을 고하고 우리가 또다시 찾아가려는 로마를 향해서 길을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김영주 역)



비행

김중원(金鍾元)

지금 선 자리에 지붕으로 머물어 줄 수는 없는가.

그것은 어땠가.

물구나무 선

그 푸르름은 누가 받은 술인가.

보이는 것은

한여름의 낮잠도

뻘췌도 아닌

무거운

겨냥

실상 지상을 날고 있지만

그의 심중엔

다하지 못한 기약으로 차 있을 것이다.

찾아오는 것은

기다림도

피로도 아닌

적중된 기억

지금 디딘 자리엔 또 누가 씨를 뿌릴 것인가.

휘양새를 바라다 주듯

하늘을 땅으로 바라다 줄 수는 없는가.

거기는 어땠가.

이창진
 <원자력연구소>



따사한 어느 일요일 아침 두 젊은 사나이가 동물원에 나타났다. 뻘뻘 마르고 어깨가 축 늘어진 친구는 시내 모 대학의 생물학 강사였고, 뚱뚱하고 얼굴을 잘 가꾼 사나이는 어느 일간신문의 사회부 기자였다. 강사는 그날의 산책 중 흑 연구 자료라도 발견할 수 있거나 않을까 생각하였지만 신문 기사는 그날의 신문에 기재할 대상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 하나 외모만으로 본 그들의 태도는 무척 여유 있는 듯하였다.

신문 기자에게 사자, 범, 코끼리, 기린 등을 자세히 설명한 강사는 곧 있는 곳에 와서는 자기의 지식을 발휘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였던지 자못 강의조로 곰의 생리, 성격, 습관 등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옆에서 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신문 기자 친구가 보이지 않았다. 흑 자기의 독백을 누가 듣지나 않았나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살펴보았더니 그 친구는 먼 곳에서 구두끈을 매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친구를 불렀다.

“여보게 빨리 오게. 지금 곰이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일세.”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사는 또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에이, 뚱뚱보. 뭘 하는 거야? 빨리 오지 않구. 빨리 와 빨리!”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신문 기자는 쏘살같이 달려왔다. 그것은 친구의 설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안면을 방해 당한 그놈의 곰이 철창 밖으로 앞발을 내밀고 큰 소리지르는 강사의 목을 졸라댔기 때문이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날씬 곰의 앞발이었다. 강사는 몸의 성격 중 그것만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일이었다. 헐떡거리며 뛰어온 신문 기자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거품을 입에 물고 신음하는 친구를 보고,

“미안하지만 잠깐만 참게!”라고 하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나 버렸다. 만일 거기에 용감무쌍한 국군 장병이 있었다면 그놈의 곰의 앞발을 비틀어 버렸거나 총의 개머리 판으로 후려갈겼을 것인데 불행히도 그 허약한 강사에게는 구조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았다.

뒤로 물러난 신문 기자는 주머니에서 급히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었다. 그것은 썩 총이 아니라 카메라였다. 그는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조절하고 거리를 재고 시간을 정하느라고 무척 애쓰는 듯하였다. 산지가 얼마 되지 않아 카메라에 익숙지 못한 신문 기자는 셔터를 누를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허파가 한 강사는 그동안에 거의 실신하고 말았다.

기사는 자기가 찍은 사진이 그날 귀의 사회면에 크게 날 것을 생각하니 기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다. 고층 건물에서 투신 자살하는 어느 실연한 처녀의 사진을 찍고 일약 유명해진 모 사진 기사의 출세담이 머리를 스쳐갔다. 그러나 놀란 것은 신음하는 강사와 그의 목을 졸라맨 곰과 그리고 그것을 사진 찍고 있던 자기를 한꺼번에 사진 찍는 또 하나의 사나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셈이었다. 이것은 뉴욕의 어느 공원에서 생긴 일이다.

세상에는 자기 직업에 충실키 위하여 남의 희생을 눈여겨보지 않는 예도 허다하지만 자기 자신이 희생까지도 불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돈을 벌려고 스포츠라는 미명하에 얼굴을 무자비하게 무찌르다가 급기야는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잃고 뇌진탕으로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권투 선수들 말에서 한 번 떨어지면 6·70불을 받고 떨어지다가 어디가 부러지면 치료비 외에 수백 불의 보너스를 받는 할리우드의 승마장어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늘의 신비를 들추어 내고자 하는 우주비행사들.

외국의 어느 원자력 연구소 직원은 최대 허용량 이상의 방사능에 피폭 당하면서도 연구에 골몰하고 있었다. 연구 중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남의 방사능 피폭량 측정기를 사용하여 달고 실험하는 것이다. 즉 신체에 이상을 초래하고 생명이 단축되고, 또한 자손에게 악영향이 미치는 한이 있어도 연구 결과만은 잘 내야겠다는 신념에서이다. 남보다 훌륭한 논문을 먼저 발표하려고 유독한 방해성 물질을 자진해서 먹은 학자도 있었다.

그런데 직업 중엔 별의 별 것이 다 있다. 동경의 어느 탐민굴에서는 고급 자가용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가 힘들다. 특히 밤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유인 즉 밤벌이 없는 불량배가 고급 자동차에 우정 뛰어들고는 어디가 부러지면 일생 먹여 달라고 매어 달리기 때문이다.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사람은 대개 갑부일 터이니가 위자료도 많이 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를 소위 투신사업이라고 한데 우리네 사회에서도 이런 류의 인간형이 차츰 생겨나는 것 같다. 이것도 바로 25시가 아닐까? 사회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 중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현대인의 직업 의식인 상 싶다. 정당에 충실키 위하여 정적을 암살하고 국가에 맹목적으로 충성키 위하여 침략을 감행하고 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살육, 음모도 불사하는 현대인의 직업 의식이 무섭다.

그런데도 직업의식이 이따금 사람들로 하여금 초인간적인 행위를 감행케 하는 수도 있다. 우리는 그 한 좋은 예를 2차 대전 중 북대서양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직 히틀러의 위세가 당당하던 1943년 2월 3일, 구라과 전선으로 출전하는 미국 장병들을 가득히 실은 도어체스터 호(SS. Dorchester)가 그린랜드 연해를 항해 중에 있었다. 그 장병들 사이에는 다음 4명의 군목도 끼어 있었다.

쥘오지·엘·폭스 목사(중위)

(Lt. George L. Fox)

크라아크·비· 포어링 목사 (중위)

Lt. Clark V. Poling

존·피·워싱턴 신부(중위)

(Lt. John P. Washington)

알렉산더·피·구우데 유태교 목사

(중위)(Lt. Alexander D. Goode)

그런데 그 배가 떠나려오는 어느 커다란 빙산을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운 나쁘게도 독일군이 가설한 수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된 것이다. 미리부터 각오하고 있던 터라 선장은 곧 권총을 매어 들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배는 수십 분 내에 가라앉게 될 터이니 질서정연하게 구명선으로 옮겨 타되 상급자부터 먼저 내려가라는 것이었다.

우선 대령, 중령.....이렇게 해서 중위들의 차례가 왔다. 새로 임관된 네 명의 군목들에게도 구명정으로 옮겨탈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몇 척 안 되는 구명선에 나이 어린 2등병까지 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총을 든 선장에게 달려가서 만일 이 배에 탄 전 장병이 저 구명정으로 모두 옮겨타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선장은 먼 하늘만 바라볼 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렸다.

군목들은 서로의 눈동자들만 쳐다보다가 선장에게 자기들 대신으로 나이 어린 병사들을 먼저 태우라고 하고는 구명정이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후자는 기도를 올렸고 또 다른 군목은 성서를 읽기도 하였다. 거기에는 유태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없었다. 오직 삶과 죽음 그리고 삶과 죽음이 갈래길에 선 숭고한 직업의식 뿐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하늘나라 뿐이었다.

구명정으로 올라탄 장병들은 이 네 군목의 최후의 모습을 석양의 마지막 빛에 비칠 때까지 눈여겨 보았다. 어린 병사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장교들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찬송 소리가 끊어졌다. 기도 소리도 안 들렸다. 그리고 배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보이는 건 뚱뚱 떠 있는 무서운 빙산과 동녘 하늘에 떠오른 초생달과 검푸른 하늘과 바다.....들리는 건 북극에서 불어오는 희오리 바람소리....

장병들 중엔 구명정에 탄 것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모두는 군목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에 고개 숙였다. 비록 단 한 사람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침묵보다 더 훌륭한 웅변은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미국에선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다. 하나는 순교한 군목들을 위한 기념교회 건축이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의 어느 언덕 위에는 그때의 목사를 추모하는 기념교회가 우뚝 솟아 있다고 한다. 그것은 필(사랑), 라델피아(형제)라는 지명과 잘 조화되는 풍경이다.

또 하나의 움직임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 운동인데 그것은 구명정에 여유가 있더라도 애선과 운명을 같이하는 용감한 선장들의 직업의식을 개조하자는 것이었다. 대개의 선장과 함장들은 침몰하는 배와 더불어 가라앉고 마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러한 습관이 그대로 지속되면 용감하고 직업의식에 투철한 선장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위 비법하고 또한 언제나 그럴듯하게 이유를 잘 꾸며대는 자들만이 구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동 법안

제안의 취지였다. 나는 우리 공군에는 불타는 애기와 더불어 같이 죽지 않으면 비법하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없을 줄로 믿는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처한 세대를 위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래도 한 가락 희망을 걸 수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지“구의 종말이 내일이라는 것이 아무리 분명해도 여기에 지금 (Hier und Jetzt)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백발 노인의 심정과 같은 직업의식을 갖는 일” 일 것이다 믿어진다.



무시당한 교수

이상욱
〈국학대학교수〉

A

며칠 전 또 대학장, 교수 등 수 명이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여 초대권을 가지고 명보 극장엘 들어가게 되었다. 나 같은 바쁜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는 한가하게 극장이라도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혹 시사회의 초대를 받아도 좀처럼 가지 못하고 집에 대학 다니는 아이를 주어 보내는 것이 고작이다. 그럴 때면 나는 큰놈 작은놈들한테 가끔 고무하라니니 대학교수가 극장에도 안 다닌다는 등 곧잘 편찬을 받기가 일수다.

간혹 교수회가 끝난다는가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약간의 휴식을 얻게 되면 동료 교수들로부터 극장엘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럴 때면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영화를 감상할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일년에 2,3회 정도에 지나지 않아 외국의 영화배우나 국내의 영화배우도 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할 정도다. 더욱이 요즘 나와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제목은 기억할 수 없으나 러브 스토리로 엮어진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하도 우리 아버지는 극장엘 가지 않는다고 수차례의 가벼운 원망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호기에 아이들에게 나도 영화감상을 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애 그 비비안리라고 하는 녀석 연기가 썩 훌륭하더라. 그거 고만이던데.....” 하고 한바탕 자랑을 하니까 방 안에서 TV보고 있던 집아이들이 일시에 까르르하고 웃어 대며,

“아버지도 그렇게 모르세요. 그래 비비안리가 남자배우예요, 여자배우지...”하면서 나의 위대한 극장 시청담을 일축해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모처럼의 안방 발표는 보기 좋게 TKO 당하고 말았다.

이런 사건이 있을 뒤로부터는 모처럼의 발표는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웬만해서는 중대 발언을 보류하는 것이 요즘의 영화감상 후일담이다.

B

우리 몇몇 영화 감상객은 모처럼의 토요일 오후를 명보극장 2층에서 지내게 되었다. 마침 들어가자마자 시작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휴게실에 있던 구경꾼들은 웅성거리며 기대에 가득 찬 눈동자를 굴리고 자기 좌석을 찾아 들어간다. 더욱이 이날이 토요일이 되어서 그런지 선남선녀들의 몸치장이 유난히 눈에 띄고 여유있게 보이는 유한 부인층이 관객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우리 일행도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아무렇게나 비벼 끄고 어두침침한 지정 좌석을 찾아 착석하였다.

뉴스와 맞만 보이다 마는 화려한 예고편이 끝나고 본론인 로맨스·그레이가 시작되었다.

오래간만에 귀중한 시간을 빌린 김이라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볼 결심을 하고 유난히 뚫어지게 감상했다. 국산 영화는 더 더군다나 오래간만에 극장에서 보게 되었다. 집에서 내가 내고 있는 「한국의 역사」 12권 마지막 권의 원고를 쓰면서 담배 피우는 시간을 이용하여 가운데 방에서 안방극장예의 초대를 받아 국산 영화는 일주일만에 한 번은 보는 셈이다. 그러나 원고 쓸 게 밀리고 대학 강의안을 새로 짜기 위해 고전 원본을 뒤적거릴 때는 이나마의 TV도 아이들과 즐기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사실상 학자라는 직업은 언제나 자기의 학문 세계를 더욱 개척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학설을 주장해야 그 사람은 교수로서의 가치와 인정을 받게 되며 나아가 학문계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학자란 그러기에 가난하며 머리에 찬이슬이 쉽게 앉게 된다. 60에서 두어 살 못 된 나인데도 벌써 백발이 성성하여 어디 가면 꼭 활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버스나 전차를 타면 으레 자리 양보를 당하게 되니 어떤 때는,

<나도 이젠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된다.

그런데 그동안 해 놓은 업적도 없어 공연히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C.

약 두 시간 가량 그 거창하고 위대한 영화는 끝나고 불이 켜지자 우리 일행은 주저 않고 쓴 맛을 다시며 걸어 나왔다. 나오면서 나는 첫 마디가 대학 교수가 무서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것이 영화니까 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게다. 그러나 그 영화가 주는 뒷 교훈 뒷 맛은 결코 영화 그 자체도 중지부를 짚는 것이 아니다.

난 이 영화를 누가 제작하고 감독하여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는지는 몰라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회적 계급 중에 교수를 화면에 끌어당겨 망신을 시켰는지 제작자 등 여러분들의 양심적 저의를 알 수 없다.

대학교수를 화중으로 떠다밀고 냅다 간 그 훌륭한 아이러니는 애교를 지나 처참하고 가열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위 늦바람 난 대학교수인 조영하라는 인물은 마치 바람피우는 것이 본업이고 교수라는 직업은 거창한 부업인 양 스크린에 새기고 있어 유식한(?) 관객들은 마치 교수를 바람피우는 티피컬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혼한 사장을 영화의 모델로 삼아 풍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 순화를 위하여 수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나라와 같이 교수가 무시당하고 가장 하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직업을 두고 풍자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해학이 아닐까..... 가난한 學者-그 영화에서는 교수가 굉장히 큰 집을 장만해가지고 부정축재자 못지 않는 일류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어디서 돈이 굴러들어오기에 외도를 밥 먹듯 하며 20만원 짜리 수표를 빼걸에게 선뜻 주겠는가?

그렇다고 교수가 그만한 돈이 안 생긴다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를 쓴 인세가 나왔다고든 혹은 사전을 만든다고 선불을 받는 수가 간혹 있긴 해도 학자라면 약간의 생활비를 두고는 거의 다 귀한 책을 사는 것이 고작일텐데 빼걸에게 기십만 원을 군소리 않고 준다든 대목에 가서는 한국 영화의 아이디어 고갈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내 영화평론가가 아니니 그 영화를 잘 됐느니 못했느니 하는 촌평은 사양하겠으나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촌점이 곧 영화의 질을 단적으로 말하는 아마추어 평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한다.

몇 년 전에도 정모 씨가 쓴 「자유 부인」이라는 불휴의 명작에도 교수가 주책 없이 학생(?)에게 미쳐 사회적 망신을 톡톡히 당한 적이 있더니 그 신 수입만이 최근에 또 상연되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교수들이 정치 바람이 불어 장관도 되고 무슨 고문도 되고 국장 등 요직을 지낸 바가 있으나 이런 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가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일하려 나간 장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지식인의 사회 참여는 심각히 생각할 문제라고 나는 본다.

D.

그 흔해 빠진 부정축재자들을 모델로 해서 이와 같은 훌륭한 영화를 만든다면 사회적 교훈은 성과를 올릴지 모르겠다. 파렴치하게 모은 돈을 불쌍한 그 여인들에 좀 던져 준다기로 그리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수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잘 모르니 혹 그런 부류의 사이비 학자들이 없다고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동(同)직의 몸으로서 생각하기에는 그와 같은 돈을 함부로 뿌리며 난봉을 피우는 학자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그 영화의 시기는 혁명정부 때다. 교수를 모델로 한 의도는 행여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루었다고 가볍게 시인해 줄 수 있다고도 보겠으나 난 그렇게까지 관대해질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무어 그리 대단한 대우를 받는다고 사회적인 풍자의 대상이 되어 점잖은 교훈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겠는지 알뜰 수궁이 가지 않는다.

목목히 극장 출입구를 나오며 나 혼자 생각에 잠기고 있으려니가 옆에 같이 가던 동료 교수도 나의 의견을 찬동하고 못볼 것을 보았는지 그렇게 명랑하던 분이 통 말이 없다. 우린 극장을 지나 울지로 3가까지 걸어오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전차 버스의 소음에만 정신을 두고 오다가 조선옥에 들어가 대포잔을 기울이면서 일행이 꼭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아무튼 그 영화에서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도 현실대로 무시당하는 구료.”

하고 쓸쓸히 웃으면서 기분 전환으로 잔을 연신 기울였다.



화차 지붕의 추억

박용근(朴庸根)
<신사조 편집장>

지금 나이로선 영똥한 짓을 할 만한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이 보더라도 애교로는 보아주지 않을 터인즉 그 영똥한 것이라는

걸 아예 공상 속에 파묻고 있지만.....

나는 낮선 고장, 낮선 시골길을 헤매다니는 이른바 여행을 즐기는 편이다. 가령 아무런 스케줄도 없이 손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역에 나가본다. 매표구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틈에 낀다. 그리고 차레가 돌아오면 앞에 사람이 댔던 지명을 되받아 외우고 차표를 준다. 그리곤 기차에 몸을 싣고 달리다가 마음 내키는 정거장에서 선 듯 내린다. 내 차표의 정거장에 아직도 못 미친 곳이라든 두말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지나쳐 온 곳이라면 초과한 만큼 과료를 물면 그만이다. 그리곤 마냥 걷는다. 설마 사람이 사는 고장이라면 버스라도 있을게고 숙식을 얻을 수 없겠는가? 말하자면 이것이 나의 엉뚱한 생각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의 변화 속을 정처없이 헤매노라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세속백사에서 풀려나온 몸과 마음이 마치 고무 풍선인 양 가벼워지기만 하다.

이런 방법에 의한 여행은 말하자면 사람의 몸에 신진대사가 있듯이 마음에도 신진대사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 믿는다. 도회지 한복판의 소음과 아귀다툼 속에서 생활을 가져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훈훈한 훈냄새를 맡으며, 보리밭 이랑을 걸을 수 있는 기회란 값진 것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미식가들 가운데엔 흔히 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연된 바 있는 몬도가네라는 영화에선 세계 여러 나라의 괴식하는 풍습들이 소개되고 있다. 뽕고기나 개고기를 먹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습이니 놀랄 것까지 없다 치더라도 개미 볶음이라든가 괴상한 벌레의 튀김이라든가 심지어는 원숭이 골의 요리 따위를 접잡은 표정으로 먹고 있는 광경이란 범상한 일로 보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즐겼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길 바라는 엉뚱한 방법의 여행이 이런 괴식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소름이 끼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걸 혹 경험해 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에게도 일주일에 걸친 실로 소름 끼치는 여행(?)의 추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비단 나 혼자만의 경험이 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여행이라는 이름이 합당한 표현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엉뚱한 여행을 주창하던 나에게도 큰 타격이었던 추억이다.

뒤통수에 은은히 울려오는 포성을 들으며 떠나는 피난길을 여행이라 부른다면 너무 허세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피난 가는 여행도 여행입엔 틀림없다.

서울시민들이 남쪽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밀물처럼 몰려들던 12월 28일 지금부터 13년 전, 그러니까 1·4 후퇴가 있던 바로 며칠 전의 해였다. 서울역은 남부여대환 군중들에 의해서 아귀다툼의 도가니였고 완전히 수라장이었다. 밀고 밀리우는 무책임한 군중들의 파도에 의해서 밝혀 죽는 사람도 있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가려낼 경황도 없이 남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이 짓밟히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서울 매표실에서 푸렛트·홈으로

연결되는 어둠과 비좁은 통로가 있다는 걸 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지만 아무튼 꼭두새벽부터 꼬박 밤까지 고생하던 끝에 나는 겨우 남행 열차에 올라탈 수 있게 되었다. 비스듬히 경사진 화차의 지붕 위였다. 그나마도 올라앉는 고초를 겪는 동안에 가족을 잃어버린 외톨백이가 됐는가 하면 주머니 속엔 한 닢의 돈도 없었고 다만 책이 들어있는 손가방 만이 나의 유일한 소지품이 되고 말았다.

새벽 네 시경이 돼서야 가까스로 기적을 올린 증기기관차는 황소걸음이었다. 선로가 만선되어 앞차의 꼬리를 물게 될까봐 빨리 달릴 수도 없거니와 실력 이 상으로 많은 차량을 연결했기 때문에 알뜰히 매연(을 내뿜는 증기기관차를 허물할 수는 없었다.

화차 지붕 위나마 콩나물 시루처럼 꼭 들어찬 남녀노소 피난객들의 심사야 어떠했을까만 그중에서도 무계획 여행을 주장하던 창백한 얼굴의 이 서생의 마음은 그지없이 처량하기만 했다.

달빛은 교묘히 빛나고 설달의 살을 베는 찬바람 속에는 기관차가 내뿜는 연기와 석탄 가루가 섞였으니 눈물은 저절로 흐르기 마련이다. 허나 그보다도 내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서울역에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근심이요 주머니 속이 비었다는 걱정이었다. 기차가 남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어느 종착역을 향해서 며칠 걸릴 예정으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 딱한 일이다.

짧어 죽게 될 것인가 얼어 죽게 될 것인가 하고 내 머리 속에서 맴돌던 근심은 동녘이 밝아올 무렵부터 현실로써 내 눈앞에 일어났다. 모진 추위 속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던 사람이 화차 지붕에서 굴러 떨어졌다. 외마디 비명을 지른 사람이 있긴 했어도 혀를 차는 사람은 없었다.

산사수려하다는 이 강산을 야간열차의 전망대에 앉아서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신경은 모두가 강철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피난 열차의 화차 지붕 위에는 노소가 없었고, 성별이 없었고 말이 없었다. 모두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달리는 자신의 운명을 음미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지붕의 북관쪽에 앉아 있던 스물을 갓 넘겼을 듯이 보이는 여인이 축축이 젖은 구두 한 짝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면서 구두를 밖으로 내동댕이쳐 달란다. 눈을 흘기는 사람도 없었고 웃는 사람도 없었다. 그 지붕 위엔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알뜰했던 여행은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부산역에서 끝장을 냈지만 요즘 신문을 보면 서울 부산 사이를 여섯 시간 만에 달리는 특급열차가 생겼더니 피여행가의 추억은 쓸쓸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무제

정강석(鄭康錫)
〈학원사 기자〉

벌써 춘색이 그윽하다. 길은 봄빛 따라 유독 생각을 잡는 지난 일 한 가지. 그것이 내가 대학 3학년에 다니던 때였으니 그리 오랜 얘기는 아니다.

올 봄부터는 학제가 바뀌어 4월에서 3월로 되었지만 그때는 4월이 학기 초였으니 아직 채 진급도 하지 못한 3월 말 경이었던가 싶다.

사실 대학 3학년이라곤 했지만 다른 학생들에 눈하여 군대다 뭐다 하여 많은 면치 못했던 나는 학교라고 가야 친구라곤 극히 드물었다.

나와 나이로 봐서 엇비슷한 노장(?) 몇 사람을 제 놓고는 말이다.

그런데 그 해 봄은 유달리도 나 자신이 무르녹는 춘색에 못내겨워 자못 그 춘흥을 발산할 출구를 찾고 있었겠다. 하지만 나이도 나인데다 학자 사정도 사정이어서 도시 공부 아닌 다른 곳엔 얼굴을 돌릴 여유라곤 없었으니 요새 흔히들 말하는 소위 청춘사업(?)이란 그림의 떡이요. 마음의 사치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 따라 별나게 춘흥이 겨웠으니 그 겨운 춘흥을 풀 데가 망연, 그래서 가까히 지내던 두 노장(?)과 셋이서 드디어 청춘 사업의 묘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겠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란 토요일 오후 택하여 여대 기숙사를 배회(?)해 보자는 기막힌 용단.

드디어 그 날은 다가왔고 삼용사는 바야흐로 기숙사 정문까지 도착.

그런데 일은 거기서 한동안 지체를 보기 시작한 것이 그 후의 행동을 어떻게 진전시켜야 할지 이 어중이 노장 중엔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하도 궁지에 몰린 나는 감연히 그 레이더에 서기로 결심. 마침 갖고 있던 수첩의 방명록을 꼭대기부터 뒤지기를 시작, 그것이 주효하여 한 여대생의 이름을 얻었다. 어떤 연유에서 그 이름이 거기 적히게 되었든가는 나 자신도 아슬프레 했지만 여하튼 그 묘령(?)의 여대생을 불러내어 보자는데 합의' 드디어 수부에 가서 그 여학생의 면회를 했었다.

얼마를 기다리게 한 후 그 여대생은 등장, 그리하여 천천히 내가 서 있는 편으로 다가오셨다.

그 순간의 내 마음속의 그 이상했던 느낌은 무어라 표현했음은 좋을지 다만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의존할 뿐. 한동안 머뭇거리던 나는

“저어 실례지만 K양이 센가요?”

하고 말문을 여니

“아 K양을 찾아오신 분? 사실은 양은 지금 외출중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한 방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 본 거예요.”

순간 내 머리 속에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나왔다는 생각이 휘익 스쳐 지나갔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죠. 나중에 들어오시면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말씀이 약간 기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저쪽 벤치로 가시죠.”

하며 이름 모를 고마운(?) 여대생께선 앞장을 서 주는 것이었다.

-일은 제대로 되어 간다. 이것은 그때 내 마음속에 도사린 속말이었다.

이런 쾌재를 부르며 그녀의 뒤를 따라 드디어 우리들(?)은 한 뼘 정도의 사이를 두고 터억 벤치에 앉았다.

다소 제정신이 된 내 시야에는 주변의 한가로운 풍경이 눈에 다사로웠다.

쭈욱 깔린 잔디밭을 따라 띄엄 띄엄 놓인

벤치 주변으로 방금 돌아 나오는 새싹들, 봉우리져 있는 나무 가지 사이사이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런 것들은 마냥 내 마음을 부풀게도 가라앉게도 하는 것이었다.

“저어 처음 뵈겠습니다. S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H입니다.”

얼핏 정신이 든 나는 이렇게 먼저 인사를 치렀다.

“저 J라고 해요. OO과 3학년이에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자기를 밝히는 그녀의 모습은 그때의 내 저의의 소치였는진 몰라도 무척 인상적인 얼굴이었다. 과히 이쁘다곤 할 순 없었지만 점수(?)를 매기면 한 70점. 물론 그녀는 날 한 50점 정도로 보았는진 모르지만 말이다.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 나에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으젓히 용건을 물어오는 것이었다.

“예, 사실은 저 K양이 어떤 분인지 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뵈은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죠.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영춘 하이킹.....이란 말.”

“봄을 맞는 하이킹이라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춘 하이킹의 멤버가 짜이지 않아서.....”

“호호호. 재미있으시군요. 그러니까 그 영춘 멤버의 파트너 조직차?”

“네. 펜스가 상당히.....”

“그거야 뭐 인간의 마음이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데.”

대화는 이렇게 비약되어 갔다. 역시 봄은 남녀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비약시켜 주는 건지도 몰랐다.

“저희 쪽 멤버는 저까지 3명인데.....”

“그럼 저가 3명을 구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일시와 장소는 어디로 하면 좋을지?.....”

“내일은 너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쯤으로 우선 예비적으로 만나 볼.....”

“좋습니다. 그럼 장소는?”

“광화문 R다방에 오후 2시”

이렇게 해서 그 날의 계획은 기대 이상으로 완전 비약하여 일로 성과를 보았겠다.

여기서 그 후의 소식을 일일이 얘기하자면 아마 삼류소설 한 권쯤은 족히 되리라. 그래서 그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것을 인연으로 이 어중이 노장(?)하나는 그중의 한 큰 얘기과 끝인. 지금은 농사(?)의 보람까지 얻어 슬하에 옥동자 하나.

그러나 아직 남은 두어중인 채 나머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

몇 년이 흘러간 오늘 다시 그 봄은 왔는데 이렇게 냄새나는 하숙방에 박혀 시습잖은 회고담을 원고지에 메우고 앉았으니 오호라! 만상이 무심할 손.



낚시에의 유감

고정기(高廷基)
<여원지주간>

나의 책상머리에 날라 들어온 첫 번째 춘신은 낚시회에서 보내온 안내상이었다. 봄이 되었으니 낚시를 나가지 않겠느냐는 사연이 적힌 엽서 속에는 봄이 풍기고 있었다. 아아 봄인가 눈길을 돌려 밖을 내다보니 따사한 춘광이 바른편 콘크리트의 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짜릿한 촉감이 손등으로부터 전파되어 오고 시름없이 앉아 있던 공동이가 들먹거린다. 마음은 이미 낚시터를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낚시를 즐기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에서였다. 머리를 식힐 수 있다는 것. 아무런 잡념도 개입할 수 없는 두뇌의 공백 상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일 년 열두 달 밤낮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하는 정신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머리의 휴식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이다. 머리의 휴식 없이 지루하게 계속되는 안이하고 타성적인 사고 속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도 기발한 착상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머리의 휴식이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비록 신체는 휴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는 계속 범사 잡념의 수레바퀴를 맴돌고 있기 마련이다. 편집실에 앉으면 잡지 생각, 거리에 나서면 세상 걱정, 집에 돌아오면 집안 살림살이 걱정이 머릿 속을 중차역도 없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노이로제가 되지 않는 것만이 기적이었다. 하루는 이러한 고충을 K형에게 하소연 하였더니, “낚시를 해 보시요. 하여튼 낚시대만 붙잡고 앉으면 모든 잡념이 씻은 듯이 없어질 터이니.” 하고 강권하는 것이었다.

이래서 낚시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 번 두 번 낚시터에 나가고 고기를 낚아 올리는 순간의 짜릿한 촉감을 손목에 익히게 되자 차츰 나의 머리도 완전한 휴식의 필요일을 맞보게 되었다.

잡념을 가지고는 낚시질을 하지 못하는 법이다. 정신은 공백 상태를 지향하여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찌의 부침을 지켜보고 호흡의 일치를 노리고 마음은 방심과 긴장의 중간 지점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머릿 속을 공백으로 하고 하루해를 넘기고 나면 머리는 무라노의 약으로 세뇌된 기분이다. 마치 거품이 시원스럽게 일어나는 사이다로 머릿 속을 세탁해 버린 것 같은 그리고 내일의 생활과 내일의 사고에의 새로운 용기와 힘이 북돋아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낚시의 이 묘미에 못지 않은 것은 낚시터로 출발하는 새벽의 풍경이 안겨다 주는 상쾌한 기분이다.

낚시를 떠나는 전날 토요일 밤의 기대와 흥분이 교차하는 마음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늦도록 낚싯대를 손질하고 행장을 준비하노라면 어느덧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린다. 머리맡에 사발 시계를 놓고 어저지로 잠을 청하면

꿈속에서도 대어가 꿈틀거린다.

새벽 4시, 통금 해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집을 뛰쳐나오면, 오오, 그 맑은 대기의 향기, 인적없는 거리의 고요, 이곳에 한낮의 도진과 소요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같이 여겨진다.

합승에 오르면 벌써 낚시를 나가는 동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초면인데도 십년지기처럼 다정해지는 마음.

“어디로 가십니까?”

“네. 지난번에 나도 거길 갔었는데 재미 보았지요. 척짜리를 두 마리 올렸지요.”
“오늘은 이것 마바람(동풍)이 불어서 시원찮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합승은 개선 장군처럼 새벽 노을이 거쳐가는 도시를 달리는 것이다. 신호등은 빨간색, 노란색으로 명멸하나 새벽의 합승차는 아랑곳없이 무시하고 달리는 것이다. 정거장도 없이 손님이 내린다면 아무데서나 선선히 차를 멈춰주는 인심 좋은 운전수 새벽의 거리는 질서 이전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그만한 일에도 그동안 술한 규율과 제약에 위축되었던 싸움이 신천지나 발견한 것처럼 활개를 치는 것이다.

그러나 낚시는 역시 낚시, 낚시의 목적이 고기를 낚는 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고기가 물어주지 않으면 처음엔 싱겁고 나중엔 화가 치밀어 오른다. 보아하니 대양에서는 영상 대역섯 치짜리를 낚아 올리며 이쪽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던지고 있는데 이쪽은 고기도 공일날인가 와서 건드려 주지도 않으니 자리를 잘못 잡았나 미끼가 나쁜가 대양만 쳐다봐지고 그곳으로 옮겨 볼까 하는 마음이 꿀꿀같아진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나는 한번 잡은 자리를 옮기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있다. 일단 대를 뺀치고 자리잡은 곳을 떠나는 것이 귀찮기도 하거니와 어쩐지 고기를 쫓아가는 마음이 너무 속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고기가 오지 않으면 이건 참말로 고기가 없어서 안 오는 건지 내 낚시 기술의 부족인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화가 날 정도로 고기가 오지 않으면 나는 뚝 위에 드러누워 하늘에 뜬 구름을 본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난 생선 장수가 아니니까.....”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자위를 한다. 이럴 때마다 머리 속에 월산 대군의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자노매라

낚시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신고 빈 배 돌아오노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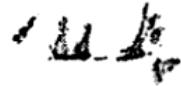
라는 시조가 떠올라 혼자 중얼거려 본다. 달빛도 없는 한낮에 이 시조를 중얼거리는 저의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장에 대한 공명감 때문이다. 월산대군도 낚시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했으니 내 낚시에 고기 아니 문다고 실망할 것 조금도 없다는 셈이다.

결국 돌고 도는 것은 돈뿐이 아니라, 붕어도 돌고 도는 곳. 붕어 도령들의 주유 수하의 행차가 한번은 내 낚시에 걸리기 마련인 것이다. 낚시꾼 붕어를 따라갈 것이 아니다. 붕어가 낚시꾼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다. 찌가 움직인다. 움직, 움직, 가만 있자. 침착하게 꽤 큰놈인걸.

됐다! 낚싯대를 낚아 올린 손이 짜르듯 전류를 탄다. 낚싯대가 휘어진다. 틀림없는 척짜리다. 수면 위로 올려서는 안 된다. 서서히 천천히 수면을 타고 잡아 다려라.

자칫 잘못하여 대어를 올린다는 그 흥분을 다스리지 못하다가는 낚아올리는 도중에 놓치기가 일쑤다. 대개 노천 고기는 큰 법, 아무리 땅을 치고 원통해했자 소용없는 일이다. 깨끗히 체념을 해야지.

나도 명년엔 서툰 솜씨와 지나친 흥분으로 많은 붕어를 놓쳤다. 그 붕어들이 예년에 없이 많이 휘몰아쳤던 올 겨울을 호저에서 편안히 안면을 했는지 몹시 궁금하다. 그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나도 빨리 낚시를 나가야겠다. 그렇지 않아도 봄을 알리는 낚시회의 안내상이 벌써 책상머리에서 춘풍에 팔랑거리며 나를 유혹하고 있다.



천엽 이야기

김동준(金東俊)
〈사상계사 취재부장〉

겨울 내 잠잠하던 낚시꾼의 생활이 요즈음 봄바람을 타고 생기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내가 여지껏 해 본 낚시꾼의 관록이라야 그리 자랑할 것도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의 흥미를 따지는데 조 차 관록을 셈하지 않으리라. 만 사람의 경우에도 각각 제 이유가 있어서 낚시꾼이 될 것이다. 소위 태공망의 자적, 청담의 한적, 또는 여유의 소식..... 아무래도 내 아랑곳 할 바 아니다. 나도 내 판에는 만 사람이 아랑곳 할 바 없는 내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철모르던 소년 시절의 한 가닥 정희의 실마리를 간직하자는 철마다 예방주사를 맞아 질역을 면해보자는 조그만 바람과 탁 트인 대기 속에 보다 진실한 생활의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를 얻자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무슨 큰 뜻이라도 있는 것 같은 낚시꾼의 변이 될 테지만 이런 이유 말고도 우선 내가 낚시질하기가 즐거워서 틈만 있으면 강으로 호수로 버는 개울가로 나간다. 그런 중에 가장 흔쾌했던 일이 생각난다.

명년 여름, 사에서 한창 더운 7월 말부터 8월 한 달을 휴가 기간으로 정해서 전 사원이 순번에 따라 보름씩 쉰 일이 있다. 이런 때면 지방 출신의 사원들은 대개 고향으로 가게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고향으로 내려갔다. 거기는 강원도 대관령, 어느 바닷가, 어떤 산골에도 못지않게 시원한 데다 내가 자란 고장 가까이 드넓은 시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내는 그리 크지도 않지만 또 산골짜기 시내보다는 큰 편이다.

그곳 사람들은 그물은 오대산의 산삼이나 약초가 썩어서 썩여 내리기 때문에 그 수질이 약수에 못지 않다고 자랑할 정도이다. 또 그 물속에는 갖가지 민물 고기가 많다. 하기가 한때는 사람들이 그 많던 고기를 물로 수확하여 어족이 마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지만 지난 여름에 가 보니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때 초라한 낚시대로

서울 근부의 수확보담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여름날은 그 물속에서 살다시피 지냈다. 때문에 그 시내의 물굽이며, 그 깊이까지 지금이라도 눈감고 말하라면 환히 내다보듯 말할 수 있다. 나는 물속에 발을 담그고 고기를 낚으면서 조금도 구김이 없는 자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구태여 표현하자면, 굽이를 돌아가는 물의 작은 거품을 보고도 생동하는 자연의 조화에 까닭 없는 즐거움이 배어 나왔다. 어릴 적에 대나무에 엉성하게 달아맨 낚시줄에도 고기들이 수없이 잡혔는데 물론 그만큼 되지는 못하였어도 성년이 된 후 다른 어느 때 보다 듬직하게 바구미를 채울 수 있었다.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지난 날의 일들이 명경 속의 그림자처럼 선하게 떠올랐다. 전 같으면 으레 그 지방 사람들도 웬만한 형편이면(일년에 한번이지만, 온 집안이 쓸어나와 천렵을 하게 마련이었다. 술을 물가에 내걸고, 한편에 서는 고기를 잡아 국을 끓이고 또 한편은 술을 걸러 향아리에 채워뒀다가 때가 되면 남너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한데 일러 즐거운 날을 즐기었다. 그 날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군다나 철없이 물방구를 텅기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심하면 잡아놓은 물고기를 바구미에서 꺼 내 어른 모르게 물속에 놓아주면 어른들은 성을 내어 호령치지만 그것도 그때뿐 그 순간이 지나 어른들이 취하고 아이들은 물속에서 물쌈이 한창에 다다르면 그 날의 해는 서쪽 산등성이에 누엿누엿 넘어간다.

이제는 예상일처럼 익숙해졌지만, 한창 더운 날의 한강 주변은 그대로 시장 거리나 다름없다. 처음에 나는 한강의 피서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들렀다. 그 많은 사람 그 더러운 물, 요란한 소리-근년에는 더 심해졌지만, 짧은 수영복만 걸친 여인들이 모래밭을 활보하고, 술주정하는 사람들이 발에 걸려 오 미터 정도도 마음 놓고 뛰놀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쯤 되면 피서도 하나의 경쟁이요 이수라의 그것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더 달리 느낄 수 없었다. 하긴 이제는 그런 감각이 둔해졌는지 모른다. 아무리 앞에서 소동을 쳐도 오불관연의 도시생리가 어언간 뼈끝 속에 배었으니 말이다. 여기에다 비교하면 명년의 피서는 더없이 달콤한 기쁨을 자아내게 하여 준다. 더군다나 그것이 열 손가락을 넘는 횟수의 간격을 두고 즐길 수 있었던 고향의 색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향에 안 간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름 아닌 만 철이기 때문에 아쉬운 감회만으로 시냇가를 거닐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는 오래오래 미루기만 하였던 전 가족 천렵이 되었다. 먼 외지에 나가 있던 가형까지 더하여 집안에서는 그날 마치 경사날처럼 부산스럽고 흔쾌하였다. 즐겁다는 순간순간의 감각 그것 밖에는 아무런 단 느낌이 없었다.

책임, 직무, 주장도 이 순간의 연속에 가름질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것들이 필요와 의무의 이름으로 생활 속에 나를 이끌고 당기고 하여왔으나 이 순간의 연속 속에는 팽개친 냥마처럼 쓸모없는 것들 처럼 망각되었다.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과 내가 두시간 걸려 잡아낸 물고기가 우리식구들이 족히 먹을만큼 되었다.

여기에다 닭고기, 물고기를 밀가루에 버무려 끓인다. 물론 갖가지의 양념을 넣어 서어려서 보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환히 알고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이때만큼은 남자들이 국을 끓이게 마련이다. 누구라도 이 일을 하게끔 되었고 이 일에서 불거나 거북살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없다. 적어도 지방에서는.....

그 물속에서 잠은 큰 물고기는 곧장 회를 쳐서 먹게 마련이다. 지스토마? 그곳에서는 조금도 그런 걱정이 없다. 대개 초장에 찍어 생채 먹어 대지만 그걸 먹고 탈 났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들은 일이 없다. 이처럼 맑은 물이니 주변의 산들이 아름다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가까이 있는 오대산월정사는 여름 지나기에 안성맞춤이다. 나는 그곳을 더욱 히 바라보며, 또한 번지 나간 정회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생각나니 말이지 그런 곳에 이르는 교통만 좋다면 어느 누구에 게라도 내가 앞을 서서 그곳에 데려가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다. 그 절에서 지내본 지나버린 어느 해의 일들이 선잠 깬 뒤의 꿈속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 즐거움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흠뻑 맛본 뒤 나는 성급한 시외버스의 기관 소리를 귓전에 담으면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겨울을 지냈다. 따져 보면 반년도 훨씬 넘는 예전(?) 일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나의 머리 속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되살아 나는 정경임을 어찌하라.

서울 근교로 나아가 하루해를 지내고 돌아오는 낚시꾼의 생활이 시작된다. 그 보담은 역시 또한번 하고 되뇌이고 되뇌어지는 아쉬움이 머리와 가슴속에 가득히 스며들어도 봄철에 느낄 수 있는 소활의 정감으로만 돌려 버리기에 어쩐지.....

◇ 연령 소동

명사 뉴컴차리는 생전에 마치 여자처럼 자기 나이를 감추어 왔다. 그는 장수했다. 그가 사망하자규칙에 따라 그의 연령을 관에 달아야 하는 표박에 기입해야 하는데 우인들이 말하는 나이가 모두 제각기 달랐다.

84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다 '79세다'라고 주장하는 우인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 중간을 따서 81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서고 해서 서로 들 싸움이 벌어졌다.

관직원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고만 있었다. 이윽고 관직원은 점잖고 표찰에다 나이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죽은 자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써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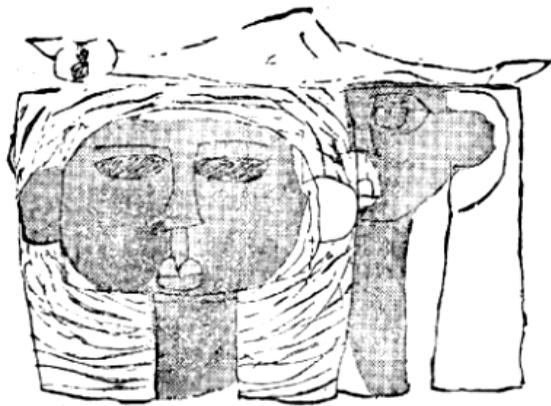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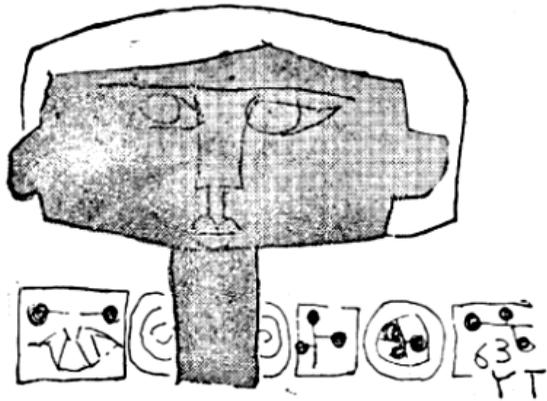
'상당한 연령의 노인'

**구석 구석 살펴 보자
붉은 마수 노리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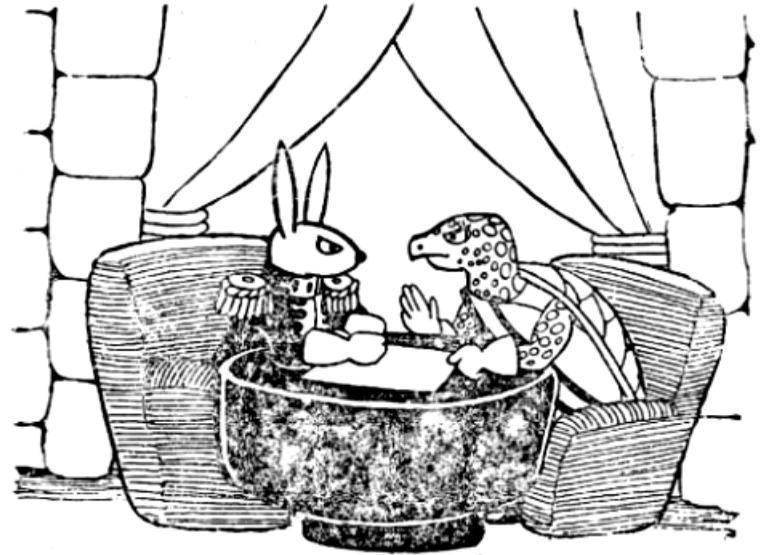
비소설같은 봄

글·그림
김영태(金榮泰)

겨울을 다 보내고 나니까 인생이 싱거워졌다. 머리칼들이 새파랗게 얼어서 마치 포인세치아의 그 핏살들처럼 근육 한 개 한 개가 전체로 긴장을 하고 있다가 해동기가 되면 멧없이 풀리는 이 허전함은 봄이 가져오는 연례적인 행사다. 그레 요새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와 같이 우족탕을 먹으러 간다. 기름이 낀 떡배기에 소발이 하나 들어 있는 운치 그 소 발 틈 사이에 살을 뜯어 먹는 맛은 야만적이지만 대단하다. 저녁때는 참새구이집에 간다. 약주를 한잔 달궈 놓고 참새구이를 대가리부터 깨물어 먹는 맛.문명이 승화될수록 사람들은 아마 싸디즘이나 마조히즘의 병을 지니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풍치 군 것을 빠다귀체 자근거리고 씹는다. 갈비집에 앉아 다 팔은 빠다귀에 남은 살을 재탕 삼탕 구워 먹는 사내들. 요 근래에 본 몬도가네란 영화 얘기.



봄은 어쩔 수 없이 자크를 찾거나 쇼크를 기다린다. 한 마디로 애기해서 봄은 비소 설의 3부작 같은 지루한 유대다. 수돗물을 꼭 틀어 놓고 싹타루치아 같은 낱은 명 꼭이라도 뽑아야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다.



신판 토끼전(완)

미라가 된 왕 거북

계문수(桂文樹)
〈삽화〉 고두현(高斗鉉)

토끼의 간을 때려다가 도리어 왕자 토끼의 피에 넘어가서 토끼 왕국의 CIC에 사로잡힌 거북 왕국의 특사 토끼는 이제 삼엄한 경호 아래 감옥에서 끌려 나와 왕 토끼 앞에 서서 사형의 선언을 받아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북 특사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 토끼 앞에서 있는 것은 단지 왕 토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죽이느냐? 그것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왕토끼의 노염은 대단하였습니다.

“저놈의 눈알을 뽑아서 가마귀를 주고 혀를 뽑아서는 여우를 주고 몸뚱이는 맷돌에 갈아서 강물에 뿌려라!”고 호통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 토끼가 가장 귀여워하는 막내가 왕자를 용왕궁 구경을 시켜준다고 피여 가서 간을 빼려 했으니.

이같은 왕토끼의 노염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 있던 왕자 토끼는 오히려 토끼왕국의 미풍인 덕치주의를 내세워 거북 특사를 용서하자는 간청을 하는가 하면, 토끼 왕국 국가보안청장도 CIC 사령관 토끼도 왕자 토끼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으니 왕 토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끼 왕국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토끼들은 방금 거북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권신수설에 대한 음모 사건과 관련시켜 거북 특사를 고묘하게 이용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는 거북 왕국의 왕 거북의 폭정은 드디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 폭동을 몇몇 혁명가 거북들이 조종하여 한때 국내는 매우 소란하였으나 왕 거북은 군대를 동원하여 피로써 이를 탄압하고 배후 조종자 거북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치를 재빨리 알아차린 반 왕권파의 지도자 거북은 이미 국경을 탈출하여 토끼 왕국을 거쳐 호랑이 나라로 망명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토끼 왕국에서는 반 왕권파 지도자 거북을 토끼 왕국 수도로 유치하여 모종의 회담을 가질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마땅히 목을 잘라야 할 거북 특사를 살려 두자는 이유는 이 계획과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물론 왕 토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 왕권파 지도자 거북을 수도로 유치하여 어느 정도 계획의 가능성 이 보였을 때 구체적으로 왕 토끼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북 특사도 물론 그동안에 일어난 본국의 폭동사건을 알 수는 없었다. 그는 왕당파도 아니요 반 왕당파도 아니지만 왕 거북의 폭정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좋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파벌적 배경이 없으면서도 정부의 요직에 있게 된 것은 오직 적당한 아침과 적당한 충성의 덕분이었습니다.

거북 특사는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왕 토끼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가 뜻밖에도 왕자 토끼를 비롯한 토끼 왕국의 정부 요인들에 의해서 생명이 건져질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토끼는 거북 특사 재판정인 이 좌석에서 거북 특사의 사형을 반대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자 토끼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요인 토끼들의 발언-그중에서도 토끼 왕국의 모사로 알려진 국가기밀 및 국가 최고 정책원 원장 토끼의 발언에 깊은 관심을 가진 왕 토끼는 느낀 바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북대사 듣거라. 귀국은 국제간의 신의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간계를 꾸며 거짓 불가침 조약을 맺는가 하면 그와 같은 허위 불가침 조약을 가장하기 위하여 친선 올림픽 대회를 열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토끼 왕국의 왕자의 간을 빼려고 들었으니 천인이 분노할 일이다. 짐은 마땅히 그대를 극형에 처할 일이로되, 토끼 왕국은 건국 이래 수천 만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덕치를 국시의 제1위로 삼아온 자랑스럽고 빛나는 전통에 입각하여 눈을 뻗자의 눈을 빼고 코를 벤

자의 코를 베는 그러한 보복주의를 배척하고, 어디까지나 원수를 덕으로 갚는 보원이덕(報怨以德)주의를 지켜온 바 이 숭고한 정신에 입각하여 그대의 대죄를 용서하는 것이니 대오각성할지이다.”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거북 특사는 처음 왕 토끼의 이와 같은 언도에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죄를 용서하더니 용서받는 측이 오히려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며, 거북 왕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관용이었습니다.

거북 특사는 혹이나 이것이 꿈이나 아닌가 하고 앞뒤를 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살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생시이며, 꿈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거북 특사는 호위병들의 안내로 국빈관으로 안내되어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북 특사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끼 왕국은 참으로 훌륭한 나라다. 거북 나라와는 아주 세계가 다르다. 덕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중히 하는 나라이며,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안다. 거북 왕국처럼 왕이 제 마음대로 독제를 삼가는 국풍이 있다. 때문에 이 나라는 언제나 국태민안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좋은 미풍을 거북 나라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또 거북 특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귀국하면 이와 같은 토끼 왕국의 미풍을 널리 선전하여 하나의 국민 운동을 전개하도록 반 왕당파와 손을 잡고 백성을 위한 참된 일을 해야겠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해 왔다. 내가 토끼 왕국에서 생명을 걸고 체험한 이 귀중한 교훈을 그냥 저버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거북 특사는 국빈관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편안히 3일 간을 지나고 있을 때 CIC 사령관 토끼가 홀연히 찾아왔습니다.

“거북 특사 어디 폭 쉬었습니까? 아마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시겠죠?”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령관 각하의 덕택으로 분회의 대접을 받아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고국 생각보다는 오히려 귀국의 높은 덕치 정치에 느낀 바 큼니다. 내 한 토끼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귀국의 높은 인도주의 사상에 그저 경복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있다면 거북 나라에도 귀국과 같은 덩치가 퍼지도록 이 남은 생명을 바쳐서 인도주의의 운동을 전개할까 합니다.”

하며 거북 특사는 다시 감사의 뜻을 표명하기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문안을 드릴 겸 귀국의 요즘의 소식을 전해 올릴까 해서....”

하고 사령관 토끼는 갑자기 말을 낮추었습니다.

“지금 귀국에는 폭동이 일어나서 국정이 매우 소란합니다.”

하고 사령관 토끼는 그간의 거북 왕국의 반 왕당파 소요사건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북 특사는 저우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 거북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압은 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간단히 이번 폭동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폭동은 단순한 왕 거북의 폭정에 대한 일시적인 폭동이 아니고 보다더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하나의 혁명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 거북이 그가 신봉하는 왕권신수설을 철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퇴위해야 할 것입니다. 반 왕당파의 주장은 입헌군주국을 주장하고 있으며, 왕권을 대폭적으로 제한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입헌군주국을 주장하는 반왕당파의 세력은 무서운 지하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왕 거북의 퇴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우리들은 귀하의 그러한 운동에 적극적이고 유익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토끼 왕국에서도 왕 거북의 그러한 정책을 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 거북의 행패가 우리 양국 간의 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CIC 사령관 토끼는 이렇게 하며 거북 특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CIC 사령관 토끼는 매우 조심성 있는 태도였으며,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습니다.

사령관 토끼와 거북 특사는 약 한 시간에 걸쳐 비밀회담을 했습니다. 어떠한 의견들이 교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소 군대는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신중하였고 진지하였습니다.

이튿날, 토끼 왕국 기밀 최고 정책원장 토끼도 참석하여 거북 특사와 CIC 사령관 토끼의 글자 비밀회담이 기밀 최고정책원 비밀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3자 회담은 거북 특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본 듯 화기 애매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튿날이었습니다.

거북 왕국의 반왕당파 지도자 거북이 호랑이 나라로 망명을 가기 위하여 극비밀리에 토끼 왕국의 국경선을 넘어 잠행하였습니다. 그는 비서 거북 2명과 함께 호랑이 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국경선은 매우 험한 길이었습니다. 우거진 숲속을 지나 바위틈 사이를 이용해서 토끼 왕국의 영토를 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이 정보를 입수하고 CIC 당국의 수배로 토끼의 레이더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잠행은 곧 토끼 레이더 부대에 의하여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토끼부대는 즉각 반 왕당파 지도자 거북 일행을 포로로 체포하였습니다.

“너희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고 레이더 토끼부대 대장인 대위 토끼가 권총을 빼들고 위협했습니다.

“미안하오. 우리는 반왕당파 거북들인데 혁명에 실패하고 호랑이 나라로 망명을 가는 도중이니 망명정책으로 인정하고 석방해 주기 바라오.”

반왕당파 거북의 지도자 거북은 당황함이 없이 태연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위 토끼는 더욱 노기를 띄우며 대원으로 하여금 그들 일행을 포위 하였습니다.

“그런 수작,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거북 족속의 말을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거북 왕국의 특사라는 자는 토끼 왕국과의 친선을 빙자하여 왕자 토끼의 간을 때려 들었다. 그 특사 거북은 방금 체포되어 재판 중에 있다. 당신들이 반왕당파 거북이로서 망명 도중이라 하지만 또 어떤 음모를 가지고 우리 토끼 왕국에 침입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본 토끼 대장은 너희들을 국경 불법 침입 및 간첩으로 인정하여 체포할 것이며, 군법 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레이더 부대장은 3명의 거북을 푹푹 묶어서 지체없이 CIC 본부로 압송하였습니다.

반왕당파 지도자 거북은 사태가 썩 불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북 특사의 그러한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토끼 왕국은 자기들도 그 음모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함께 처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끼 왕국의 서울로 압송되어 온 반왕당파 망명 거북은 의외에도 토끼 왕국의 정부 요인들에 의해서 후대를 받았습니다. 토끼 왕국의 정부 당국은 망명 거북 일행을 망명자로 인정하고 당 분간 토끼 왕국에 머물 것을 권하면서 신변 보호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망명 거북 일행은 우선 국빈관에 안내되어 하룻밤을 편안히 쉬 다음 이튿날 토끼 왕국의 정책수립자 토끼들과 함께 거북 특사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일동은 야반이 지나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정책원 원장 토끼와 CIC 사령관 토끼, 그리고 중앙정보청 청장 토끼의 3 토끼가 궁내의 상황실에서 왕 토끼에게 무엇인가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왕 토끼는,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피해를 입은 없으니 무방하다고 하겠으나 거북 특사는 충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고 한마디 주의하였습니다.

3일이 지난 후 거북 특사는 뜻밖에도 귀국의 도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띠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반왕당파 거북 2명이 토끼 왕국으로 망명하였다. 토끼 왕국에서는 왕 거북의 왕권신수설을 지지하고 있다. 만일 왕 거북이 원한다면 토끼 왕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거북 왕국의 반왕당파 폭동을 진압해 줄 것이며, 망명 와 있는 반왕당파 지도자 거북들을 적당히 처치해 준다. 그 조건으로 왕 거북은 토끼 왕국과 거북 왕국의 국경선인 해변가에서 왕 토끼를 만나 왕자 토끼의 간을 빼려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왕 거북에게 보고하고 왕 거북으로 하여금 해변가까지 나오도록 공작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국내에 남아 있는 반왕당파 지하조직 채일 자 거북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일대 폭동을 일으킬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전달은 지금 토끼 왕국에 망명 중인 반 왕당파 총지도자 거북의 지령이라는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만일, 거북 특사가 이와 같은 비밀임무를 거역하고 왕당파에 가담하는 반동 행위를 취한다면 그는 3일내에 암살당하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 특사에게는 전연 비밀로 반왕당파 지도자에게 수행해온 1명의 비서 거북 중 1명이 극 비밀리에 본국으로 잠입 들어갔습니다. 이 잠입 거북은 국내에서 반왕당파 지하 조직 책임자 거북에게 혁명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알려 일대 폭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거북 특사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거북 특사가 반동행위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살해하도록 지하조직 책임자 거북에게 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왕당파 정치위원회의 몇몇 거북들을 토끼 왕국으로 탈출케 하여 거북 특사의 공작이 성공하여 왕거북이 해변가로 나왔을 때 왕 거북과 정치적 단판 내지는 왕 거북의 처리 문제를 담당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작은 솔직하게 말해서 토끼왕국의 모사들이 꾸며 낸 하나의 음모였습니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용왕에 아첨하기 위하여 또 용왕의 힘을 빌려 반왕당파의 세력을 무찌르는 궁심으로 왕자 토끼의 간을 빼려 든 왕 거북에의 보복을 위한 엄청난 음모였습니다.

거북 왕국에는 지금까지 보기 드문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진압하기에는 거북 왕국의 그 미묘한 입장에 있는 군대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럴 경우 왕 거북이 믿고 있는 군대는 용왕궁의 원군이었는데 용왕궁에서는 왕 거북이 토끼의 간을 보내주지 않는 데 대한 악감정도 있었으나 방금 용왕님이 재기 불능의 중병으로 거북 나라의 사태에 머리를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왕 거북은 제삼 용왕궁에 원병을 간청했으나 용왕궁으로 가는 특사마저 반왕당파군에 포로가 되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거북 특사의 제안에 완강히 거부하던 왕 거북은 사태가 긴박해지자 하는 수 없이 거북 특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빨리 왕 토끼와 회담함으로써 토끼 왕국의 원병을 얻으려 서둘렀습니다.

거북 특사는 곧 왕 거북의 의사를 토끼 왕국에 통고했습니다.

토끼 왕국에서는 쾌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 회담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거북 왕국에서 지정된 날에 대비해서 토끼 왕국에서는 경치가 좋은 해변가에 임시 막사를 마련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드디어 회담 날짜가 왔습니다. 토끼 왕국에서는 회담 장소 근처에 중무장한 1개 연대의 병력을 잠복시키고 그곳에 망명 거북 정치 위원들과 그들을 인솔하는 반왕당파 지도자 거북을 대비시켰습니다.

바다 저쪽에서 커다란 잠수함이 나타나자 해변가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 거북이 30여 명의 거북 호위병에 둘러싸여 상륙하였습니다. 회담 장소인 막사에는 다섯 마리의 토끼 왕국 외무성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왕거북을 영접했습니다.

왕 거북은 왕 토끼가 먼저 나와서 영접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왕거북은 더욱 놀라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의 토끼 병사의 호위 아래 유유히 나타나는 것이 왕 토끼가 아니라 난데 없는 거북들이었습니다. 처음 왕 거북은 눈이 등그래해서 반왕당파 거북들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토끼 왕국의 외무성 직원 토끼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토끼직원들이 대답하기 전에 반왕당파 지도자 거북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폐하를 모신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반왕당파를 이끌고 거북 왕국에 입헌군주 정체를 세우려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 거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지도자 거북은 연달아 말했습니다.

“폐하, 이 자리에서 퇴위할 것을 선언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소한 폐하의 생명만은 보장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왕 거북은 분노에 떨며 책상을 치고 일어섰으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몸 둘 곳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왕 거북이 것처럼 시봉하던 왕권신수설의 최후였습니다. 왕 거북을 호위해온 거북병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가고 왕 거북은 토끼 왕국의 CC 대원에 의해서 토끼 왕국 영토 중에서도 가장 바다와 거리가 먼 숲속에 싸인 조그마한 못에 감금되었습니다.

이 못에는 물고기도 있었지만 자라가 많았습니다. 왕 거북은 이 못에서 왕 거북 노릇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거북은 이 못에서 몇 번이나 탈출을 해 보았으나 원체 바다가 멀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북 나라에는 새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새로 왕 거북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왕당파 입헌군주 형평위원회가 제정한 신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구악이 일소되어갔고 거북 시민들의 생활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토끼 왕국과의 국교도 정화되고 양국은 서로 협조하였으며 특히 거북 특사의 활약으로 거북의 새 나라에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덕치 정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국 땅 조그마한 못에 감금이 된 왕 거북은 마치 센트 헤라나섬에 유형이 된 나폴레옹처럼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으나 별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울분 속에 늪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천만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못 물이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물이 말라붙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왕 거북은 말라붙은 그 못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곡만이 흘러가는 동안에 왕 거북은 그 자리에서 화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화석이 된 거북의 미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 반달 속에서 미라가 된 아득한 그 옛날의 왕자 토끼처럼.....

(끝)

××××

××××

8909 Morale and Ideology.
 9100 Occupational Health.
 9330 Military Medical Entomology.

E C I

(공군 과외 통신 교육 실시)

자기 직책을 수행하면서 자기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흥미와 필요에 따라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과외 통신 교육제도를 이용하자.

- ◎ 과정 입과 신청은 공군대학 학술연구부로, 개별 신청
- ◎ 기일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 ◎ 설치 과정은 SOC, CSC, 및 각 특기 분야 총망라
- ◎ 자격은 공군 장병이면 누구나

5511	Roads and Grounds Specialist.
5520	Woodworker.
5632	Refrigeration Specialist.
5711	Fire Fighting and Aircraft Crash Rescue.
6001	Surface Transportation,
6003	Commercial Transportation Officer.
6031	Motor Vehicle Dispatcher.
6405	Supply Officer.
6422	Warehousing Specialist.
6423	Warehousing Supervisor.
6426	Organizational Supply Supervisor.
6428	Inventory Management Specialist.
6429	Inventory Management Supervisor.
6441	Fuel Specialist(Conventional).
6701	Budget Officer.
6743	Travel and Commercial Services.
6806	Statistical Services Officer.
6812	Introduction to the Statistical, Analysis, Data Processing, and Programming Career Field
6815	Statistical Specialist.
6823	Fundamental Principles of Punched Card Data Processing Machines.
7000	Administrative Officer.
7022	Basic Clerical.
7030	Stenographic Specialist.
7035	Postal Specialist.
7200	Information Officer.
7300	Personnel Fundamentals (Officer).
7321	Basic Personnel Principles
7332	Personnel Specialist.
7504	Education and Training Officer.
7511	Air Force Instructor.
2513	Education Technician.
7521	Academic Instructor.
7800	Military Justice.
7802	A Civil Law.
7803	Government Contracts.
8900	The Air Force Chaplain.
8901	Basic Doctrine for Character Guidance.
8902	Personal Counseling.
8903	Religious Education(Protestant).

3062	Aircraft Control and Warning Radar Equipment Maintenance(B).
3063	Aircraft Control and Warning Radar Equipment Repairman(C).
3066	Aircraft Control and Warning Radar Equipment Repairman(F).
3068	Automatic Tracking Radar Specialist.
3069	Ground Shoran Equipment Repairman.
3070	Advanced Electronics.
3111	Fundamental Principles of Guided Missiles.
3200	Ammunition Officer.
3201	Armament Electronics Fundamentals.
3205	Armament Systems Officer(Fundamentals).
3220	Fire Control Systems Fundamentals.
3230	Turret and Gunlaying Systems.
3623	Outside Wire and Antenna Systems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Specialist.
3624	Telephone Install-Repairman.
3626A	Manual Center Office Equipment Specialist.
3628	Communications Machine Repairman.
4031	Photographic Repairman.
4213	Aircraft and Missile Electrical Mechanic. 4221 Aircraft Instrument Mechanic.
4231	Aircraft Propeller Mechanic.
4241	Mechanical Accessories and Equipment Repairman.
4251	Aircraft and Missile Hydraulic Mechanic.
4301	Aircraft Maintenance Officer.
4304	Ground Equipment Maintenance Engineering Officer.
4310	Aircraft Mechanic Basic.
4311	Aircraft Reciprocating Engine Mechanic.
4312	Aircraft Jet Engine Mechanic.
4313	Aircraft Mechanic, Reciprocating Type Aircraft.
4315	Jet Aircraft Mechanic.
4351	Rotary Wing Mechanic.
4611	Munitions Specialist.
4621	Weapons Mechanic.
4711	Basic Motorized and Miscellaneous Equipment Mechanic.
4721	Automotive Repairman.
4725	Special Vehicle Repairman.
5331A	Sheet Metalworker.
5341	Airframe Repairman.

T. 수험 자격을 부여한다.

5. 과정 개요

ECI에 설치되어 있는 과정은 총 117개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은 일반적 및 직업적인 군사교육분야와 특기 분야로 대별된다. 일반적 및 직업적인 군사교육 분야에는 장교후보생과정, 초급지휘관 및 참여과정(SOC), 고급지휘관 및 참여과정(CSC) 등이 있으며, 특기 분야에는 정보, 사진, 지도, 기상, 통신, 전자, 유도탄, 무장, 통신정비, 항공기정비, 무장정비, 시설, 장비, 소방, 수송, 보급, 관리, 행정, 정훈, 인사, 교육, 법무, 군종, 의무 등 대부분의 특기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각 특기 분야마다 2개 이상의 과정이 설치되어 각자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중위 오갑환)

공군과의 통신교육 과정표

과정번호	과정명
2A	SOC(초급지휘관 및 참모과정)
3A	CSC(고급지휘관 및 참모과정)
2000	Intelligence Fundamentals.
2001	Intelligence Officer.
2041	Intelligence Operations Specialist.
2211	Drafting Specialist.
2300	Still Photographic Officer.
2320	Photographic Fundamentals.
2322	Still Photographer.
2324	Photographic Technician.
2500	Air Weather Officer.
2930	Basic Radio Operator.
2931	Ground Radio Operator.
2932	Airborne Radio Operator.
2935	Communications Center Specialist.
3001	Air Electronics Officer.
3008	Communications Officer.
3011	Radio Fundamentals.
3015	Advanced Communications-Electronics.
3027	Aircraft Radio Repairman(general).
3028	Aircraft Radio Repairman(navigational).
3040	Ground Communications Equipment Repairman.
3050	Electronics Fundamentals.
3051	Aircraft Electronic Navigation Equipment Repairman.
3052	Aircraft Shoran Equipment Repairman.
3056 A	Air Traffic Control Radar Equipment Maintenance.

사람. 지시된 기간 내에 답안 제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과정에서 도태되었던 사실이 있는 사람.

이상의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일단 입과되면 그는 입과 여부 통지와 함께 교재를 배분받으며, 교재와 동시에 또한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받는다. 각 교재에 대한 시험 답안지는 피교육자에게 배분된 후 적어도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교재로 구성된 과정은 배분 후 9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SOC와 CSC과정만은 각각 2년과 3년의 기간 제한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간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대 한도의 연장 기간이며, 그 기간에 맞추어 이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뜻은 아니다. 또 이 기간 이상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1개월에 교재 한 권씩 마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4. 평가 및 수료

피교육자가 배분 받은 교재를 다 읽고 이해를 하면 시험 문제에 의거하여 소정의 답안지에 해답을 하게 되는데 교재나 기타 참고 서적을 참고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순전히 객관식이다. 시험 성적은 최소한 전체 점수의 70%를 초과하여야 하며, 70% 미달시에는 낙제로 취급한다. 다만 재시험은 단 한번에 한하여 허락하되 70%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70% 이상의 성적을 인정치 않는다. 이렇게 하여 한 교재에 관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면 다음 교재를 배분받게 된다.

그런데 교재는 미공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또 전부 영문 서적이므로 과외통신교육이 확대되고 확립되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까지는 영어해독력이 없는 사람은 입과할 수가 없다.

한 개의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고 나면 공군 대학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으며 공본 특명으로 개인 자격기록부에 기록된다. 수료자 중 장교에 대해서는 특기승급직무수행능력 판단 및 보직판단 등에 있어 해당 특기 분야의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기 승급을 위한 A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공본토 내의 미공군 정규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 군인은 미공군 장병과 동등한 입장에서 ECI에 직접 입과하여 수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단 자기 나라로 귀국하면 그 특전은 상실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원조고문단이 주재하고 있는 국가의 군인은 ECI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ECI에서 군사고문단에 교재, 과정안내서, 입과신청서양식, 시험문제집 및 해답집 등을 제공하여 고문단이 과정의 운영 기록의 보관, 성적 평가의 책임을 지며, 교재의 번역, 복사사라던가 수료증 발급도 주관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 군인이 미공군의 ECI에 직접 입과할 수는 없으나 고문단의 교육훈련계획 하에 통신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2. 한국 공군의 과외 통신 교육

앞서 말한 미공군대학의 통신 교육 제도를 활용하여 한국 공군의 장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의도에서 1961년 8월 1일 우리 공군에서도 인사국교육과 주관 하에 과외 통신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6146 고문단을 통해 미공군 ECI로부터 교재를 주선 받고 입과 희망자 중 140명을 선정하여 입과시키고 오늘날까지 교육을 실시 중이다.

그 당시 인사국에서 담당할 일은 입과 신청을 접수하고 입과 신청자를 선정하며, 6146 고문단에 교재를 신청하여 주선된 교재를 배포하여 주는 일이었다. 따라서 6146 고문단에서 피교육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성적을 평가 기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인사국에서는 업무의 일부만을 담당하고 가장 중요한 평가 및 기록 보관이 고문단 측의 소관이 되어 있었으므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였다. 고로 140명의 입과자가 가운데 충실히 이수한 자가 적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육의 정책 수립과 계획 기관인 공본 인사국에서는 교육에 관한 실무를 직접 담당할 제도상, 병력상의 근거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신 교육 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군 규

정 50-12를 쫓아하고 그 규정에 의거 공군대학 학술연구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현재 동 연구부의 소관이 되어 있다.

한편 공군대학으로 통신 교육 업무가 이관됨과 동시에 성적평가, 기록 보존의 업무도 6146 고문단으로부터 이관받아 공군대학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며, 6146 고문단은 공군대학의 교재 신청을 받아 미공군대학 ECI로부터 교재를 주선하여 주기만 하도록 되어 우리 공군의 독자성이 확대되었다. 수료증도 공군대학과 6146고문단의 공동 서명으로 발급기로 되었다.

현재 146명이 입과하여 교육 중이며, 수료자는 11명이다. 입과 신청자는 상당히 많으며 미공군에서 교재를 보내주는 즉시 그들도 입과하도록 되어 있다. 미공군의 ECI에서 발급하는 이 교재는 자습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교범으로서서는 훌륭한 것으로 정평이 있다. 또한 피교육자에게는 일단 교재를 배포하면 회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교육자가 보유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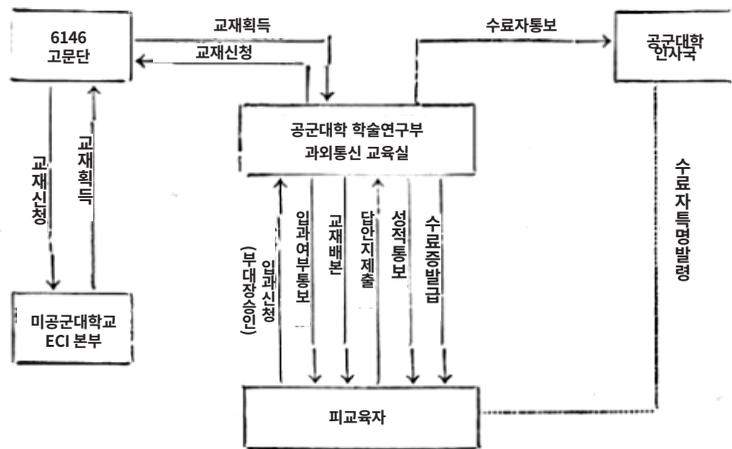
3. 입과의 이수 절차

통신 교육 과정에 입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과 신청서(공군 규정 50-12)를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얻은 후에 매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개별적으로 공군대학 학술연구부 과외통신교육실로 발송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번에 한 과정 이상 신청할 수는 없다. 공군대학 학술연구부에서는 신청을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입과 여부를 결정한다.

- (1) 보유한 특기 분야에 해당되는 통신 교육 과정에 한하여 입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유한 특기 분야 이외의 과정에도 입과할 수 있다.
- (2) 통신 교육에 입과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재입과를 허가하지 않는다.

가. 1년 이내에 과정 이수를 고의적으로 포기하거나 낙제하였던 사실이 있는

공군 과외 통신 교육 이수 절차표



공군 과외 통신 교육 소개

공군대학
학술연구부
제공

1. 과외 통신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 공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과외 통신 교육이란 본래 미공군의 통신 강의 제도를 그대로 본받아 그들의 교육 방법과 교재에 의거하여 우리 공군 장병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군사 및 기술 지식을 자발적으로 습득케 함으로써 자기 향상의 노력을 뒷받침하여 주는 제도인 것이다. 고로 미공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신 강의 제도를 먼저 이해하여야만 한국 공군의 통신을 알게 될 것이다.

미공군에서는 11년 전부터 미공군대학 교외 통신 강의 학교 즉 ECI(Extension Course Institute)를 설치하고 미공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병과 교관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여 가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신 강의 과정(Correspondence courses)을 세웠다. 통신 강의란 피교육자가 교육장에 집합하여 교육자의 지도를 직접 받는 학교 교육 방법과는 다르며 교육 기관은 단지 피교육자에게 교재를 보내면 피교육자는 이것을 자습함으로써 소기의 교육 성과를 달성하는 일종의 독학의 형태인 것이다. 이 방법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와 개별적이며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개인적 여러 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고 교육자가 피교육자로 직접 통제 감독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피교육자가 자발적으로 수강하며 자기 스스로가 자습하기 때문에 의외로 교육 성과가 크고, 더군다나 자기의 현대 직책을 수행해나가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공부하므로 직책을 떠나 학교로 파견 나간다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미공군에서는 장병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 형태의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정규 학교 교육이고, 둘째는 실무

교육(On-the-job training)이며, 셋째는 통신 교육이다. 정규 학교 교육은 교육 부대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직책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일시에 다수의 장병이 이 정규 교육을 받기는 어려우며, 실무 교육 역시 일시에 다수의 장병이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통신 교육은 자기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이것은 학교 교육을 받거나 전속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특기 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통신 교육은 피교육자 자신의 욕구와 흥미에 따라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수 기간에 신축성이 있으므로 자기 능력과 상황에 따라 단시일 내에 또는 장기간 내에 수료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기 교육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직접적 대면은 불가능할지라도 서신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연락이 가능하므로 교육을 받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미공군에서는 ECI에 일반적 및 직업적인 군사 교육은 물론 단기 또는 장기의 특기 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이 통신 교육 제도는 1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3년 전에만 해도 피교육자 수가 30명을 넘었으며, 교과 내용도 확장되고 발전되어와 오늘날에는 세계 최대 규모와 최우수의 통신 교육 제도를 자랑하게 되었다. 또한 통신 교육이 피교육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교육이므로 수료율(전 수강자에 대한 수료자의 비율)이 낮을 염려가 있으나 1960년도 미공군의 ECI 수료자는 15만 명이 넘었다.

미공군에서는 이 통신 교육의 설치 목적이 미공군의 장병 문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외국 군인에 대해서도

편집후기

○··통합 제1호를 내놓는다. 그간 장병들의 가슴속에 불멸의 기억들을 아로 새긴 코메트와 미사일이 이룩해 놓은 영토 위에 새 깃발을 올리는 것이다. 이 름하여 공군지—.

새로운 체재로의 정비와 더불어 이 공군지가 장병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양식의 원천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짐코자 한다.

○··특집 둘을 엮었다.

<인화와 단결>에 대한 검토는 고도의 정밀과 협력을 요구하는 공군의 업무 체계를 생각할 때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일 것이다. 대체로 단결에 약하다는 한국적 고질을 변명하기에 앞서 자기의 자세를 재검토함이 옳을 줄 안다.

그리고 나날이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정훈의 위치와 구실을 다시 파악하기 위하여 <현대전과 정훈>을 묶었다. 무엇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연재 심포지움 <한국의 자랑>은 이번으로 네 번째. 그간 우리의 산천, 미술, 유머 등을 다루었고 이번에는 우리의 음악을 토론히 본다. 우리 것에 대한 재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한 문제 의식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요청되는 시기이만큼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줄 믿는다. 독자들 가운데 의견이 있으면 두고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필자의 건필을 더욱 기대한다.

○··마지막 교정을 마치고 나니 이번에도 난산이었고나 하는 신고가 저절로 나온다. 더구나 요즈음 다른 군내 정기 간행물의 증가로 말미암아 그간 인쇄회부 와 동시에 문선 착수라고 하는 혜택(?)을 이번 호로부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대로 우리의 대책을 마련키 위해 서두르니 편집실엔 벌써 가을이 왔다. 앞에 얹은 L는 9월호의 수필 제목으로 '낙엽에 부치는 사연'이 어 떠나고 한다.

어느새 여름이 갔나? (ANS)

○··이따끔 퇴근 버스 속에서 「미사일」이나 「공군신문」을 읽는 것을 본다. 그럴 때마다 독자의 표정과 그가 읽고 있는 지면을 주시하는 것이 어느새 버릇이 되어 버렸다. 첫째로는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심사에서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정성 들여 만든 잡지나 신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그의 표정을 통해서 읽어 보려는 욕심에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무표정하기만 해서 한층 안타깝기만 하다. 한 토막의 글로라도 좋다. 솔직한 평과 건설적인 의견을 들려주었으면 한다. 더구나 이번부터 공군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기 바란다.

○··한동안 많이 두고해 오던 장병원 고가 요즈음 좀 뜸하다. 봄을 타는 모양인지.....? 두고해 온 작품을 대할 때마다 한 자 한 자 정성을 모은 열성에 마음이 호뭇해진다. 다 실리게 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쉽다. 더욱 많이 두고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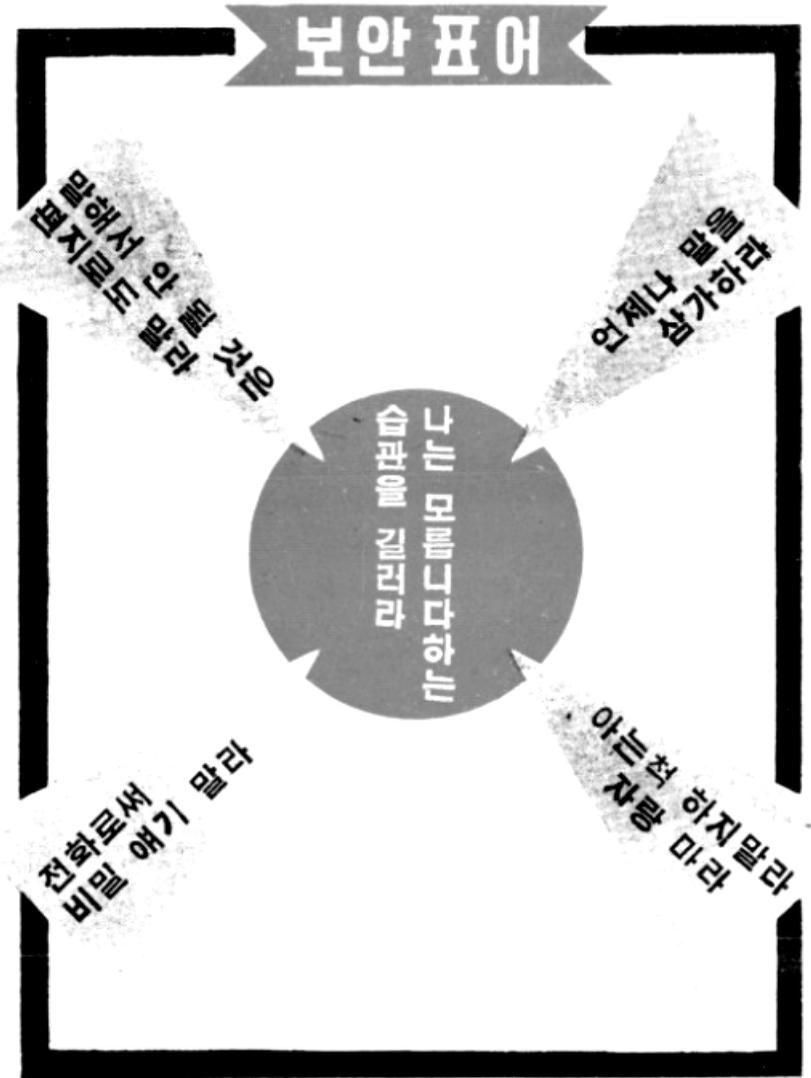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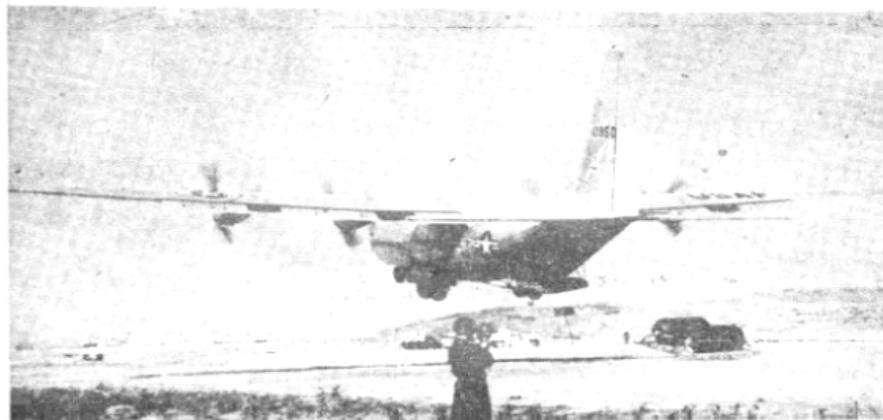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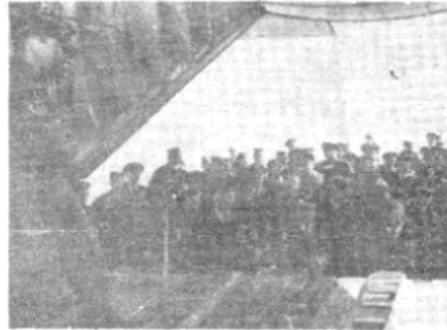
미공군 계기 비행 학교 제1
훈비에 친선기념비

지난 3월 21일, 미공군기
비행학교에서 우리 제1비
계기 비행대대에 기념패
증정하였다.

<사진: 미6□ 고문단장 스
미스 대령에 의해서 장 참모
총장에게 전달된 기념패>

미 전술 공군서 지면접근 장비 투하 시범
미 전술 공군 사령부 주관 아래 K-16 기
지에서 지난 3월 18일, 지면접근 장비 투
하 시범이 거행되었다.

<사진 : 위는 투하 장치의 설명을 듣는
장 참모총장을 비롯한 내빈을, 아래 장
비를 접지 투하하는 광경>





인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